

해남의
고인돌

해남문화유산 총서 6

해남의 고인돌

발행일 2020. 06. 04

발행 해남군
590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Tel. 061) 530-5114 Fax. 061) 530-5599
www.haenam.go.kr/

지은이 이해연 · 조진선

인쇄 라 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21-1(금동)
TEL. (062)232-4747

ISBN 978-89-967709-6-1 03910

발간등록번호 78-4930000-000058-01

© 해남군, 2020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해남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남의 고인돌

이혜연 · 조진선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석문화이다. 무덤방을 덮은 거대한 바위가 지상에 드러나 있고 그 밑에 받침돌, 묘역시설, 무덤방 등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남군 관내에서는 118개소 94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해남군
HAENAM-GUN

머리말

『해남의 고인돌』은 여섯 번째 해남 문화유산 총서로 발간되었다. 이 총서 사업은 해남군에 분포하는 고인돌 유적의 분포 상황과 성격 확인 등을 통해 유실이 가중되고 있는 주요 문화재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해남군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은 122개소 934기로 확인되었다. 고인돌 유적은 밀집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두륜산을 비롯한 산지가 많은 북일면, 북평면을 제외하고는 하천 주변의 구릉지나 산사면 등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

해남군의 고인돌 유적은 발굴조사 된 사례가 많지 않아 주요 특징이나 성격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남군의 고인돌 분포조사는 1986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시작된 이후, 이제까지 네 차례의 현황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그 결과 유실된 고인돌 유적도 확인되었으며, 일부 유적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번 총서에 기록한 고인돌 내용이 유적의 모든 것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원고를 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총서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대한문화재연구원 선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를 작성해 주신 조진선 교수와 총서발간을 기획하고 지원해준 해남군 관계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2020. 06

대한문화재연구원 이혜연 씀

차례

머리말 4

1장 우리나라 고인돌의 이해	10
1. 고인돌이란?	10
2. 고인돌의 분포	11
3. 고인돌의 종류	13
4. 고인돌의 구조	14
5. 고인돌의 축조방법	18
1) 채석	18
2) 덮개돌의 운반	19
3) 고인돌의 축조	21
6. 고인돌의 꺼묻거리	22
 2장 한국의 고인돌과 해남	26
1. 한국의 고인돌	26
2. 전남의 고인돌	29
 3장 해남의 고인돌	34
1. 발굴조사된 고인돌	34
1) 해남읍 안동리유적	35
2) 현산면 고현리 고인돌	37
3) 현산면 황산리 분토유적	39
4) 송지면 군곡리 패총	40
5) 옥천면 영춘리 고인돌	42
6) 계곡면 덕정리 월암 고인돌군	43
7) 계곡면 선진리 선진 고인돌군	45
8) 계곡면 장소리 장소 고인돌	46
9) 황산면 호동리 고인돌	47



2. 우리마을의 고인돌	49
1) 해남읍	50
2) 삼산면	64
3) 화산면	81
4) 현산면	99
5) 송지면	131
6) 북일면	143
7) 옥천면	147
8) 계곡면	182
9) 마산면	190
10) 황산면	219
11) 산이면	223
12) 문내면	239
13) 화원면	249
 4장 해남의 고인돌 문화	258
1. 해남의 고인돌 분포와 특징	258
1) 해남군 고인돌 현황	258
2) 읍·면별 고인돌의 분포양상	262
3) 해남군 고인돌의 분포밀도	281
4) 해남군 고인돌의 등장과 확산과정	286
2. 해남의 고인돌 보존활용 방안	288
 부록	
1. 해남군 고인돌 목록	294
2. 해남군 고인돌 분포도	299
3. 참고문헌	300

1장

우리나라 고인돌의 이해



1. 고인돌이란?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석문화이다. 무덤방을 덮은 거대한 바위가 지상에 드러나 있고, 그 밑에 받침돌(고임돌, 지석), 묘역 시설, 무덤방 등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무덤으로 쓰이고 있지만 공동무덤을 상징하는 묘 표석 또는 종족이나 집단의 모임장소나 의식을 행하는 제단 혹은 기념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인돌은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 또는 지석묘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시세키보(支石墓), 중국에서는 석봉(石棚)과 대석개묘(大石蓋墓), 유럽에서는 거석기념물(Megalith monument) 또는 돌멘(Dolmen)이라 부른다.

고인돌은 킴돌 또는 고임돌에서 연유된 명칭으로 지석묘라 한다. 북한에서는 고인돌무덤이라 쓰고 있다. 켈트어인 돌멘은 탁자란 뜻인 ‘Dol’과 돌이란 의미인 ‘Men’의 합성어로 탁자식 고인돌을 연상시킨다. 영어로는 ‘Table Stone’이라 한다.

1 1장 우리나라 고인돌의 이해는 “한국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편”과 “경기도의 고인돌”, “한국 전통시대의 토목문명”의 책자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고인돌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자연석이 땅에 묻혀있다고 하여 독배기, 바우배기, 독바우로, 기반식(基盤式) 고인돌의 경우 권바우, 암탉바우로, 덮개돌의 형상에 따라 배바우, 거북바우, 두꺼비바우, 개구리바우로, 고인돌의 배치상에서 칠성바우, 옛날 장군이 돌을 옮기다가 말았다는 전설이 많아 장군바우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고인돌은 북유럽, 서유럽, 지중해 연안지역,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 큐슈(九州)지방, 중국 동해안지역과 동북지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 약 4만 여 기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남지방에서 2만 여 기로 밀집분포 되어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인돌은 거의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각 지역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2. 고인돌의 분포

우리나라 고인돌은 제주도를 포함한 국토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특히 서북한 지역을 비롯한 충청·전라지역의 서남해안 지역에서 상당수의 고인돌이 보고되어 고인돌 문화가 서해를 통한 바다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전파·발전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의 고인돌은 대동강유역의 평안남도과 황해도 등 서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인 두만강유역에서는 아직까지 고인돌이 보고된 예가 없어 함경북도 김책지역의 덕인리 고인돌이 동아시아 고인돌의 분포한계선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²

남한의 고인돌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전남지역에만 약 2만 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해있어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여준다. 남한의 고인돌 분포양상을 볼 때, 한강 이남의 해안지역을 비롯한 충남 서산의 태안반도, 군산, 김제, 목포 등의 평야지역에서는 고인돌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고인돌 축조 당시의 해안선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 연구』, 백산자료원.

고인들이 주로 분포한 곳은 하천가의 평지나 구릉, 고갯마루와 산기슭 등 인간 생활과 밀접한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고인들의 재료로 쓰인 바위를 구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 특징을 보인다.³

고인들이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산이나 구릉에 인접된 평지나 하천변의 평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넓게 펼쳐진 구릉지내의 평지보다는 하천변 평지나, 좁은 계곡 평지에서 고인들이 위치한다. 구릉에 위치한 고인들은 대부분 산과 인접한 구릉 상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확인된다. 고갯마루에 위치한 고인들은 산마루와 구릉마루로 구분할 수 있다. 산마루는 비교적 높은 지형으로 양쪽의 경사



우리나라의 고인돌 분포(이영문 · 신경숙, 2014)

가 심하고, 구릉마루는 세장한 구릉의 끝에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구릉마루의 경우 사람이 통행하는 교통로의 기능이 강한 길목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산기슭에 위치한 고인들은 산에서 흘러내린 경사면 또는 산중턱과 산기슭에 형성된 대지상에 분포하고 있다. 산기슭에 위치한 고인들은 대부분 산줄기 방향으로 등고선을 따라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의 연구』, 학연문화사.

3. 고인돌의 종류

한국의 고인돌은 외형적 형태에서 크게 탁자식(卓子式), 기반식, 개석식(蓋石式), 위석식(圍石式) 등 4종류가 있다.

탁자식 고인돌은 잘 다듬어진 판돌(板石) 3매 또는 4매로 짜맞춘 돌무덤방(石室)을 지상에 축조하고 그 위에 편평하고 거대한 판돌상의 돌을 얹어 놓아 마치 책상모양이며, 주로 한강 이북의 북쪽에서 주 분포권을 이루고 있어 북방식(北方式)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돌로 된 천막처럼 생겨서 석봉이라 부른다. 대형의 탁자식은 요동(遼東)반도와 한국 대동강유역에서만 나타나고 구릉이나 산 중턱에 1기씩만 있다. 이 외 지역의 북방식은 규모가 작고 돌무덤방의 폭도 좁고 덮개돌이 두꺼운 것들이다.

기반식 고인돌은 판돌을 세우거나 깎돌(割石)로 쌓은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고 그 주위에 고임돌을 4매에서 8매 정도를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바위같은 돌로 덮어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바둑판식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호남과 영남 등 남쪽에 집중되어 있어 남방식(南方式)이라고도 부른다. 덮개돌이 거대하고 괴석상(塊石狀)을 한 것은 호남과 영남지방에서만 보이고 무덤방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강화 부근리 탁자식 고인돌



영광 성산리 평금 기반식 고인돌



무안 월암리 개석식 고인돌



제주 용담동 위석식 고인돌

바로 뚜껑으로 덮개돌이 놓인 형식으로 요동반도, 한반도, 일본 큐슈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는 고임돌이 없는 기반식으로 분류하여 무지석식(無支石式)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무덤방을 큰 돌로 덮고 있는 형태에서 대석개묘(大石蓋墓)라 한다.

위석식 고인돌은 덮개돌 밑에 자연석 또는 판돌 수 매를 돌려놓은 형태이다. 자연석을 이용한 것은 소형 고인돌 아래에 마치 무덤방처럼 방형이나 원형으로 돌을 돌려놓은 것이다. 판돌을 이용한 것은 소위 제주식이라 부른 형태로 덮개돌의 가장자리를 따라 6매에서 12매 정도 서로 잇대어 세우고 한쪽 면이 개방된 것이다.



탁자식(북방식) 고인돌



기반식(남방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

4. 고인돌의 구조

고인돌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덮개돌이다. 덮개돌은 단순히 무덤방을 덮은 역할 외에도 무덤의 표표적인 기능을 하며 고인돌의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덮개돌에는 당시 사람들이 고인돌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흔적들은 당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고인돌의 구조(이영문, 2014, 『고인돌, 역사가 되다』 p.14~15 삽입도면 재편집)

받침돌은 덧개돌을 받치거나 고이고 있는 돌이다. 탁자식의 경우 받침돌 자체가 무덤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덤방을 구성하는 4매의 벽석을 말한다. 기반식 고인돌에서는 무덤방이 덧개돌의 무게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켜돌, 지석, 고임돌, 족석(足石) 등으로 불린다.

덧개돌과 받침돌 주위에 돌을 늘어놓아 구획을 표시하거나, 납작한 돌을 깔거나 잔돌을 쌓은 부분을 묘역시설이라고 한다. 둘레돌, 구획석, 묘역석, 묘역, 묘역 고인돌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담양 궁산리 고인돌의 받침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무안 성동리 묘역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진안 안자동 묘역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무덤방은 돌방, 석실(石室), 묘실(墓室)이라고도 한다. 무덤방은 매장주체부를 이루기 때문에 고인돌에서 중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탁자식 고인돌은 지상에, 기반식 고인돌과 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자리한다.

탁자식고인돌의 무덤방은 판석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땅 위에 무덤방을 만드는데, 4매의 판석을 짜맞추거나 3매의 판석을 세운 후 막음돌을 이용하여 마무리하기도 한다. 박침돌의 막음돌은 축조가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 무덤방을 폐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기반식과 개석식 고인돌의 무덤방은 구덩이를 파서 만드는데, 맨바닥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판석이나 조그마한 자갈을 깔아 바닥면을 조성하기도 한다. 주변 사면에 깎돌을 쌓아 올리거나 판돌을 세워서 네모나게 만들고 그 위를 뚜껑돌로 덮는다.



무덤방의 종류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축조방법에 따라 고인돌의 무덤방은 판돌로 된 돌널형(石棺形), 갯돌이나 강돌로 쌓은 돌덧널형(石槨形), 돌널형과 돌덧널형이 함께 나타나는 혼축형, 구덩이만 있는 움형(土壙形), 덮개돌 아래에 돌만 둘러진 돌두름형(圍石形) 등이 있고, 그 평면 형태는 긴 사각형이 대부분이다.

돌널형은 석곽형 혹은 판석형으로도 불리며 맨땅을 판 후 넓직한 판석을 세워 무덤방을 만든다. 평안도와 황해도지방의 개석식 고인돌에서 많이 찾아지며 한강유역과 영산강유역, 전북 고창, 경북지역에서도 상당수 발견된다.

돌덧널형은 석곽형 또는 할석형으로 불리며 갯돌이나 막돌을 쌓아 만든 것을 말한다.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돌널형 무덤방(함평 덕림리 백양지석묘군 19호 고인돌)



돌덧널형 무덤방(함평 덕림리 백양지석묘군 23호 고인돌)

움형(구덩이형)은 덮개돌 밑으로 뚜렷한 무덤방이 없이 그냥 구덩이만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일부 판석을 세우고 일부는 할석을 쌓아 축조한 혼축형과 덮개돌 아래에 궤돌이 둘러져 그 자체가 무덤방의 역할을 하는 돌레돌(위석형)형이 있다.

무덤방은 오늘날의 나무널처럼 긴네모꼴 구조물 위를 한 장의 판석이나 여러 장의 납작한 돌로 덮었었는데, 이를 뚜껑돌이라고 한다.



보성 죽산리 하죽고인돌의 뚜껑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5. 고인들의 축조방법

고인들의 축조는 당시 사회에 있어 상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행사였을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건축이나 역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축조에 필요한 노동력의 동원·장례풍속 문제 등 당시 사회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채석

고인들의 채석 과정에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과학적 지혜가 녹아있다. 마을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생기면 장례를 주관하는 이들은 죽은 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덮개돌의 규모, 덮개돌을 채석하기 위한 채석장을 선정한다. 그리고 채석장에서 채석할 돌의



화순 고인돌 감태바위 채석장(신경숙, 2012, 「고인돌 축조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13)

모양, 돌의 운반거리와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고인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돌은 암반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암반에서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돌망치로 바위에 켜기 구멍을 뚫은 다음, 나무지렛대를 이용하거나, 나무췌기를 구멍에 넣고 망치로 치거나, 나무가 부풀어오를 때까지 물을 부어 적셔서 암반에서 돌을 분리한다.

채석 작업에는 금속기가 아닌 돌로 만든 도구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고인돌의 채석과 돌을 다듬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고인돌 조사에서 채석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췌기 흔적이나 췌기 주변의 박리흔적, 채석과 관련된 큰 박리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어서 췌기를 이용한 채석행위를 입증하고 있다.

채석의 원리와 췌기의 기술원리를 이해하였다는 것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이전 시기인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석재 가공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암석을 분리하는 방법과 기술(신경숙, 2012, 「고인돌 축조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13)

2) 덮개돌의 운반

채석과 더불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은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덮개돌의 운반이다. 앞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덮개돌은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 고인돌을 축조하려고 하

는 장소로 옮겨지게 된다. 덮개돌을 옮기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가는 실험 고고학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1톤의 돌을 1마일(1.6km) 옮기는 데 16~20명이 필요하며, 32톤의 큰 돌을 둥근 통나무와 밧줄로 옮기는 데 2백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덮개돌의 운반은 힘의 장용 방식에 따라 뒤에서 미는 방법과 앞에서 끄는 방법, 그리고 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인돌은 채석장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반을 위해 여러 방안이 고안되었다. 여러 개의 둥근 통나무를 두 겹으로 엇갈리게 깔고 덮개돌을 옮겨 놓아 끈으로 묶어 끈다거나 지렛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무게가 가볍고 가까운 거리에는 지렛대식이나 목도식이, 먼 거리는 끌기식이 쓰여졌을 것이다. 하지만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드러난 운반도구는 일본 고분시대의 목제 슈라(修羅) 정도가 알려졌을 뿐, 통나무나 줄의 실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나무를 이용한 덮개돌의 운반(신경숙, 2012, 「고인돌 축조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13)

3) 고인들의 축조

채석과 운반과정은 고인돌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축조 단계는 죽은 자를 모시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므로 어느 단계보다도 엄숙한 절차와 의식행위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주검이 안치되는 무덤방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모두 커다란 덮개돌을 무덤방에 얹음으로써 마무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1. 구덩이를 파고 받침돌을 세운다.



2. 받침돌을 세운 후 흙으로 채운다.



3. 덮개돌을 올린다.



4. 고인돌을 완성하고 제사를 지낸다.

고인들의 축조과정(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축조 1단계는 매장주체부의 축조이며, 2단계는 묘역 축조이다. 장례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검이 안치되는 무덤방을 구축하는 단계로써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격리하는 밀봉작업이다.

운반하여 묘역까지 이동된 덮개돌을 무덤방에 올림으로써 고인돌이 완성된다. 덮개돌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통나무를 이용하는 방식, 흙을 경사지에 쌓아올리는 방식, 가구

된 통나무 위에 덮개돌을 놓고 무덤방을 조립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통나무를 이용하거나 흙을 경사지게 쌓아놓는 방식은 모두 빗면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수직면으로 올릴 때 힘의 반이면 충분하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흙을 경사지게 돋우는 방식은 덮개돌과 받침돌 사이에 종종 흙으로 메워져 있는 흔적으로 증명된다.

6. 고인돌의 꺼묻거리

출토유물은 크게 무덤방 내의 꺼묻거리용과 무덤방 주변의 의례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꺼묻거리 유물은 돌검, 돌화살촉, 붉은간토기, 가지무늬토기, 청동기, 옥류 등이 있으며, 의례용 유물로는 돌화살촉, 돌칼, 흙자귀, 돌끝, 숫돌, 갈판, 가락바퀴, 그물추 등 다양한 석기류와 토기 파편들이 있다. 대부분 돌검 1점만 부장시킨 경우가 많으며, 돌검 1점과 돌화살촉 수점 또는 수십점이 한 무덤방 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돌화살촉만 무덤방 안에 부장된 경우는 없고 출토되더라도 무덤방 벽석에 꽂혀져 발견된다. 그리고 남해안지역의 고인돌에서는 비파형동검 등 청동기와 옥류, 붉은간토기나 가지무늬토기를 꺼묻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시기적인 차이도 있으나 집단이나 신분적인 면에서 각기 다른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돌에서 발견된 사람뼈로 보아 하나의 돌무덤방에 한사람만 묻은 것이 보통이나 탁자형의 경우 한쪽 면의 개폐가 용이하여 복장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탄 오덕리 고인돌처럼 돌무덤방 내부에 몇 개의 칸막이된 공간에 사람뼈가 흩어져 있는 특수한 예도 있다. 고인돌의 매장방법은 퍼묻기, 옆으로굽혀묻기, 화장, 옆으로묻기, 세골장 등이 있다. 퍼묻기는 황석리의 예처럼 고인돌의 보편적인 장법이다.



고인돌 출토 석검(전남 각지)



고인돌 출토 석검(전남 각지)



거제 아주동 고인돌 출토 옥 일괄

2장

한국의 고인돌과 해남



1. 한국의 고인돌

고인돌은 거석문화 가운데 하나이다. 거석문화는 자연석이나 인공적으로 다듬은 돌로 구조물을 만들어 숭배의 대상이나 무덤으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세계의 거석문화로는 고인돌(支石墓), 선돌(立石), 열석(列石), 환상열석(環狀列石), 돌무지무덤(石塚)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석문화로는 고인돌과 선돌이 있다.⁴

고인돌은 유라시아 대륙의 넓은 지역에서 확인된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에서 조사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인돌은 남방의 절강성 온주지역과 동북방의 요동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북한 모두에서 확인되며, 일본에서는 북부 규슈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요동과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한국고대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일본열도에서 확인된 지석묘 역시 한국고대문화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북부 규슈 일대에 밀집 분포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열도의 지석묘는 한반도로부터 농경문화가 파급되어 형성된 아

4 趙鎭先, 2008, 「耽津江流域圈 支石墓의 形式과 變遷」, 『湖南考古學報』30.

요이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동북아시아의 고인들은 한국고대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고인들의 기원과 관련해서 주목 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고인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 확인되며, 넓게 보면 중국 절강성 일대와 대만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 고인들의 남방기원설은 일찍부터 제기되었지만⁵ 그 대상이 된 인도네시아 고인들들에 대한 자료가 지극히 한정된 상태에서 등장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 고인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⁶ 이를 토대로 남방기원설이 강화되거나⁷ 양자 간의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⁸ 하지만 인도네시아 고인들의 상한연대는 한국보다 1,000년 정도 늦기 때문에 고인들의 존재나 외형적인 유사성만으로 남방기원설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고인들은 그보다 연대가 이른 중국 절강성 일대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⁹ 그러므로 한국의 고인들문화는 요동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일본열도로도 파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북아시아에서 고인들은 요동지역에서 700~800여 기, 한반도에 30,000~40,000여 기가 분포한다. 일본열도에도 500~600기 정도의 고인들이 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고인들은 한반도에 가장 많다. 한반도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은 20,000여 기의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광주·전남지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고인들 밀집분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남군에도 1,300여 기의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광주·전남지역 평균 이상의 분포밀도를 보이고 있다.

5 金秉模, 1980, 「자바島の 巨石文化 -인도네시아 巨石文化의 研究(1)-」, 『韓國考古學報』 8.

金秉模, 1981, 「韓國 巨石文化 源流에 관한 研究(1)-」, 『韓國考古學報』 10·11.

6 賈鍾壽, 2004, 「니아스섬의 巨石文化」, 『先史와 古代』 21.

가종수·가기야 아키코·요시다 야스히코, 2009,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숨바섬의 지식묘 사회』, 북코리아.

가종수, 2012, 「동인도네시아 사부섬의 지식묘」, 『계간 한국의 고고학』 21.

조진선, 2010, 「인도네시아 숨바섬의 거석묘 조영과 확산과정」, 『고문화』 76.

임영진·박수현·이정진·Bagyo Prasetyo·가종수·이동희·조진선·윤호필, 2011,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파세마고원의 거석유적」, 『호남고고학보』 38.

7 송화섭, 200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고인돌」, 『인문콘텐츠』 4.

8 유태용, 2007, 「호남지역 석주식 지식묘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8.

9 조진선, 2013, 「인도네시아 지식묘의 기원 -중국 절강성 지식묘와 비교-」, 『韓國上古史學報』 80.

유럽에서 고인들은 주로 신석기시대에 조영되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숨바섬)에서는 지금도 고인들을 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보면, 고인들은 긴 시간동안 축조되었다. 한국의 고인들은 방사성탄소연대로 보아 상한연대는 기원전 10~11세기까지 올라간다.¹⁰ 고인들은 주로 청동기시대에 조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한연대는 기원전 4~2세기경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지만 기원전후 또는 그 이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¹¹ 해남군의 고인들 역시 청동기시대부터 조영되었을 것이지만 고현리 고인들과 군곡리 군안 고인들군에서 수습된 유물들로 보아 기원후 1~2세기까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인들은 무덤으로 사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땅 위나 땅 속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밖에도 공동무덤임을 상징하는 묘표석이나 집단의 의식을 행하는 제단, 그리고 집단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¹² 묘표석이나 제단으로 사용된 고인들들은 거대한 크기의 덮개돌을 여러 개의 꺾임돌들이 받치고 있지만 무덤방을 갖추지 않은 것이 많다.

고인들은 크게 탁자식(북방식), 바둑판식(남방식), 개석식으로 구분된다. 탁자식은 지상이나 반지하에 판석으로 만들어진 네모난 무덤방이 덮개돌을 직접 받치고 있다. 한국고대문화권에서는 요동과 한반도 중부 이북지역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북방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고창, 나주, 강진 등 남부지역에서도 탁자식 고인들이 확인된다. 바둑판식은 여러 개의 꺾임돌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기 때문에 남방식이라고도 한다. 개석식은 지하, 또는 반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바로 위에 덮개돌을 올려 놓은 형식이다. 이러한 고인들은 모든 지역에서 확인된다. 탁자식 고인들의 무덤방은 판석으로 상자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다. 그러나 개석식과 바둑판식 고인들은 지하, 혹은 반지하에 다양한 형태로 무덤방을 축조하였다. 땅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토광의 형태가 다양하며, 무덤방의 형태도 판석을 이용한 석관형, 냇돌

10 李榮文, 2000, 「韓國 支石墓 年代에 대한 檢討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연대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14.

11 趙鎮先, 2008, 「耽津江流域圈 支石墓의 形式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30.

12 이영문, 2014, 『고인돌, 역사가 되다』, 학연문화사.

이나 껌돌을 이용한 석곽형, 양자를 혼용한 혼축형 등으로 다양하다.

한반도의 지석묘는 강원지역 400여 기, 경상지역 4,400여 기, 제주지역 180여 기, 북한 대동각유역 1,400여 기, 호남지역 22,600여 기 등 총 28,980여 기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에는 2,300여 개소에 약 20,000여 기가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4개 유적, 1,700여 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이러한 발굴조사에 기초하여 지석묘의 문화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구구조와 공반유물은 지석묘문화의 시·공간적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전남의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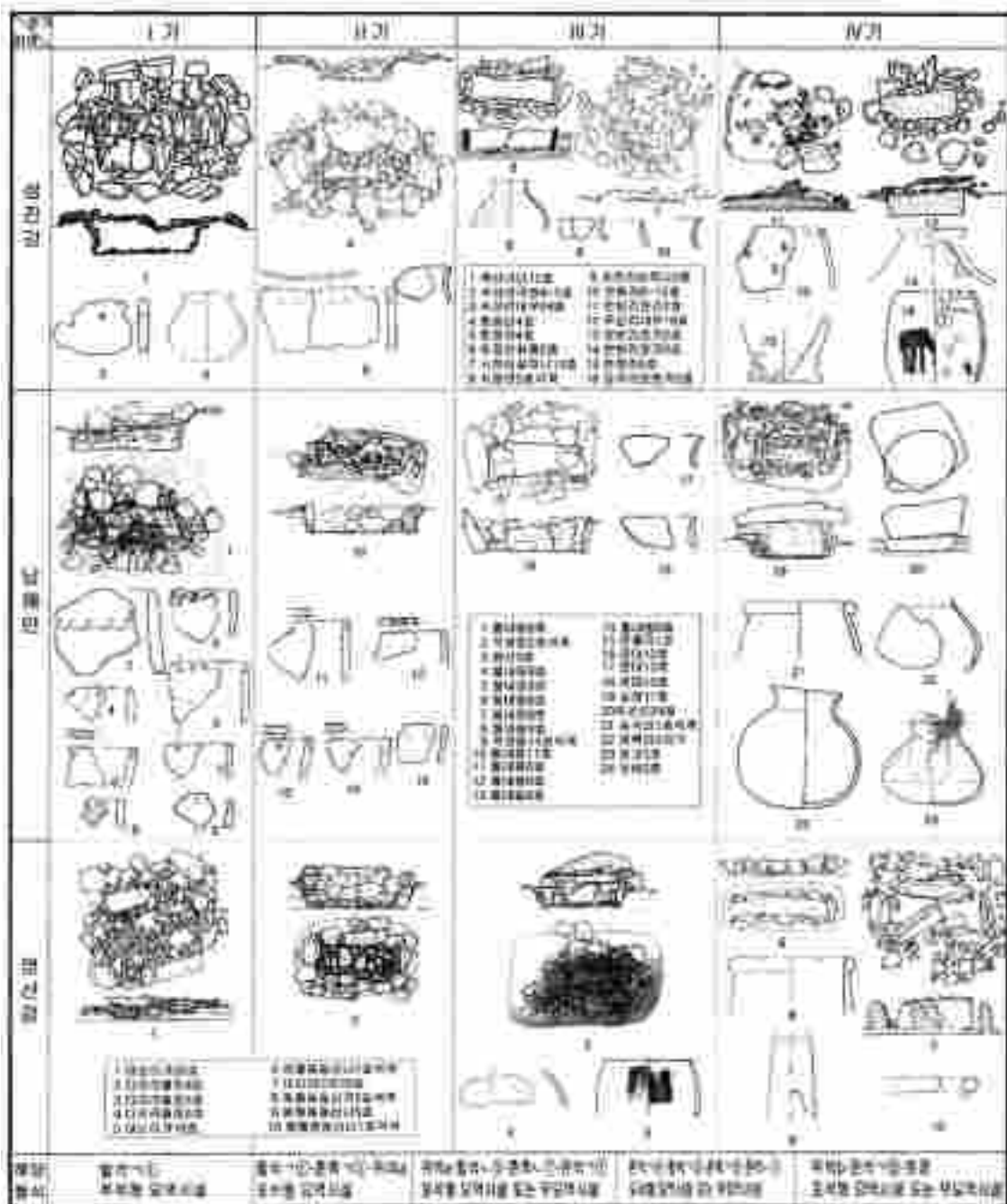
전남지역은 분수계를 기준으로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 남해안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지형적 조건을 근거로 문화적으로 서부는 평야가 발달한 영산강·서해안지역, 동부는 산지가 발달한 섬진강(보성강)유역, 남부는 남해안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남지역 지석묘군은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섬진강유역은 보성강 중류역에 중핵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해안지역은 관산반도, 고흥반도, 여수반도에, 영산강유역은 영산강중류역에 중핵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권 설정은 전남지역 지석묘 문화의 시·공간뿐만 아니라 지석묘의 형식학적 변천과 확산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지역 지석묘는 대부분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정형성을 띠고 분포한다. 전남지역의 지석묘는 크게 4분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I 분기에는 전남지역 지석묘 중 가장 이른 형식인 적석형 묘역시설이 확인된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열토기, 구순각목공열토기 등이 출토된다.

II 분기에는 포석형 묘역시설이 확인되며, 위석식이 출현한다.

III 분기에는 지석묘 매장주체부 축조재료가 할석 중심에서 판석으로 대체되어가며, 매장주체부 장폭비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 관찰된다. 또한 반지하식이 출현하며 매장주체부의 장폭비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 관찰된다.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토기는 전혀



도면 1. 전남지역 지석묘 및 형식변천 양상(황재훈 2006)

보이지 않으며, 외반구연, 내만구연토기 등이 주로 출토된다.

IV분기에는 매장주체부가 반지하 또는 지상식으로 대체되어 가며 섬진강유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매장주체부에 석재를 사용하지 않는 토광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형동검문화기에 출현하는 두형토기, 점토대토기, 흑도 등이 출토된다.

해남군에서는 고인돌이 발굴조사된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개석식과 기반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무덤방은 다양하게 확인되지만 석관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석곽형이나 혼축형이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구조가 단순한 것이 많다.

해남군 고인돌에 대한 종합적인 분포조사는 1986년(1,022기), 2012년(1,151기), 2017년(950기), 2020년(939기)에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파괴되거나 유실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고인돌들이 적지 않다. 2020년 조사에서 확인된 고인돌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4차례의 종합 분포조사 가운데 수량이 가장 적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들을 통해 해남군에서 조사된 고인돌의 최다 군집수와 최다 기수를 산출해보면 118개 군, 1,302기로 추산된다.

3장

해남의 고인돌

1. 발굴조사된 고인돌



1. 발굴조사된 고인돌

해남군에서는 발굴조사된 고인돌은 적지 않지만 하부구조가 제대로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인돌의 연대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해남군 관내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 관련 유적은 10개 유적 30여 기이다. 이 가운데 1/3정도는 덮개돌이 이동되었거나 하부구조가 파괴되어 고인돌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에 발굴조사되었기 때문에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유적들도 많다.

현재까지 해남군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들을 보면, 매장주체부가 대부분 이단토광 석관형, 반지하 석관형, 반지하 석곽형, 또는 지상화된 위석형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고인돌의 하부구조는 구조적으로 파괴되기 쉽다. 해남군에서 하부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인돌들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인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¹³ 해남군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들은 주로 3~5기에 해당한다. 3기의 하한연대는 기원전 3세기경이며, 4기와 5기는 기원전후까지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해

13 趙鎭先, 2008, 「耽津江流域圈 支石墓의 形式과 變遷」, 『湖南考古學報』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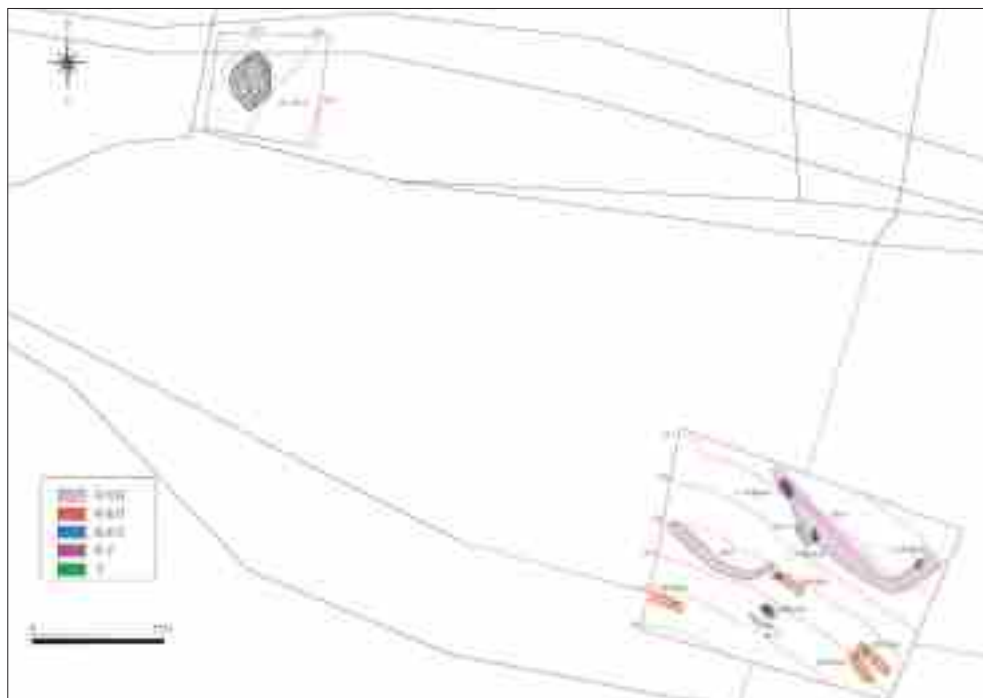
남군에서 고인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로 생각된다. 고헌리 고인돌에서는 주변에서 기원후 1~2세기에 유행하는 우각형파수와 소형대부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를 보면, 해남군에서 고인돌은 기원후 1~2세기에도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 해남읍 안동리유적

유적은 해남 안동-남공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남읍 안동마을에서 남송마을로 넘어가는 산길을 중심으로 남쪽 산사면부 구간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23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¹⁴ 이 중 도로공사구역 내에 포함되는 1기의 고인돌이 발굴조사되었다. 유적 내에서 조사된 고인돌은 덮개돌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에 가깝고, 크기는 541×390×191cm, 무게는 56톤이다. 받침돌은 6개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50cm이상의 크기이다. 묘역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동쪽에 치우쳐 확인되며, 묘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4 2018년 총 23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고 보고되었으나, 2020년 조사결과 총 11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유구분포도(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21)



고인돌 전경(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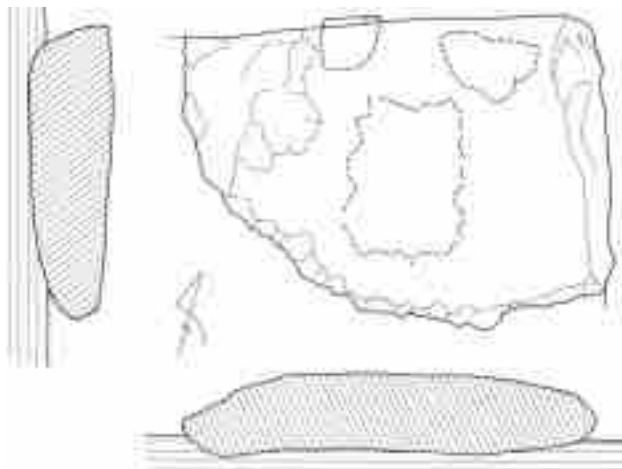
고인돌 상석 제거 후 전경(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21)

발굴조사된 고인돌은 고인돌군의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고인돌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고인돌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돌은 초대형으로 석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초대형 고인돌들은 일반적으로 군집을 이루는 경우 다른 중소형의 고인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입지하며,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며, 석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은 안동리 고인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기념물 등의 성격으로 고인돌을 축조한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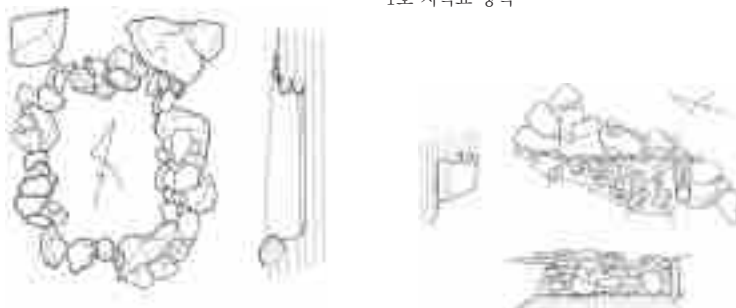
2) 현산면 고현리 고인돌

고현리 고인돌은 1995년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되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원래 이 일대에는 3~4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지만 발굴 당시에는 1기만 남아있었다. 고인돌 1기와 덮개돌이 없이 확인된 하부구조 1기가 발굴조사되었다.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길이 548cm, 너비 388cm, 두께 70cm의 규모이며, 무게가 65톤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무덤방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남-북(N8°E)이다.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140~150cm, 깊이 20~40cm이다. 켜들은 4개가 확인되었지만 무덤방 주변에 더 많은 켜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호 묘실은 1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410c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농수로를 개설하면서 절반 정도 파괴되었다. 무덤방 장벽은 할석으

로 쌓았으며, 단벽은 판석 1개를 세워 축조하였다. 바닥은 작은 돌로 깔았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남-북(N13°W)으로 1호 고인돌과 비슷하다.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80cm, 깊이 60cm 정도로 추정된다. 무덤방 바깥쪽으로는 판석을 깔아 묘역을 구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덤방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지만 주변에서 소형대부토기 1점, 우각형과수 1점, 무문토기 바닥편 4점 등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기원전후부터 기원후 2세기경의 토기들이다. 보고자는 이러한 유물들이 고인돌의 부장유물은 아니더라도 고인돌과 관련된 유물들로 보았다. 해남군 고인돌의 하한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유물들로 생각된다.



1호 지석묘 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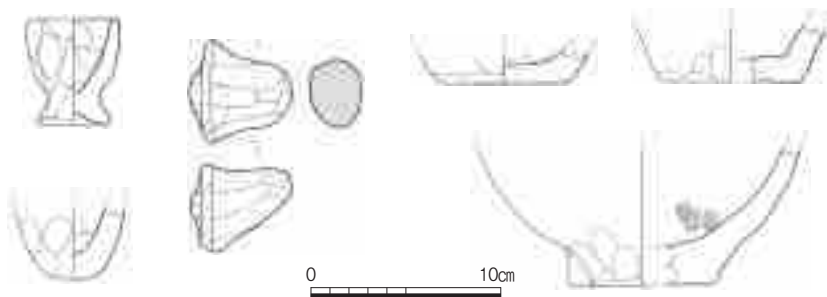
2호 묘실



1호 지석묘 하부구조



해남 고현리 고인돌군의 유구(이영문 · 이정호, 1998)



해남 고현리 고인돌군 2호 묘실 출토유물(이영문 · 이정호, 1998)

3) 현산면 황산리 분토유적

황산리 분토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5기와 함께 고인돌 1기, 석관 · 석곽묘 4기가 발굴조사되었다.¹⁵ 고인돌의 덮개돌은 평면 방형, 단면 장방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200cm, 두께 50cm이다. 하부에서는 판석과 할석들이 노출되었지만 매장주체부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덮개돌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무문토기 바닥편이 수습되었다.

1호 석관묘는 2단 토광을 파고, 2단부에 석관을 안치하였다. 무덤방은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10cm 정도의 판석을 부분적으로 깔았다. 뚜껑돌은 3층으로 덮었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동-서($N71^{\circ}W$)여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28cm, 높이 25~28cm이다. 무덤방 안에서 석검 1점이 출토되었다. 봉부 쪽 신부 일부만 남아있는데, 신부는 매우 얇게 제작되었고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이다. 크기는 남은 길이 8.2cm, 너비 3.0cm, 두께 0.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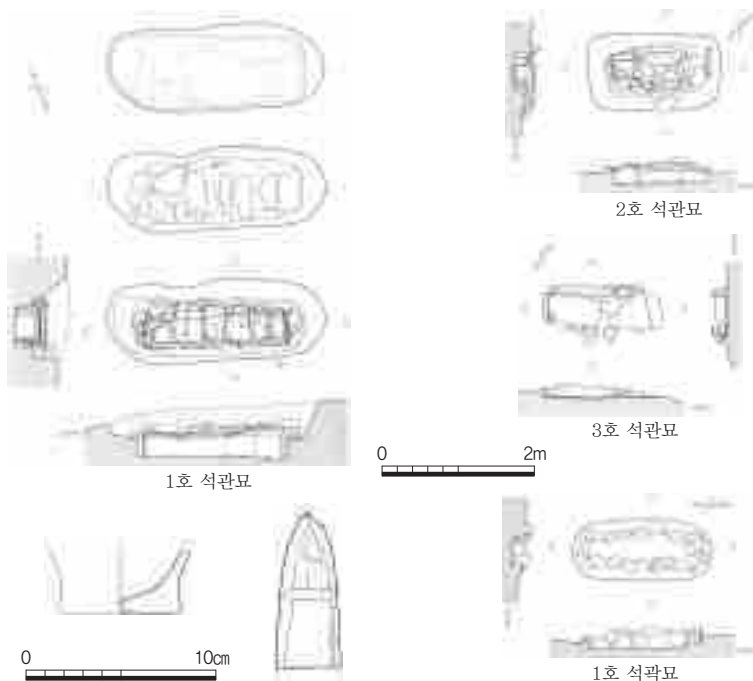
2호 석관묘는 반지하식이다. 무덤방은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판석과 할석을 전면에 깔았다. 뚜껑돌은 판석 3개로 덮었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42^{\circ}E$)여서 등고선과 나란하다. 규모는 길이 120cm, 너비 20cm, 높이 15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호 석관묘는 반지하식이다. 무덤방은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전면에 판석

15 전남문화재연구원, 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을 깔았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50°E)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규모는 길이 150cm, 너비 40cm, 높이 18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호 석곽묘는 반지하식이다. 무덤방은 30cm 정도의 할석을 1~2단으로 쌓아 축조하였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남-북(N2°W)으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규모는 길이 127cm, 너비 20~25cm, 높이 15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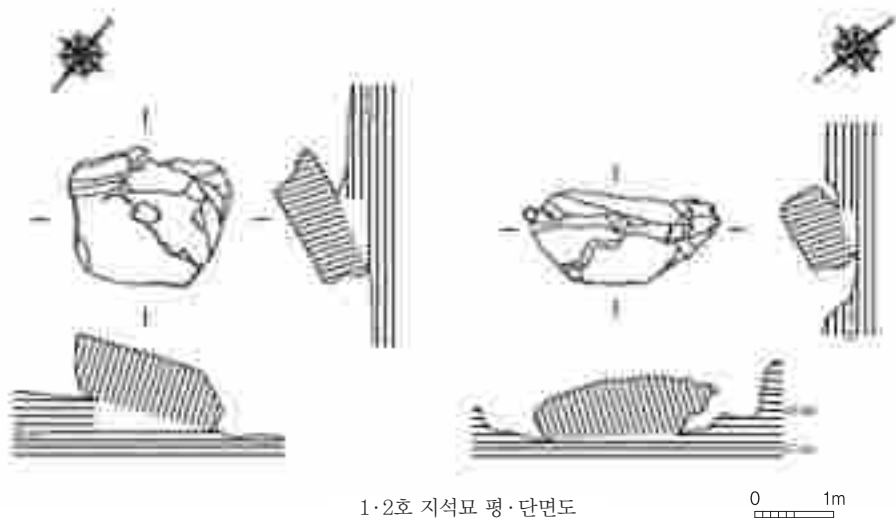


해남 황산리 분토 고인돌군의 유구와 출토유물(전남문화재연구원, 2009)

4) 송지면 군곡리 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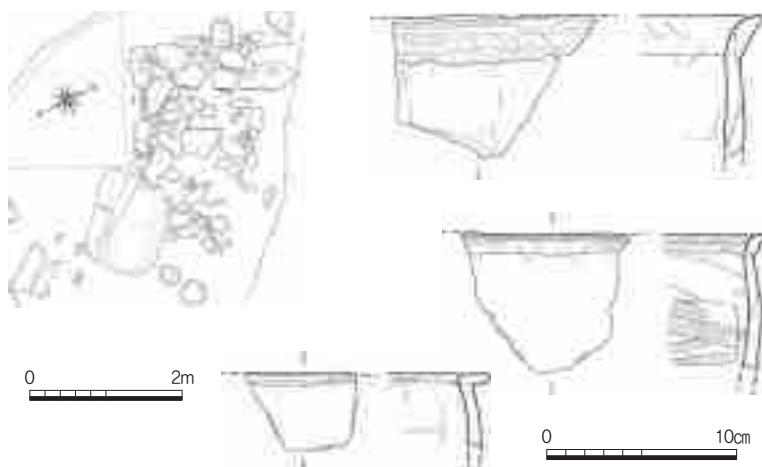
유적은 송지면 군곡리 방치마을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사적 449호로 지정된 군곡리 패총이 위치한 지역이다. 구릉의 정상부에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으며, 총 3기의 고인돌이 발굴조사되었다. 1호 지석묘와 2호 지석묘는 덮개돌만 남아 있었다. 3호 고인돌

은 덮개돌이 없는 상태로 무덤방만 확인되었다. 무덤방은 할석형 판석으로 쌓았고 바닥은 할석형 판석을 깔았다. 장축방향은 북동북-남서남($N23^{\circ}E$)이며, 남아있는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30cm이다. 무덤방 내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고, 적석 내에서는 경질무문토기, 석도편, 숫돌편이 출토되었다.



1·2호 지석묘 평·단면도

해남 군곡리 패총 지석묘(김건수 외, 2019)



해남 군곡리 패총의 3호 고인돌과 무덤방 내 출토유물(김건수 외, 2019)

5) 옥천면 영춘리 고인돌

유적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775-1번지 일원으로 만대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차일봉의 남동쪽 산사면부에 해당한다. 해남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고인돌은 총 1기가 발굴조사되었다. 고인돌은 단독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덮개돌의 규모는 550×290×310cm의 초대형 고인돌이다. 하부구조는 외관상 받침돌 3개가 확인되었으며, 덮개돌의 서쪽 모서리에 덮개돌을 받치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남 영춘리 고인돌 전경(東北亞支石墓研究所, 2019)



해남 영춘리 고인돌 하부구조
(東北亞支石墓研究所, 2019)





덕정리 월암고인돌군 원경(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6) 계곡면 덕정리 월암 고인돌군

덕정리 월암 고인돌군은 1986년 조사 시에는 23기가 확인되었지만 이후에 고인돌이 파괴되면서 수량이 줄어들었다. 2017년 철도건설구간에 포함되어 발굴될 때에는 고인돌 덮개돌 10기와 덮개돌이 없이 확인된 하부구조 11기가 조사되었다. 고인돌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128~444cm, 너비 76~185cm로 다양하며, 하부구조는 6기에서만 확인되었다. 고인돌은 개석식 4기, 기반식 1기, 묘역석만 확인된 것 1기이다. 매장주체부는 석관형 2기, 석곽형 2기, 혼축형 1기이다. 석검, 반월형석도, 유구석부, 합인석부, 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덮개돌이 없이 하부구조만 확인된 11기는 석관형 4기, 석곽형 3기, 혼축형 1기이며, 바닥석만 남아있는 것이 2기이다. 석검, 석촉, 반월형석도, 석부, 유구석부, 합인석부, 관옥, 공열토기 등이 출토되었다.¹⁶

16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보성~임성리 철도건설구간내(4·5·6공구)유적 발굴(시굴)조사 3차 약식 보고서』.



덕정리 월암고인돌군 전경(상석제거 전)



4호 고인돌



4호 고인돌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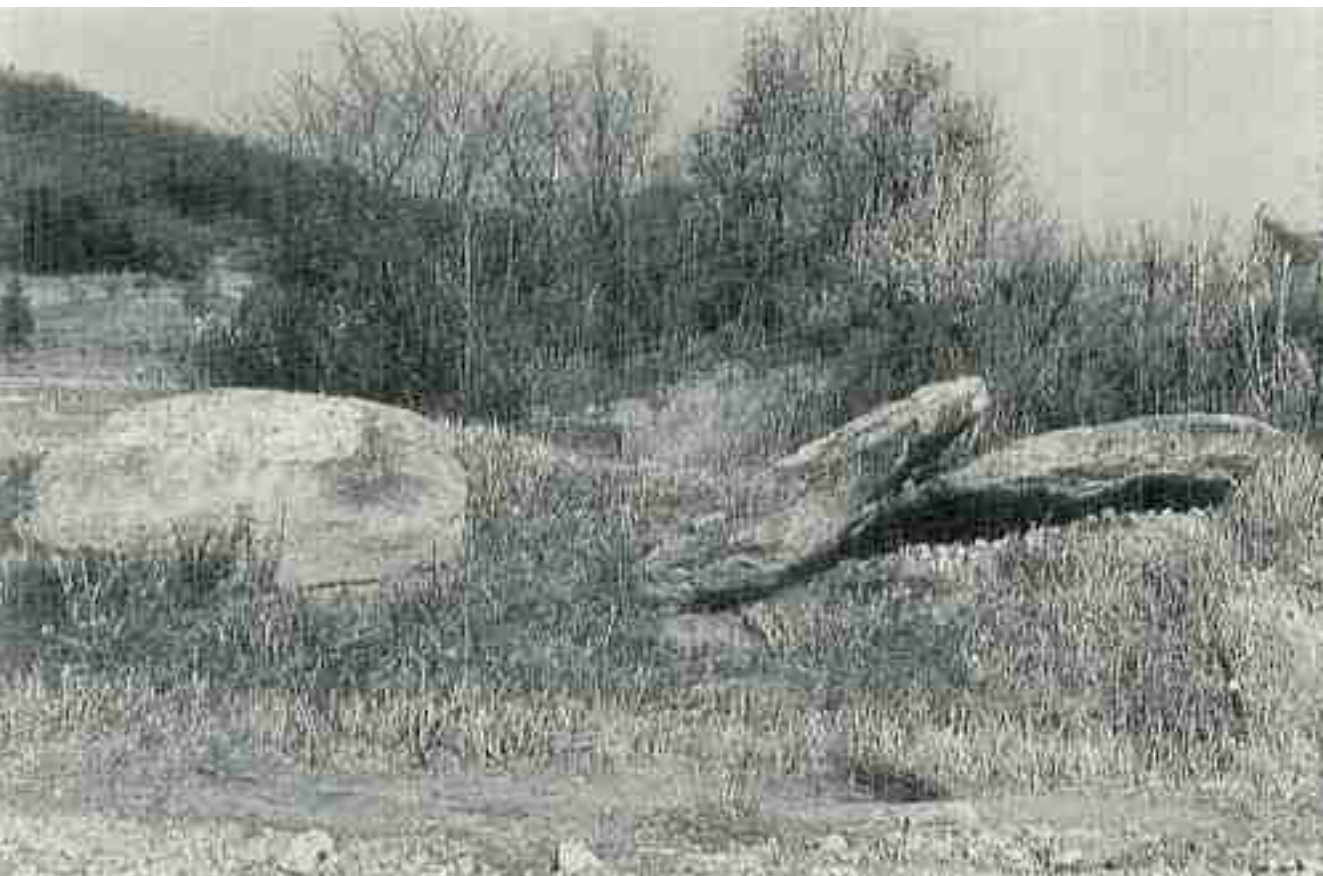


덕정리 월암고인돌군 전경(상석제거 후)

7) 계곡면 선진리 선진 고인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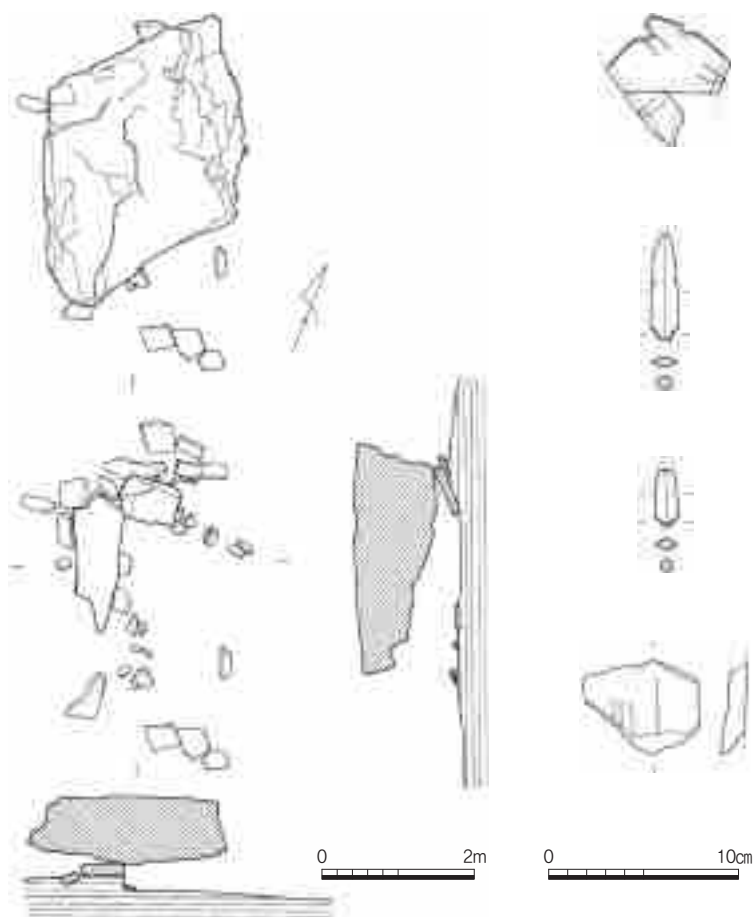
고인돌은 선진마을에서 동쪽으로 300여 m 떨어진 논둑에 4기가 있었으나, 옥천-성전 구간 국도확·포장공사로 인해 1997~1998년에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덮개돌은 발둑으로 이동되어 동-서 또는 남-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부구조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1997년 조사 당시 고인돌 전경(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8) 계곡면 장소리 장소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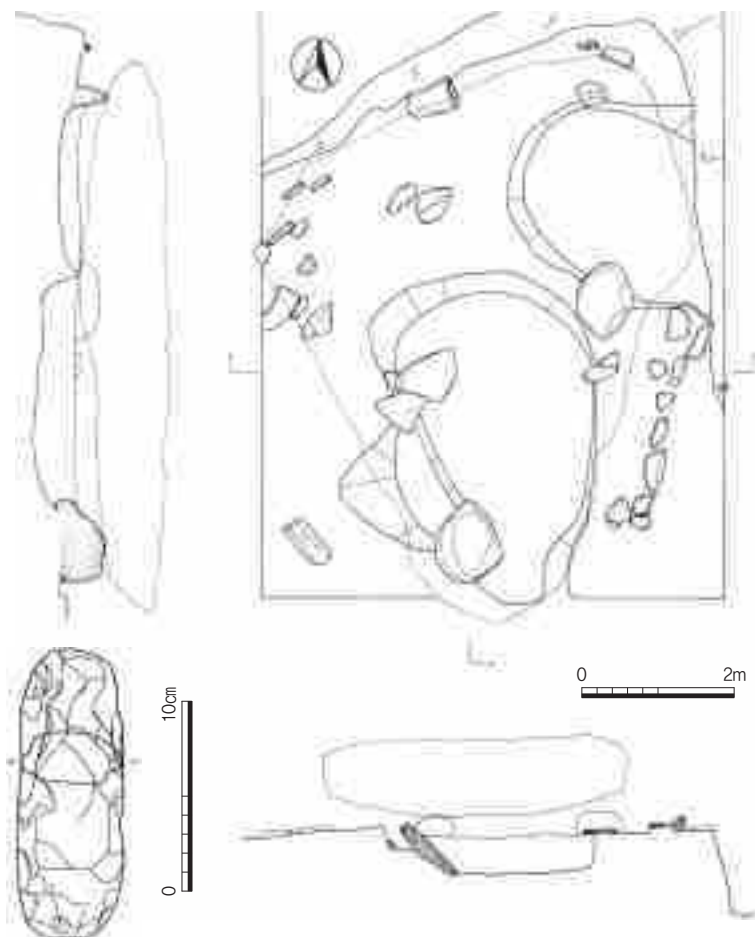
옥천-성전구간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1997~1998년에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장소리 고인돌은 덮개돌의 평면·단면형태가 모두 장방형이며, 남동쪽에서 뿔돌이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386cm, 너비 260cm, 두께 110cm이며 무게는 22톤이다. 하부구조는 교란되었지만 판석으로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서 석축 2점, 석도 1점, 무문토기편 1점이 수습되었다.



해남 장소리 고인돌과 출토유물(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9) 황산면 호동리 고인돌

고인돌은 황산면사무소에서 남동쪽으로 450여 m 떨어진 구릉정상부에 1기가 있었으나, 해남 황산면 우회도로 신설공사로 인해 1992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되었다. 호동리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780cm, 너비 568cm, 두께 113cm이며, 무게는 40톤이어서 대형에 속한다. 하부구조는 파괴되었지만 궤돌 4개와 적석 일부가 남아있었다. 석부 1점이 출토되었다.



해남 호동리 고인돌과 출토유물(최성락 외, 1992)

3장

해남의 고인돌

2. 우리마을의 고인돌

- 
1. 고도리 호천 고인돌
2. 신안리 신안 고인돌군
3. 신안리 생미 고인돌군
4. 연동리 연동 고인돌군
5. 안동리 유물산포지
6. 백야리 백야 고인돌군
7. 용정리 용정 고인돌군
8. 용정리 송용 고인돌군



○ 해남읍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신안리 신안 고인돌군	20	20	11	14	향토문화유산 제28호
2	신안리 생미 고인돌군				7	
3	연동리 연동 고인돌군	2	10	4	4	
4	안동리 고인돌군				12	부분 발굴조사
5	백야리 백야 고인돌군		5	3	3	
6	용정리 용정 고인돌군		4	1	1	
7	용정리 송용 고인돌군	7	16	10	10	
8	고도리 호천 고인돌	1	0	1	0	
	총 8개 군	30	55	30	51	



※ 고도리 호천 고인돌은 현지조사결과 “고도리 마애불”의 훼손된 편으로 확인됨.

○ 발굴유적

	유적명	소재지	조사현황	비고
4	안동리 고인돌군	해남읍 안동리 산34-1	상석 1기	이전 · 복원

(이전복원 : 해남읍 안동리 528-8)

01. 신안리 신안 고인돌군

 위치	해남읍 신안리 110
 지정현황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28호

고인돌은 신안리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300여 m 떨어진 신안교회 앞 공터에 14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덕음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완만한 산사면에 해당된다. 덮개돌은 북서-남동 방향을 따라 2열로 분포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무덤방이 묻혀있는 것을 제외하고 괴임돌이 1~5개 확인되고 있으며, 2·3·8·12호의 경우는 채석흔이 확인된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30년 전 북쪽 밭에서 돌칼(石劍)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현재 신안리 고인돌군이라는 명칭으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안 고인돌군 전경(동-서)

● 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310×280×10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에서 서쪽으로 약 5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10×175×70cm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덮개돌에는 채석흔적이 남아있다.



● 3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중앙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90×220×8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3개가 확인된다.



● 4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250×190×9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5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 소로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60×200×75cm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5개가 확인된다.



● 7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35×160×6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이 확인되지 않는다.



● 9호 고인돌

3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130×100×90cm이다. 하부는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 13호 고인돌

밭의 경계부분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30×220×8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3개가 확인된다.



02. 신안리 생미 고인돌군

 위치

해남읍 신안리 388

고인돌은 해남읍의 남동쪽에 위치한 생미저수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정식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 고인돌 5~7기가 노출된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수위가 높아 실제 고인돌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생미 고인돌군 전경(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제공)

03. 연동리 연동 고인돌군

 위치 해남읍 연동리 133

고인들은 고산유물전시관에서 남동쪽으로 190여 m 떨어진 윤○○씨 댁 주변에 4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덕음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 말단부에 해당된다. 원래 10기가 있으나 경지정리로 대부분 파괴되고, 2기만 원형을 유지한다고 보고되었다. 기존 조사에서 1호 고인들은 민가에서 북동쪽으로 50여 m 떨어진 폐가에 매몰되어 있으며 2, 3호 고인들은 1호 남쪽에 간격을 두고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7년 조사 당시 폐가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며, 1~3호 고인들은 수풀에 가려 확인할 수 없었다. 4호 고인들은 윤○○씨 댁 마당에서 정원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동리 고인돌군 전경(남→북)

● 4호 고인돌

고인들은 윤○○씨 댁 마당에서 정원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규모는 470×270×270cm로,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4호

04. 안동리 고인돌군

 위치 해남읍 안동리 산34-1

고인돌은 안동마을에서 남송마을로 넘어가는 산길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해남 안동-남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되면서 2018년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조사 당시 1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는데, 무덤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덮개돌 무게가 50톤급 이상인 초대형 고인돌이다. 이러한 종류의 고인돌은 무덤이 아닌 제의용 거석물로 이해하고 있다. 대개 무리(群集)를 이루는 고인돌군에서 일정 정도 떨어져 홀로 자리하는 특징이 있다. 안동리 고인돌 역시 동쪽으로 동-서 방향으로 열을 이룬 고인돌군이 분포하고 있다. 2018년 총 23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2020년 조사 결과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 바깥으로 총 14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 발굴조사 고인돌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되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541×390×191cm로 초대형이다. 고인돌군의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고인돌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고인돌이 확인되지 않는다. 석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고인돌



고인돌 하부구조



이전 · 복원 전경

● 2호 고인돌

고인돌은 유적의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규모는 200×115×90cm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이 1개 확인되었다.



2호

● 7호 고인돌

고인돌은 유적의 중앙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규모는 300×190×60cm로,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7호

● 9호 고인돌

고인돌은 유적의 중앙에 위치하며, 도로의 법면과 인접한다. 덮개돌의 규모는 210×160×50cm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 12호 고인돌

고인돌은 유적의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규모는 260×230×80cm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고인돌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고 있다.



● 13호 고인돌

고인돌은 유적의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규모는 140×120×60cm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 14호 고인돌

고인돌은 유적의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규모는 170×140×50cm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05. 백아리 백야 고인돌군

 위치 해남읍 백아리 553-2, 596-1

고인들은 해남읍과 삼산면의 경계에 있는 백야마을에서 서쪽으로 80여 m 떨어진 당산나무 주변에 3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야산에서 북동쪽으로 뺀 능선의 정상부로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경관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민가 옆 소로 변에 있는데, 1호는 무덤방이 묻혀 있고, 2호는 덮개돌이 기울어져 있다. 3호에서는 기울어진 받침돌이 1개 확인된다. 가장 큰 덮개돌은 3호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백야 고인돌군 전경(북→남)



06. 용정리 용정 고인돌군



위치

해남읍 용정리 942-3

고인돌은 용정마을에서 북쪽으로 340여 m 떨어진 지점의 민묘와 밭 사이에 1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남각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완만한 산사면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4기가 확인된다고 보고되었으나, 2017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1기만 확인되었다. 고인돌은 주변 도로 개설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덮개돌은 민묘와 밭 사이에 있는데, 무덤방이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과악이 어렵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용정 고인돌군 전경(직상)



정면



측면

07. 용정리 송용 고인돌군

 위치 해남읍 용정리 701, 733

고인들은 용전마을 입구에 있는 송용리회관에서 북쪽으로 230여 m 떨어진 밭에 10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야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의 사면부에 해당된다. 덮개들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10기 중 5기는 원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5기는 이동되어 한 곳에 모아져 있다. 1~5호는 논과 밭둑에 묻혀 있어 받침돌과 무덤방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6~10호는 파손·이동되어 한 곳에 모아져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나 관련된 무덤방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송용 고인돌군 전경(서→동)

● 1호 고인돌

유적의 남동쪽에 자리한다. 덮개돌은 220×220cm 크기로, 하부가 묻혀있어 두께는 알 수 없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 3호 고인돌

1호 고인돌에서 약 10m 정도 떨어져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20×150cm이다. 덮개돌의 대부분이 묻혀있어 하부 구조의 파악이 어렵다



● 4호 고인돌

유적의 북서쪽에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60×190×6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30~50cm 크기의 받침돌 6개가 확인된다.



● 6호~10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북쪽에서 확인된다. 경지 정리 과정에서 모두 이동되어 한쪽에 모아져 있다.



삼산면

- 
- 11 numbered locations marked on the map:
- 1.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 ①
 - 2.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 ②
 - 3. 신흥리 상금 고인돌
 - 4. 송정리 저산 고인돌군
 - 5. 봉학리 봉학 고인돌군
 - 6. 봉학리 신금 고인돌군
 - 7.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 ①
 - 8.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 ②
 - 9. 원진리 원진 고인돌군
 - 10. 상가리 계동 고인돌군
 - 11. 상가리 중리 고인돌군



○ 삼산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1	4	2	2	2	
2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2		2	1	2	
3	신흥리 상금 고인돌		1	1	1	
4	송정리 저산 고인돌군	2	2	2	2	
5	봉학리 봉학 고인돌군		4	3	3	
6	봉학리 신금 고인돌군		3	3	3	
7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1		10	8	8	
8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2		10	7	7	
9	원진리 원진 고인돌군	15	15	10	10	
10	상가리 계동 고인돌군	7	7	7	7	
11	상가리 중리 고인돌군	15	5	5	5	
	총 11개군	43	61	49	50	

01.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1

위치 삼산면 신흥리 301

고인돌은 해남동부교회에서 남서쪽으로 400여 m 떨어진 감당마을 입구 표지석 주변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옥녀봉에서 남동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된다. 원래는 4기가 있었으나, 2기는 도로 개설로 인해 유실되고 2기만 남아있다. 남아있는 고인돌 2기는 덮개돌이 포개진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1호는 아래에 놓인 2호는 매몰되어 상면 일부만 드러나 있다.



감당 고인돌군1 전경(좌: 1호, 우: 2호)

02.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2

 위치 삼산면 신흥리 산73-8

고인돌은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1에서 북서쪽으로 480여 m 떨어진 밭둑에 2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옥녀봉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과 능선 사이의 계곡부 산사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1호는 무덤방이 묻혀 있으며, 2호는 덮개돌 아래 큰 석재가 2개 있어 마치 받침돌처럼 보인다. 마을주민의 말에 의하면 산사면부에 있는 것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감당 고인돌군2 전경(좌: 2호, 우: 1호)

03. 신흥리 상금 고인돌

위치 삼산면 신흥리 816-4

고인돌은 상금마을 입구에서 북쪽으로 난 소로의 끝부분에 1기가 위치한다. 해양수산 과학원 해남지소에서 북서쪽으로 150여 m 떨어진 곳이다. 이곳은 옥녀봉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으로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형이다. 덮개돌은 대형으로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거의 나란하다. 남쪽 하부에서 50×30cm 크기의 받침돌 2개가 확인되나, 북쪽은 소로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상금 고인돌 전경(동→서)



고인돌 전경(서쪽에서)



받침돌(支石)

04. 송정리 저산 고인돌군

 위치 삼산면 송정리 434-1

고인돌은 저산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서쪽으로 80여 m 떨어진 민묘 주변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낮은 야산에서 흘러내린 능선의 정상부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덮개돌 2개 모두 민묘와 밭 사이의 경사면에 기울어져 있어,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조사에서 받침돌이 1개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확인할 수 없다.



저산 고인돌군 전경(북동쪽에서)



05. 봉학리 봉학 고인돌군


 위치 삼산면 봉학리 산6-1

고인들은 봉학마을 동쪽에서 진입하는 소로의 북쪽 산사면에 3기가 위치한다. 봉학리 회관에서 동쪽으로 250여 m, 땅끝대로에서 서쪽으로 100여 m 떨어진 지점이다. 이곳은 해발 72m의 낮은 야산에서 내려오는 남쪽 구릉 말단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다. 2002년 조사에서는 2기의 고인돌에서 받침돌이 드러났다고 보고하였으나 2017년과 이번 조사에서는 소로변 경사면에 기울어져 있어 확인되지 않았다. 덮개돌이 대부분 땅속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봉학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고인돌 훼손 전경(左下)

06. 봉학리 신금 고인돌군

 위치 삼산면 봉학리 산33-10, 301


고인돌은 신금마을의 남서쪽 진입로 주변 밭둑에 3기가 위치한다. 신금마을회관에서 남서쪽으로 220여 m 떨어진 지점에 해당한다. 이곳은 마을 북쪽에 있는 해발 239.18m인 산봉우리의 동쪽 사면 말단부이다. 1호는 밭둑에 기울어져 있으며, 2, 3호는 독 경사면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경작과 농로 개설로 인해 훼손·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신금 고인돌군 전경(북동쪽에서)



07.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1

 위치 삼산면 원진리 618-5, 618-6

고인들은 농암마을 복지회관에서 남동쪽으로 120여 m 떨어진 민가 주변에 자연석과 함께 8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태양산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나지막한 산사면 말단부에 해당되는 지점이다. 고인들은 북서-남동방향으로 2열을 이루고 있는데, 70여 m 범위에 분포한다. 덮개돌이 대부분 묻혀 있거나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렵다. 1호는 쓰레기 더미에 있으며, 2호는 축사의 주춧돌로 사용되고 있다. 폐가 주변의 대나무밭 사이에 위치한 3~5호는 무덤방이 묻혀 있고, 7호는 덮개돌이 깨져 있다. 덮개돌 주변과 산사면에는 고인돌 덮개돌로 보이는 석재가 산재해 있다.



농암 고인돌군1 전경(북쪽에서)

● 1호 고인돌

소로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340×190×10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 2호 고인돌

축사의 주춧돌로 사용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30×190×125cm이다.



● 3호 고인돌

폐가주변 대나무밭 안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15×80×10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 8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560×240×17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08.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2

 위치 삼산면 원진리 688-3, 688-4, 688-5

고인돌은 농암마을 복지회관에서 북쪽으로 150여 m 떨어진 가옥(임○○씨) 주변에 7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평지에 해당되며, 주변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1~4호는 민가 북동쪽에 있는 대나무 숲에, 5~7호는 민가 뒤쪽 담장 주변에 분포한다. 대나무 숲에 있는 4기는 덮개돌이 묻혀 있거나 기울어져 있어 경작으로 인해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5, 6호 고인돌에서는 받침돌이 확인되었다. 5호 고인돌의 경우 나머지 고인돌과 다른 괴석형의 덮개돌로, 중심 고인돌로 추정된다. 7호는 덮개돌 일부가 독에 묻혀 있으나 무덤방으로 보이는 20~30cm×14~22cm 크기의 석재가 2개 확인된다.



농암 고인돌군2 전경(남서쪽에서)

● 3호 고인돌

민가 북동쪽의 대나무 숲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160×125×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제형으로 추정된다. 하부는 묻혀있는 상태이다.



● 4호 고인돌

유적의 남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10×90×60cm이다.



● 5호 고인돌

민가의 바로 뒤쪽에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10×210×23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다른 고인돌과 달리 괴석형 상석으로 중심 고인돌로 추정된다.



● 6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210×150×8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1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고인들은 원진마을의 중앙에 자리한 큰 소나무를 중심으로 10기가 분포하고 있다. 고인들은 민가(김○○씨, 故최○○씨)들과 어우러져 있다. 최초 15기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일부 유실된 상태이다. 1~5호는 故최○○씨 댁 마당과 담장에 있는데, 4·5호 고인들에서 받침돌이 확인된다. 6~10호는 김○○씨 댁에 위치한다. 6·7호는 이동되어 모아져 있고, 8호는 덮개돌이 시멘트에 뒤덮여 있다. 덮개돌은 대부분 묻혀 있거나 담장에 덮여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다.



원진 고인돌군 전경(남동쪽에서)

● 1호 고인돌

민가 마당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90×280×175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덮개돌 아래에는 잡석이 있어 하부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인접하여 자리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190×90×80cm이다.



● 3호 고인돌

민가 내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계측하기 힘든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추정된다.



● 5호 고인돌

민가의 마당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60×320×24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1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고인돌군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 7호 고인돌

민가 안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10×190×9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이동되어 기울어진 상태이다.



● 8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380×260×4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상면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으며, 현재 장독대로 이용되고 있다.



10. 상가리 계동 고인돌군

위치 삼산면 신흥리 252-5

고인돌은 연동저수지 옆 해남 동부교회에서 남동쪽으로 150여 m 떨어진 순흥안씨묘 주변에 7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남대산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나지막한 능선의 정상 부에 해당되는 지점이다. 고인돌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長方形)과 제형(梯形)이 주를 이루며, 동-서방향으로 2열을 이룬다. 1·2·6호에서 받침돌이 1개씩 확인되는데, 1호 받침돌은 기둥모양(柱形)이다. 나머지는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계동 고인돌군 전경(북쪽에서)



1호



3호

11. 상가리 중리 고인돌군

위치 삼산면 상가리 415

고인들은 나뭇마을 동쪽에 있는 나지막한 야산의 남동쪽 말단부 평지에 5기가 위치한다. 1986년 조사 보고서에서는 15기가 열을 이룬다고 기록하였으나 2002년 조사에서는 5기만 남아 있다고 보고되었다. 덮개돌은 논둑에 동-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는데, 무덤방은 모두 묻혀 있다. 3호는 덮개돌이 깨어져 있고, 주변으로는 잡석이 확인된다. 1986년 조사에서는 ‘평활리 나뭇 고인돌군’으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 조사에서 행정구역명에 따라 ‘상가리 중리 고인돌군’으로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중리 고인돌군 전경(북쪽에서)



화산면



○ 화산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해창리 해창 고인돌군	16	16	14	8	
2	연정리 고인돌군	47	48	48	48	전라남도 기념물 제16호
3	방축리 석전 고인돌군	2	2	2	2	
4	방축리 방축 고인돌군	10	3	3	3	
5	방축리 고인돌군	53	53	50	55	전라남도 기념물 제15호
6	부길리 은산 고인돌군1	7	7	5	5	
7	부길리 은산 고인돌군2	6	6	5	5	
	총 7개군	141	135	127	126	

01. 해창리 해창 고인돌군

 위치 화산면 해창리 407

고인돌은 화산면소재지에서 ‘연정리 고인돌군’을 지나 북동쪽 도로를 따라 1.2km 떨어진 장흥임씨 묘에서부터 동쪽으로 200여 m 범위에 9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 말단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1986·1996·2002년에는 16기로 보고되었으며, 2017년 조사에서 14기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번조사에서는 지형이 훼손되어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은 대체로 둥고선과 나란하게 동-서 방향 1열로 분포하고 있다. 1·2·4·8호에서 받침돌이 1~4개가 확인되고, 나머지는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해창리 고인돌군 전경(북서쪽에서)

● 1호 고인돌

유적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610×380×2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3개가 확인된다.



● 4호 고인돌

1호 고인돌에서 서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자리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400×290×150cm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4개가 확인된다.



● 6호 고인돌

유적의 서쪽에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80×150×6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 8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440×360×2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2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02. 연정리 고인돌군

 위치 화산면 연정리 73-1
 지정사항 전라남도 기념물 제16호

고인돌은 화산면사무소 북쪽에 있는 연화제를 지나 1.6km 떨어진 석정마을 입구에 48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야산에서 북서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의 말단부 평지로 유적의 앞쪽에 연화저수지가 위치한다. 고인돌 중 일부 깨지거나 기울어진 것도 있으나 '전라남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어 있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 유적은 1986년 석정 고인돌군으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 행정구역명에 따라 '연정리 고인돌군'으로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덮개돌은 북동-남서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며 모여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가장 많고 장방형, 제형, 삼각형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48기 중 23기에서 받침돌이 확인되고 있는데, 5~6개가 확인되기도 한다. 2호는 성혈(聖血)이 2개 있고, 7·24호에서는 무덤방으로 보이는 석재가 확인된다. 가장 큰 고인돌은 35호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는 540×300×130cm 이다.



연정리 고인돌군 전경(북쪽에서)



연정리 고인돌군 원경(북쪽에서)



연정리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연정리 고인돌군 원경(북쪽에서)

● 4호 고인돌

4호 고인돌은 유적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석정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주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10 \times 170 \times 8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5개가 확인된다. 석재는 화강암이다.



4호

● 6호 고인돌

6호 고인돌은 4호 고인돌에서 남동쪽으로 약 8m 떨어져 있다. 화강암제의 바둑판식 고인돌로 덮개돌의 크기는 $320 \times 230 \times 90\text{cm}$ 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6호

● 11호 고인돌

11호 고인돌은 유적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다. 납작한 화강암을 덮개돌로 사용하였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크기는 360×320×60cm이다. 덮개돌은 2조각으로 파괴되었다. 덮개돌 아래에서는 4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 19호 고인돌

19호 고인돌은 유적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다. 화강암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335×220×6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고인돌 우측으로 참나무가 자라고 있다.



● 25호 고인돌

25호 고인돌은 화강암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400×320×12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에는 채석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된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5개가 확인되는데, 기둥모양(柱形)이다.



● 29호 고인돌

29호 고인돌은 유적의 동쪽에 자리한다. 화강암제 개석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부정형으로 크기는 230×180×50cm이다.



● 32호 고인돌

32호 고인돌은 화강암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230 \times 150 \times 70\text{cm}$ 로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덮개돌의 가장자리에는 채석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된다. 덮개돌 아래에서는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33호 고인돌

33호 고인돌은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방형의 화강암을 덮개돌로 사용하였다. 덮개돌의 크기는 $440 \times 320 \times 130\text{cm}$ 이다. 덮개돌 아래로는 $20 \sim 45\text{cm}$ 크기의 받침돌 4개가 확인된다.



● 35호 고인돌

35호 고인돌은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유적 내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덮개돌은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크기는 $540 \times 300 \times 13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이 3개 확인된다.




● 45호 고인돌

화강암제의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360 \times 270 \times 9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크기 30cm 내외의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03. 방축리 석전 고인돌군

 위치 화산면 방축리 560-2, 560-5

고인돌은 석전마을에서 부길리로 넘어가는 고개 초입부 도로 동쪽 밭에 1기, 여기서 북쪽으로 130여 m 떨어진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내에 1기 등 총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선은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능선 말단부의 평지에 해당되며,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2호 고인돌에서는 받침돌이 1개 확인되었다. 덮개돌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석전 고인돌군 전경(서쪽에서)



04. 방축리 방축 고인돌군

 위치 화산면 방축리 740

고인돌은 방축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50여 m 떨어진 은산마을로 가는 소로 동쪽에 민묘와 함께 3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선은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나지막한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인돌의 수는 1986에 10기로, 2002년에는 3기로 보고되었다. 주변의 경작과 소로 개설 등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모두 타원형으로, 1·3호 고인돌은 받 돌에 하부가 묻혀 있으며, 2호 고인돌은 경사면을 따라 기울어져 있다. 모두 경작으로 인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방축 고인돌군 전경(서쪽에서)



2호



3호

05. 방축리 고인돌군

위치 화산면 방축리 740
지정사항 전라남도 기념물 제15호

고인돌은 화산면소재지에서 남서쪽 부길리 방향 도로변에 위치한다. 은산마을에 못미쳐 나오는 부길저수지 서쪽 밭에 55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선은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말단부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해당된다. 유적은 1986년에 ‘송산리 은산고인돌 C군’으로 보고되었으며, 2002년 조사에서 방축리 고인돌군으로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덮개돌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80여 m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50호 고인돌은 농로 건너편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 원형 등의 덮개돌도 일부 확인된다. 50기 중 17기에서 받침돌이 확인되고 있는데, 33호 고인돌과 49호 고인돌은 각각 9, 7개가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는 하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 의 경우 경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고인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방축리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방축리 고인돌군 원경(남동쪽에서)



방축리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

● 2호 고인돌

유적의 남서쪽에 자리한다. 덮개돌은 215×160×5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 3호 고인돌

2호 고인돌에서 약 5m 정도 떨어져서 자리한다.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40×210×60cm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11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400×220×85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가장자리에 채석흔이 확인된다.



● 14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80×120×30cm이며,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 18호 고인돌

덧개돌(上石)은 300×260×6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삼각형으로 추정된다. 덧개돌 아래에는 받침돌이 확인되지 않는다.



● 20호 고인돌

유적의 중앙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덧개돌의 크기는 320×250×90cm이다. 덧개돌 아래로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26호 고인돌

덧개돌의 크기는 610×480×10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덧개돌 아래에는 받침돌이 확인되지 않는다.



● 33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에 위치한다. 덧개돌의 크기는 700×600×12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9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 44호 고인돌

유적의 북동쪽에 자리한다. 덮개돌은 $240 \times 180 \times 60\text{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추정된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 45호 고인돌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00 \times 240 \times 105\text{cm}$ 이다.



● 46호 고인돌

45호 고인돌에서 북동쪽으로 약 5m 떨어져서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60 \times 130 \times 8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 48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490 \times 330 \times 11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1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06. 부길리 은산 고인돌군1

 위치 화산면 부길리 5-1, 16-1, 10-1

고인돌은 선은산(仙隱山)의 남쪽 구릉부(해발 약 80m)로 은산마을에서 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위치한다. 덮개돌이 깨져 파괴된 것도 보이며 일부는 밭둑에 묻혀있다. 유적 내 고인돌의 수는 2002년 조사에서는 7기가 확인되었으나 2017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5기만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은 남동-북서방향으로 2열을 이루면서 모여있다.



은산 고인돌군1 전경(남동쪽에서)




1호



3호

07. 부길리 은산 고인돌군2

 위치 화산면 부길리 176-1, 177-2

고인들은 은산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의 은산리회관 맞은편 밭 가운데에 5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선은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유적 내 고인들의 수는 1986년에는 6기로 보고되었으나 2017년 이후 5기만 확인되는 상황이다. 덮개돌은 대체로 타원형이 주를 이루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1호 고인들은 덮개돌을 받친 것으로 보이는 큰 석재들이 확인되나,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정확한 용도는 확인할 수 없다. 2~5호 고인들은 밭둑에 1열로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덮개돌이 깨지거나 묻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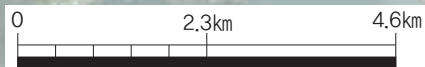


은산 고인돌군2 전경(남쪽에서)



현산면

- 2. 구사리 오시골 고인돌군 ②
- 1. 구사리 오시골 고인돌군 ①
- 4. 구사리 하구시 고인돌군 ②
- 3. 구사리 하구시 고인돌군 ①
- 5. 고현리 고인돌
- 8.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 ③
- 7.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 ②
- 6.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 ①
- 13. 음호리 음호 고인돌군 ②
- 9. 일평리 일평 고인돌군
- 10. 음호리 고당 고인돌
- 12. 음호리 음호 고인돌군 ①
- 14. 백포리 백포 고인돌군
- 15. 초호리 초호 고인돌군
- 11. 음호리 분토 고인돌
- 16. 황산리 분토유적
- 17. 월송리 향교 고인돌군
- 18. 월송리 증산 고인돌군
- 19. 월송리 월송 고인돌군



○ 현산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1		2	2	2	
2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2		9	2	0	채석장
3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1	4	1	1	0	훼손
4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2	6	6	6	8	
5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1	8	8	8	8	
6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2	12	12	8	8	
7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3	25	25	26	26	
8	일평리 일평 고인돌군		3	2	2	
9	읍호리 고담 고인돌		1	1	1	
10	읍호리 · 황산리 고인돌군	200	200	200	200	채석장
11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1	1	3	2	2	
12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2	3	50	13	13	
13	백포리 백포 고인돌군	6	6	0	0	훼손
14	초호리 초호 고인돌군	21	8	22	22	
15	월송리 향교 고인돌군		6	6	6	
16	월송리 증산 고인돌군	2	2	2	2	
17	월송리 월송 고인돌군	10	8	6	6	
18	고현리 고인돌군		1	1	1	발굴
19	황산리 분토유적				1	발굴
	총 19개 군	298	351	308	308	

○ 발굴유적

	유적명	소재지	조사현황	비고
18	고현리 고인돌	현산면 고현리 590-5 (이전복원 : 현산면 고현리 586-4)	묘개돌(上石) 1기 무덤방(墓室) 1기	이전 · 복원
19	황산리 분토유적	현산면 분토리 837 (이전복원 : 황산면 우항리 208, 우항리 공룡박물관)	묘개돌(上石) 1기 무덤방(墓室) 4기	이전 · 복원

01.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1

 위치 현산면 구시리 930-1, 1001

고인돌군은 국도 13번에서 오시골로 들어가는 소로변에 자리하는 仁濟永慕閣 주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건물 양 옆에 각 1기씩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소로 건너편 농경지에 더 많은 수의 고인돌이 분포하였는데, 경지 정리 과정에서 모두 땅에 매몰되었다고 한다. 1호 고인돌은 510×330×10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1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1 전경(동쪽에서)



1호



2호

02.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2

위치 현산면 구시리 산90

해남-완도간 도로(국도 13번)에서 오시골로 들어가는 소로가 있으며 고인돌은 병풍산(해발 313m) 지맥의 말단 사면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감나무가 재배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축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과수원 내에 고인돌로 판단되는 덮개돌이 노출되어 있는데 하부구조가 대부분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조사에서는 기존의 축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나무 밑에 2기가 확인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2002·2017년 조사에 따르면 고인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불명확하다. 다만 주변에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 고인돌을 채석하기 위한 채석장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2 채석관련 석재 전경

03.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1

위치 현산면 구시리 1207

고인돌은 구시교차로에서 남쪽 완도 방향으로 740여 m 떨어진 곳에 땅끝식품 북쪽에 있는 수로변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비조산과 마주보고 있는 야산의 산사면 말단 부에 해당된다. 2002년에 총 4기 중 3기가 유실되어 1기로 보고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문화재청 GIS통합인트라넷 상에는 고현리 하구시 고인돌군①으로 명명되었으나 행정구역 상 구시리 하구시 마을에 해당된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수로를 축조하는 데 사용되어 매몰되고, 기울어져 있다. 기존 조사에서는 1기가 도굴로 인해 220×110cm의 장방형의 무덤방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2 채석관련 석재 전경

04.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2

위치 현산면 구시리 861

해남-완도간 도로(국도 13번)에서 화산면과 현산면의 경계지점에 장고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1km 정도 더 가면 하구시마을이 위치한다. 고인돌은 하구시마을 김○○씨의 묘, 주변 민가 등에서 총 8기가 확인된다. 고인돌은 규모가 큰 1~3호가 각각 덮개돌의 방향과 직각인 북서-남동 방향으로 1열을 이루고 있으며, 4·5호 고인돌은 덮개돌의 방향과 평행하게 2열로 배치되어 있다. 한편 6호 고인돌은 군집지역에서 200m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2 전경(위에서)

● 1호 고인돌

화강암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형태는 제형이며, 크기는 210×150×100cm 크기이다. 덮개돌 아래에서는 받침돌이 3개 확인되었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인접하여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270×220×80cm이다. 덮개돌 아래에서는 판석이 확인되는데, 고인돌의 무덤방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 4호 고인돌

화강암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430×320×12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는 기둥모양의 받침돌이 2개 확인된다.



● 6호 고인돌

6호 고인돌은 군집지역에서 200m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420×260×15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6호 고인돌에서는 받침돌이 확인되지 않았다.



05.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1

위치 현산면 고현리 760-1

고인들은 고현리 고현마을에서 서쪽 학의마을로 가는 길에 있는 학의교 앞 도로변에 1기, 이곳에서 서쪽으로 100m 떨어진 경주정씨 가족묘 주변에 7기가 위치한다. 고인들이 위치한 곳은 비조산에서 남동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에 해당되며,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형이다. 덮개돌은 북동-남서 방향의 2열로 분포하고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제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호는 괴석형 덮개돌로 4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6·7호에서도 지석 1~2개가 보이며, 나머지는 하부가 묻혀 있거나 기울어져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1 전경

● 1호 고인돌

유적의 서쪽에 위치하며, 주변 경작으로 인해 고인돌 주변이 약간 훼손되었다. 덮개돌은 390×310×23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받침돌 4개가 확인된다. 고인돌의 덮개돌 아래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인접하여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590×460×70cm로 유적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 6호 고인돌

화강암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230×160×85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는 받침돌이 1개 확인된다.



● 8호 고인돌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7호 고인돌과는 약 100m 가량 떨어져서 자리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500×270×90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06.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2

 위치 현산면 고현리 1108

고인들은 학의마을 마을회관 앞 비조산(해발 249.5m)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고인들은 학의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310여 m 떨어진 창원황씨 납골당 주변에 4기,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100여 m 떨어진 민묘 주변에 4기가 위치하고 있다. 1986·1996·2002년에 12기로 보고되었는데, 흙에 덮여 남쪽면만 확인할 수 있다는 4기는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덮개돌은 북서-남동 방향의 2열로 분포한다. 1~4호 고인들은 납골당 주변에 있으며, 2호 고인들은 이중개석으로 보인다. 모두 하부가 시멘트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과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5~8호 고인들은 민묘 주변에 묻혀 있거나 기울어져 있고, 6·7호 고인들에서는 받침돌이 확인된다.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2 전경

● 1호 고인돌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납골당 설치로 인해 하부는 시멘트로 덮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은 620×380×9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확인된 고인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약 10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다. 1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하부는 시멘트에 덮여 있는 상태이다. 덮개돌은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아래에 위치한 덮개돌의 크기는 200×150×30cm이며, 위에 놓인 덮개돌의 크기는 250×170×25cm이다.



● 5호 고인돌

2호 고인돌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00×270×7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 7호 고인돌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5호 고인돌과는 약 10m 가량 떨어져서 자리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320×250×75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2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07.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3

 위치 현산면 고현리 1149

고인돌은 학의 마을회관에서 북서쪽으로 660여 m 떨어진 밭 가운데에 총 길이 100m 정도에 26기의 고인돌이 위치한다.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2에서 북서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북서-남동 방향 2열로 분포한다. 고인돌의 주변은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덮개돌 및 덮개돌 하부에 잡석이 많아 받침돌인지 구별이 어렵지만 확실한 받침돌은 6·9·11·21·23·24호에서 1~2개가 확인된다. 나머지 고인돌은 하부가 묻혀있거나 일부 파괴되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렵다. 고인돌의 전체적인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3 전경(북서쪽에서)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3 전경(위에서)

● 1호 고인돌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60×180×12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의 가장자리에 채석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된다.



1호

● 9호 고인돌

5호 고인돌과는 약 50m 가량 떨어져서 자리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400×260×115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2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9호

● 15호 고인돌

9호 고인돌과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화강암제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덮개돌은 240×140×3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 23호 고인돌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은 비교적 평평하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340×250×90cm이며, 아래에는 받침돌이 2개 확인된다.



● 24호 고인돌

23호 고인돌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320×205×75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약 30cm 정도 크기의 받침돌이 3개 확인된다.



● 26호 고인돌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4호 고인돌과는 약 10m 가량 떨어져서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50×300×90cm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08. 일평리 일평 고인돌군

위치 현산면 일평리 산76-10

고인돌군은 현산면 일평삼거리에서 남쪽으로 260여 m 떨어진 '땅끝농수산물유통'의 동쪽 사면에 2기가 위치한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대둔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지맥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되며, 현산천과 농경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기존에 3기가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2기만 확인된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등고방향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분포하고 있다. 2호 고인돌은 경사면에 기울어져 있다. 1호 고인돌과 2호 고인돌 모두 각각 40cm 크기의 받침돌이 2개씩 확인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1호)과 오각형(2호)이고 1호 고인돌의 크기가 더 크다.



09. 읍호리 고담 고인돌

 위치 현산면 읍호리 산32-14

고인돌은 신기마을에서 북쪽으로 200여 m 떨어진 밭 주변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대둔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지맥으로 나지막한 능선의 중턱에 생긴 고갯마루에 해당되며,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형이다. 덮개돌은 나무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부가 묻혀 있어 받침돌 등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다.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규모는 230×180×55cm이며, 하부는 매몰되어 있다.



읍호리 고담 고인돌 전경

10. 읍호리 · 황산리 고인돌군

 위치 현산면 읍호리 산21-1

고인돌은 성매교차로에서 황산교차로로 가는 13번 국도에서 북쪽으로 100여 m 떨어진 산사면 1.2km 범위에 200여 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배암골이라 불리는 성매산의 남동쪽 산사면에 해당되며, 자연석과 혼재되어 있다. 확인된 고인돌의 덮개돌 중 가장 큰 3호의 규모는 610×500×120cm이고,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산지의 말단부에는 고인돌과 함께 채석흔이 있는 석재들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지정리 과정에서 이동된 덮개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군의 북쪽 정상부에서는 채석장이 확인되는데, 덮개돌을 채석한 흔적이 있는 암반이 분포하고 있다.



읍호리 · 황산리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채석장 전경(서쪽에서)



채석된 석재 전경



채석장 전경①



채석장 전경②



고인돌 노출전경①



현산면 읍호리 황산리 고인돌군

● 1호 고인돌

유적의 북쪽에 위치하며, 소로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형 고인돌이다. 화강암제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덮개돌은 480×420×10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2호 고인돌

산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가장자리에는 채석흔적이 남아있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610×5000×120cm이며, 아래에는 받침돌이 4개 확인된다.




● 3호 고인돌

산사면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이동된 덮개돌과 자연석들이 분포하고 있다. 화강암제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덮개돌은 515×270×1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이 3개 확인된다.



11.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1


 위치 현산면 읍호리 1119-1

고인돌은 읍호마을에서 신방마을로 가는 도로 중간 계곡으로 들어서는 소로 주변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망부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지맥의 남쪽 산사면 말단부로 평지에 해당된다. 덮개돌은 소로와 정비된 배수로 사이의 밭 모서리에 위치하는데, 2호 고인돌 위에 1호 고인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경작이나 소로개설공사로 인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1986·1996년에는 1기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 해남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관련 조사에서 2기로 정정 보고되었다. 1호 고인돌은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215×160×40cm이다.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1 전경(서쪽에서)

12.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2

 위치 현산면 읍호리 1109-1

고인돌은 읍호마을에서 북쪽으로 500여 m 떨어진 선독골 입석의 서쪽부터 읍호저수지까지 600여 m 범위에 걸쳐 13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망부산의 북동쪽에 형성된 산사면과 말단부 평지에 해당한다. 1~3호 고인돌은 논둑에 묻혀 있고, 4호 고인돌은 저수지로 가는 소로변에, 5~8호 고인돌은 저수지 아래 민가 주변에 위치하는데 모두 이동·훼손되었다. 9~13호는 저수지 서쪽과 북동쪽 물가에 위치한다. 대부분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렵다. 고인돌의 군집방향은 계곡의 방향과 동일한 동-서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2 전경(동쪽에서)

● 1호 고인돌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며, 이동되어 논둑에 묻혀있다. 덮개돌은 250×100×6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 4호 고인돌

읍호저수지로 가는 소로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10×300×70cm이다.



● 5호 고인돌

읍호저수지 아래 민가에 자리하고 있다. 고인돌은 이동되어 밭 가장자리에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280×170×5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 7호 고인돌

5호 고인돌과 약 10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고인돌은 이동되어 민가로 진입하는 소로변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340×200×50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13. 백포리 백포 고인돌군

 위치 현산면 월송리 1318-1

고인돌은 1986년에 현산서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200여 m 떨어진 야산의 능선을 따라, 읍호리로 넘어가는 산길 옆에 6기가 있다고 최초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2002년 해남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정밀지표조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모두 유실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기존 보고자료에 따르면 규모가 큰 4호 고인돌을 중심으로 1열의 군집을 보이고, 40여 m 떨어진 곳에 무덤방의 벽석과 뚜껑돌 등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일부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6호 고인돌은 하부에 석재 3개로 이루어진 120×60cm 규모의 장방형 무덤방이 노출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었던 자리는 현재 도로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백포리 백포 고인돌군 전경

14. 초호리 초호 고인돌군

 위치 현산면 초호리 산47

고인돌은 현산면소재지에서 완도 방향으로 가다보면 나오는 성매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야산의 서쪽 산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덮개돌은 타원형과 제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군집과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 2열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 노출된 고인돌군의 북쪽에 추가로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초호리 초호 고인돌군 전경(서쪽에서)



고인돌 군집전경①



고인돌 군집전

● 1호 고인돌

유적의 북쪽에 위치하며 일부가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은 160×120×5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삼각형으로 추정된다.



● 4호 고인돌

1호 고인돌에서 남동쪽으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반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40×160×70cm이다.



● 5호 고인돌

4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80×135×4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이 2개 확인된다.



● 12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30×180×30cm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약 20cm 크기의 받침돌이 3개 확인된다.



● 13호 고인돌

12호 고인돌과 나란하게 자리한다. 덮개돌은 $210 \times 200 \times 50\text{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3개가 확인되며, 무덤방의 뚜껑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석이 1개 확인된다.



● 17호 고인돌

유적의 남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400 \times 240 \times 90\text{cm}$ 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3개가 확인된다.



● 19호 고인돌

산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17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10m 정도 떨어져서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440 \times 380 \times 13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30~50cm 크기의 받침돌 6개가 확인된다.




● 22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660 \times 260 \times 9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2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고인돌군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15. 월송리 향교 고인돌군

 위치 현산면 월송리 1318-1

중산리회관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향교승강장이 위치한다. 고인돌은 이 승강장에서 북쪽으로 70여 m 떨어진 민묘 주변에 6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가공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나지막한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한다. 덮개돌은 민묘 뒤쪽 수풀에 대체로 북서-남동 방향 2열로 분포하고 있다. 1·2·5호는 하부가 묻혀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4호는 3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6호는 주변 나무의 영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고인돌 중 가장 큰 것은 4호 고인돌로, 평면형태는 제형이고, 규모는 280×200×80cm이다.



백포리 백포 고인돌군 전경




1호



4호

16. 월송리 증산 고인돌군

 위치 현산면 월송리 367

고인돌은 월송교회에서 북서쪽으로 340여 m 떨어진 증산마을 남쪽 민묘 주위에 2기가 위치한다. 금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고인돌이 위치한 곳에서 남쪽으로 80여 m 떨어진 축사 옆에서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곳은 마을의 나지막한 구릉 사면에 해당되며,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형이다. 고인돌은 논과 민묘사이의 독에 묻혀 있는데 경작으로 인해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호 덮개돌의 경우 받침돌이 확인되며, 2호의 경우 잡풀에 가려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 3호는 덮개돌과 무덤방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월송리 증산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



17. 월송리 월송 고인돌군

위치 현산면 월송리 557-1

고인들은 월송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북쪽으로 250여 m 떨어진 밭과 대나무숲에 6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1986년 『해남군의 문화유적』에 보고되었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마을 북쪽에 북서-남동으로 길게 뻗은 구릉 정상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고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수풀이 우거져 고인돌이 위치하는 곳까지 진입할 수 없었다. 2017년도에 이루어진 영산강 유역 고인돌 정밀분포조사 당시에도 정확한 현황파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월산리 월송 고인돌군 전경

송지면

- 1. 군곡리 현안 고인돌군 ①
- 2. 군곡리 현안 고인돌군 ②
- 3. 군곡리 방처 고인돌군
- 4.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 ①
- 5.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 ②
- 6. 가처리 화내 고인돌군
- 7. 미아리 미야 고인돌군
- 8. 미아리 영평 고인돌군 ①
- 9. 미아리 영평 고인돌군 ②



○ 송지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군곡리 현안 고인돌군1	4	2	1	1	
2	군곡리 현안 고인돌군2	6	6	4	3	
3	군곡리 방처 고인돌군	4	2	1	0	훼손
4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1	5	5	5	6	
5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2	5	5	2	2	
6	가차리 화내 고인돌군		2	2	1	
7	미야리 미야 고인돌군		5	1	1	
8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1	4	4	4	4	
9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2		28	11	11	
10	군곡리 패총 고인돌군				2	발굴
	총 10개 군	28	59	31	31	

01. 군곡리 현안 고인돌군1

 위치 송지면 군곡리 80

고인돌은 현안마을 경로당에서 동쪽으로 440여 m 떨어진 일명 ‘달맞재’라 부르는 발 가운데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가공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 사이 계곡부에 해당된다. 1986년에 4기가 있었으나, 2002년에 경지정리로 인해 2기만 남아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덮개돌은 괴석형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받침돌 7개가 주위를 돌아가며 확인된다. 하부에 받침돌 외에 잡석도 다수 산재하고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1986년에 어망추, 석부편, 석봉편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월송리 증산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

02. 군곡리 현안 고인돌군2

 위치 송지면 군곡리 산31

고인돌은 바릿재에서 군곡리 현안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동쪽 경주최씨 재각(경모재) 뒤편 민묘 주변에 4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가공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사면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형이다. 덮개돌은 북서-남동 방향 1열로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부가 묻혀있거나 기울어져 있다. 1986·1996년에는 ‘군곡리 경모재 고인돌’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 지명에 따라 유적명이 변경되었다.



현안 고인돌군2 전경(남동쪽에서)

● 4호 고인돌

4기의 고인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상석의 크기는 290×230×4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은 한쪽 면이 들려져 있는데, 도굴된 것으로 생각된다.



03. 군곡리 방처 고인돌군

 위치 송지면 군곡리 554-2

고인돌은 방처마을 군곡초등학교(폐교)에서 동쪽으로 350여 m 떨어져 있는 해원리 삼마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1기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가공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과 능선 사이의 고개로 ‘바릿재’라 불린다. 1986년에는 4기, 2002년에는 2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고개의 서쪽 언덕에서 1기만 확인되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나머지 1기는 도로개설로 인해 멸실되었다고 한다. 금번조사에서는 남아있던 1기의 고인돌까지 모두 훼손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방처 고인돌군 전경

04.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1

위치 송지면 군곡리 726

고인들은 방치마을에서 남서쪽으로 200여 m 떨어진 군곡리패총이 있는 말매등에 5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부와 사면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1~4호는 경주정씨 묘역 서쪽에 있는 밭에 모아져 있다. 하부가 묻혀 있고, 파괴되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5호는 말매등으로 올라가는 소로변에 기울어져 있다. 계측이 가능한 5호의 평면형태는 제형으로 크기는 220×170×70cm이다. 1986·1996년에는 ‘군곡리 말매등 고인돌’로 보고되었는데 2002년 행정명에 따라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①’로 정정되었다.



군안 고인돌군1 전경(남동쪽에서)



05.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2

위치 송지면 군곡리 799-1

고인돌은 군곡리패총 남서쪽에 있는 가재울마을에서 군곡저수지 방면으로 70여 m 떨어진 농로변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는 남-북 방향 1열로 5기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에 해당되며, 동쪽으로 250여 m 떨어진 곳에 군곡저수지가 있는 지역이다. 농로변 논둑에 석재 4개가 모아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덮개돌 2개가 각각 두 조각으로 파손된 것이다. 기존 조사에서도 경지 정리 과정에서 이동되었다고 보고되었다. 1986·1996년에는 ‘군곡리 군안골 고인돌’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에 행정구역명에 따라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②’로 정정되었다.



군안 고인돌군2 전경(서쪽에서)

06. 가차리 화내 고인돌군

 위치 송지면 가차리 70

고인들은 해원리에서 가차리로 가는 도로변, 즉 가차리 화내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남서쪽으로 260여 m 떨어진 곳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되며, 북쪽으로 드넓은 경작지가 펼쳐져 있다. 고인들은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있다. 1호 고인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하부가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렵다.



화내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나란하게 자리한다. 괴석형 고인돌로 덮개돌은 290×270×23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추정된다. 덮개돌 아래에는 기둥모양의 받침돌 3개가 확인된다.



2호

07. 미야리 미야 고인돌군

위치 송지면 미야리 41-2

고인돌은 가차리 화내마을에서 미야리로 가는 ‘방죽골’이라는 고갯길의 서쪽 구릉사면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미야마을에서 북쪽으로 300여 m 떨어진 곳으로 능선의 사면에 해당된다. 2002년에는 5기가 동-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면서 분포한다고 보고되었다. 2017년도와 금번 조사에서는 1기만 확인되었는데, 북쪽 말의 경계지점에 묻혀 있어 덮개돌의 한쪽 면만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덮개돌의 길이는 185cm이며, 덮개돌 아래에 받침돌로 보이는 할석이 1개 확인된다. 덮개돌에서 서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 90×10×50cm의 판석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 고인돌의 덮개돌과 동일한 석재들이 분포하고 있어 많은 고인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야리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과 1호 고인돌

08.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1

 위치 송지면 미야리 13-1

고인돌은 영평마을에서 군곡리로 넘어가는 ‘독고개’의 밭, ‘미야리 미야 고인돌군’에서 북쪽으로 270여 m 떨어진 소로변에 4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에 해당된다. 상석은 남-북 방향으로 열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는데, 1~3호는 농로 개설과 민묘 조성으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하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영평 고인돌군1 전경(남쪽에서)

● 4호 고인돌

고인돌군 동쪽에 개설된 소로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50×230×35cm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기둥모양의 받침돌 3개가 덮개돌을 받치고 있다.



4호

09.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2

위치 송지면 미야리 13-1

고인돌은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1'에서 북쪽으로 200여 m 떨어진 민가 동쪽에 동-서 방향 2열로 1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남북방향의 독고개로 산사면에 해당된다. 고인돌은 2002년에 28기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2017년과 이번 조사에서는 11기만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지점은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덮개돌과 동일한 석재들이 산재하고 있어 더 많은 고인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주변 밭에 고인돌이 더 있었으나 경작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한다.



영평 고인돌군2 전경(남쪽에서)

● 2호 고인돌

일부가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노출된 덮개돌의 크기는 $360 \times 130 \times 5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하부가 약간 들려있기는 하지만 받침돌이나 무덤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 4호 고인돌

4호 고인돌 역시 일부가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반원형이며 크기는 $160 \times 140 \times 30\text{cm}$ 이다.



● 5호 고인돌

산사면의 능선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이며, 크기는 $250 \times 200 \times 95\text{cm}$ 이다. 덮개돌아래에서 크기 50cm 의 받침돌이 1개 확인되었다.



● 1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서쪽에서 확인된다. 1~10호 고인돌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단독으로 위치한다. 대형급의 괴석형 고인돌로, 덮개돌의 크기는 $480 \times 290 \times 37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북일면

• 1. 운전리 운전 교인돌군

북일면



○ 북일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운전리 운전 고인돌군	27	20	32	32	
	총 1개 군	27	20	32	32	

01. 운전리 운전 고인돌군

 위치 북일면 운전리 산135

고인돌은 운전마을 운전리사무소에서 서쪽으로 300여 m 떨어진 일명 ‘형재등’이라 불리는 김해김씨 묘 주변에 3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두륜산에서 북동쪽 주작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나지막한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된다. 고인돌은 32기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4개의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다. 1, 4, 9, 14, 28호에서만 받침돌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하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렵다. 최근에도 고인돌과 인접하여 밭경작 및 소로개설 등으로 인한 행위로 인해 지형이 훼손되고 있어 유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운전 고인돌군 전경(남동쪽에서)

● 1호 고인돌

김해김씨 묘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크기는 330×310×40cm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4호 고인돌

1호 고인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형태는 오각형이며, 크기는 305×210×80cm이다.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6호 고인돌

덮개돌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270×145×70cm이다. 하부가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고인돌과 접하여 나무가 자라고 있다.



● 10호 고인돌

구릉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 개설된 소로변에 위치한다. 절개면에 걸쳐있으며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다. 크기는 230×180×50cm이다. 받침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옥천면



○ 옥천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백호리 백호 고인돌군	13	13	11	11	
2	성산리 성산 고인돌군	23	21	8	0	훼손
3	송산리 송산 고인돌군1	4	4	3	2	
4	송산리 송산 고인돌군2			2	2	
5	송산리 마고 고인돌군	3	3	3	3	
6	송산리 화촌 고인돌군	5	5	3	3	
7	신죽리 가곡 고인돌		1	1	1	
8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1	22	22	21	21	
9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2	8	8	0	0	훼손
10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1	15	15	9	9	
11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2	11	11	4	4	
12	영춘리 영춘 고인돌군1	20	30	19	19	
13	영춘리 영춘 고인돌군2	5	7	4	4	
14	영춘리 송운 고인돌군			19	19	
15	용산리 용산 고인돌군	9	2	8	2	
16	용산리 문촌 고인돌군	3	9	8	7	
17	용산리 용수 고인돌군	6	5	6	6	
18	팔산리 팔산 고인돌군	3	0	0	0	훼손
19	흑천리 옥수 고인돌군	5	5	5	5	
20	흑천리 흑천 고인돌		1	1	1	
21	청신리 탑동 고인돌군	5	5	5	5	
22	흑천리 요골 고인돌군				0	시굴, 고인돌×
23	영춘리 고인돌				1	발굴
	총 23개 군	160	167	140	125	

○ 발굴유적

	유적명	소재지	조사현황	비고
23	영춘리 고인돌	옥천면 영춘리 775-3	덧개돌(上石) 1기	이전·복원

(이전복원 : 옥천면 영춘리 775-1)

01. 백호리 백호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백호리 454-1

고인돌은 백호마을 백호리회관에서 남서쪽으로 330여 m 떨어진 용심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와 마을회관 앞에 1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의 고갯마루와 야산의 서쪽 평지에 해당된다. 1~9호 고인돌은 고갯마루 주변의 민묘 주변에 위치하고, 10호는 백호리 마을회관 앞 논둑에 묻혀있다. 11호는 백호마을 입구에 자리한다. 고인돌 덮개돌의 형태는 장방형과 타원형으로 대부분 남북방향이며, 배열형태는 일정하지 않다.

백호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



● 5호 고인돌

고갯마루에 위치한다. 민묘와 인접하여 있으며, 1호~4호 고인돌이 5m 반경 내에 자리한다. 덮개돌은 230×130×7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2개가 확인되며, 이 중 1개는 판석을 세워서 덮개돌을 받치는데 사용하였다.



● 8호 고인돌

고갯마루에 위치하며, 묘역조성을 위해 절개한 면이 고인돌 바로 앞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300×120×50cm이다. 덮개돌 아래로 판석이 1개 노출되어 있는데 무덤방의 뚜껑돌로 보인다.



● 10호 고인돌

백호리 마을회관 앞 논둑에 하부가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경작과정에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덮개돌의 크기는 250×170×6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 1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북동쪽, 백호 정미소 앞 소로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80×240×8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4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02. 성산리 성산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성산리 22-6

해남에서 강진으로 가는 도로(국도 18번)의 오른쪽에 성산마을이 위치한다. 고인돌은 성산 정류장이 있는 사거리에서 흑산 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로 양쪽으로 8기가 밀집되어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나지막한 구릉의 말단부 평지에 해당된다. 1986·1996년에 23기, 2002년에는 21기로 보고되었다. 2017년도 조사에서는 8기만 확인되었는데, 당시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경지 정리와 정미소 정비 과정에서 매몰시켰다고 한다. 금번조사에서는 최근 주택신축 및 진입로 공사로 인해 모두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호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

03. 송산리 송산 고인돌군1


 위치 옥천면 송산리 90

고인들은 옥천면사무소 남쪽에 있는 송산마을로 들어서는 삼거리에서 남동쪽으로 260여 m 떨어진 구릉사면에 2기, 이곳에서 동쪽으로 410여 m 떨어져 1기 등 총 3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1, 2호는 송산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데, 수풀과 대나무 숲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3호는 멸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백호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

04. 송산리 송산 고인돌군2

 위치 옥천면 송산리 119-2

고인돌은 송산경로회관에서 북동쪽으로 240여 m 떨어진 민묘 주변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송산마을 뒤흘에 동-서 방향으로 형성된 구릉의 동쪽 능선 정상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1호 고인돌은 무안박씨 묘역에 세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고, 2호 고인돌은 광산김씨 묘역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1·2호 고인돌 모두 묘역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렵다.



송산 고인돌군2 전경(남쪽에서)



05. 송산리 마고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송산리 994

고인돌은 마고마을 서쪽에 있는 마고리회관에서 북쪽으로 320여 m 떨어진 논 사이에 3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해남읍과 옥천면을 나누는 깃대봉과 덕음산으로 연결되는 능선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평지에 해당되는 곳이다. 고인돌은 25m 범위에 동-서 방향 1열로 분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80여 m 떨어진 곳에 월평천이 흐르고 있는데 고인돌의 배열방향과 같다. 1986·1996년에 ‘영춘리 연화동 고인돌군’으로 보고되었다. 2002년 행정명에 따라 ‘송산리 마고 고인돌군’으로 정정되었다. 조사결과 현재 문화재 GIS시스템에 ‘영춘리 마고 고인돌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은 송산리에 속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백호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



마고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마고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1호 고인돌

소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3기의 고인돌 중 덮개돌의 크기가 가장 크다. 규모는 290×250×170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는 잡석이 확인된다.



1호

● 2호 고인돌

유적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규모는 280×250×160cm이다. 1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경작과정에서 발생한 잡석들이 덮개돌 아래에 모아져있다.



2호


● 3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60×250×120cm이며,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3호

06. 송산리 화촌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송산리 산90-1

고인들은 백운마을에서 백호리삼거리를 지나 화촌마을로 들어서는 입구 도로변에 3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산사면 말단부에 해당된다. 1986·1996·2002년에는 5기로 보고되었는데, 2017년과 금번 조사에서는 3기만 확인되었다. 고인들은 남-북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1·2호 고인들은 배수로 주변에 기울어지고, 매몰되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화촌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3호 고인돌

유적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220×180×90cm이다. 덮개돌 아래로는 무덤방의 벽석이 확인되는데, 북동 벽석은 1개, 북서 벽석은 2~3개가 이어져 있다.



3호

07. 신죽리 가곡 고인돌

 위치 옥천면 신죽리 220

고인돌은 가곡마을회관에서 북동쪽으로 300여 m 떨어진 제주양씨 묘 주변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가곡마을과 신곡마을 사이 노리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가곡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1호 고인돌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상면은 시멘트를 바르고 석재를 올려놓았다. 덮개돌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220×140×100cm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이 확인되는데, 35cm 정도의 크기로 2개가 확인된다.



1호

08.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1

 위치 옥천면 영신리 108

고인들은 해남우리병원에서 남쪽으로 500여 m 떨어진 옥천제일교회 주변에 20기, 여기서 남쪽으로 120여 m 떨어진 포도밭 사이 민가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금강산 깃대봉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산사면 말단부 평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1~20호는 50여 m 범위에 남-북 방향 2열로 분포하고 있으며, 민가 뒤 공터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단독으로 위치한 21호는 장축 560cm로 대형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타원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 2~5, 10, 11, 13~16, 19, 21호에서는 받침돌이 확인된다.

영안 고인돌군1 전경(북쪽에서)



● 2호 고인돌

유적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크기는 180×170×50cm이다. 덮개돌 주변에는 채석흔이 남아있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3호 고인돌

유적의 북쪽에 위치한다. 2호 고인돌과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20×250×90cm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5호 고인돌

군집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3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10m 정도 떨어져서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70×190×12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30~50cm 크기의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7호 고인돌

5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7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10×160×3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받침돌이 없는 개석식 고인돌이다.



● 10호 고인돌

군집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소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다. 덮개돌은 $300 \times 270 \times 105\text{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12호 고인돌

유적의 남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80 \times 150 \times 50\text{cm}$ 이다. 받침돌이 없는 개석식 고인돌이다.



● 13호 고인돌

군집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80 \times 260 \times 12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30~50cm 크기의 받침돌 3개가 확인된다.



● 14호 고인돌

3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50 \times 130 \times 4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2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 15호 고인돌

군집의 중앙에 자리한다. 덮개돌은 290×250×11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의 가장자리에는 채석흔적이 남아있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16호 고인돌

15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8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440×290×120cm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3개가 확인된다.



● 19호 고인돌

소로와 인접하여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470×290×18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30~50cm 크기의 받침돌 4개가 확인된다. 고인돌 주변에는 잡석과 경작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쌓여있다.




● 2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1호~20호 고인돌이 모여있는 곳에서 약 120m 가량 떨어져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560×420×18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1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고인돌군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09.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2


 위치 옥천면 영신리 253-1

고인돌은 2002년에 밭으로 개간된 구릉에 2기, 해민병원 정면 논 가운데 2기, 이곳에서 북쪽으로 50여 m 떨어진 곳에 4기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2017년도와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곳은 깃대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계곡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고인돌이 위치했던 곳은 현재 ‘해남우리병원’ 앞 정원과 그 주변에 해당된다. 마을 이장의 말에 따르면 고인돌이 많이 있었으나, 병원 증축과 도로 개설 등으로 매몰되었다고 한다.



영안 고인돌군2 전경(남동쪽에서)

10.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1

 위치 옥천면 영신리 374-1

고인돌은 영신마을에서 남쪽으로 120여 m 떨어진 양씨문중 재각 주변에 9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금강산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린 산사면 말단부에 해당된다. 고인돌은 남-북 방향 2열로 30여 m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덮개돌의 하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우나 덮개돌의 장축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서쪽으로 150여 m 떨어진 산사면 계곡부에는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하천을 경계로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2와 나뉘어진다.



영신 고인돌군1 전경(남동쪽에서)

● 1호 고인돌

소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경사면에 걸쳐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은 420×330×12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유적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인돌이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약 7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240×330×120cm이다. 덮개돌 아래에서는 잡석이 확인되며, 받침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 3호 고인돌

2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20×230×115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잡석이 쌓여있다.



● 5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중앙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400×370×7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 6호 고인돌

5호 고인돌과 나란하게 자리한다. 덮개돌은 340×230×9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어 받침돌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다.



● 7호 고인돌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80×230×110cm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8호 고인돌

밭 경사면에 위치하며 덮개돌의 대부분이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140×130×45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 9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경사면에 걸쳐있는데, 경작으로 인해 이동된 것으로 생각된다. 덮개돌의 크기는 240×225×70cm이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2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11.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2

 위치 옥천면 영신리 386

고인들은 영신마을 입구에 있는 농협우리음료(영신리 388번지) 앞에 2기,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100여 m 떨어진 대나무 밭 주변에 2기 등 총 4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금강산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린 산사면의 말단부에 해당된다. 덮개들은 북-동 남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기존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11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주택과 창고 신축과정에서 유실되어 4기만 잔존하고 있다. 유적의 남쪽에 흐르는 옥천천을 경계로 영신리 영신고인돌군1과 나뉜다.



영신 고인돌군2 전경(직상방향)

● 1호 고인돌

마을 입구에 위치한 음료창고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상태이다. 덮개돌은 190×160×6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할 수 없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00×180×100cm이다. 1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하부구조는 확인할 수 없다.



● 3호 고인돌

옥천천 북쪽에 인접한 밭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550×480×140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경작과정에서 나온 잡식들을 쌓아두었다.




● 4호 고인돌

3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4m 가량 떨어져서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20×180×7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경작과정에서 나온 잡식들을 쌓아두었다.



12. 영춘리 영춘 고인돌군1

 위치 옥천면 영춘리 807-1

고인들은 옥천면사무소에서 500~600여 m 떨어진 13번 국도 서쪽 민묘 주변에 19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차일봉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산사면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기존조사에 의하면 덮개돌은 두 군집으로 나누어지는데, 1~14호는 수성최씨 묘 주변에 동-서 방향 2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고, 동쪽으로 200여 m 떨어져 위치한 15~19호는 죽산안씨와 김해김씨 묘 주변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는 산사면에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다수 산재해 있다.



영춘 고인돌군1 전경(서쪽에서)

● 1호 고인돌

수성최씨 묘역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50×150×11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9호 고인돌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60×210×120cm이다. 받침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 10호 고인돌

산사면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190×140×13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 13호 고인돌

수성최씨 묘역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50×8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경사면에 걸쳐져 있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13. 영춘리 영춘 고인돌군2

위치 옥천면 영춘리 518-1

고인들은 옥천면사무소에서 남쪽으로 140여 m 떨어진 밭과 그 주변 민가(522-4번지)에 4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차일봉에서 남동쪽으로 흘러내린 구릉 사이의 평지에 해당되는데, 고인들은 20여 m 범위 내에 동-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1호 고인들은 민가 마당에 있는데, 하부에서 잡석이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시멘트에 묻혀 있다. 2호는 담장에 묻혀 있고, 밭 주변에 있는 3, 4호 역시 하부가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가장 큰 덮개돌은 1호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영춘 고인돌군2 전경(직상방향)

● 4호 고인돌

영춘리 522-5번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90 \times 150 \times 50$ 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덮개돌 하부는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14. 영춘리 송운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영춘리 730-1

고인돌은 해남교도소 앞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80여 m 떨어진 곳에 19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금강산 깃대봉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사면부에 해당된다. 덮개돌은 190~440cm 크기로 타원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30m 범위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3열을 이루고 있다. 이 유적과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 1’의 1~20호 군집 사이에 단독의 대형고인돌(21호)이 위치하고 있다. 남서쪽으로 400여 m 떨어진 산사면에 덮개돌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대나무가 뻗뻗하게 자라고 있어 육안으로 고인돌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송운 고인돌군 전경(동쪽에서)

● 2호 고인돌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소로와 인접하여 있다. 덮개돌은 $400 \times 280 \times 140\text{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3호 고인돌

유적의 서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440 \times 270 \times 150\text{cm}$ 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4호 고인돌

3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5m 정도 떨어져서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60 \times 200 \times 7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덮개돌의 가장 자리에 채석흔이 확인된다.



● 6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90 \times 180 \times 5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하부가 묻혀있고 구조는 확인할 수 없다.



15. 용산리 용산 고인돌군

📍 위치 옥천면 용산리 산10-1

고인돌은 용산리회관에서 북동쪽으로 410여 m 떨어진 마지막 민가 주변(산10-1번지)에 1기가 위치한다. 고인돌은 1986·1996년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 방향으로 9기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2002년에는 원형이 훼손된 2기만 확인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민가 입구와 산사면에 덮개돌 8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이동된 상태로 4기, 2기, 2기씩 모여져 있고, 굴삭기흔적이 확인된다고 보고되었다.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더 많은 고인돌이 있었으나 주변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금번 조사에서는 민가 입구에 위치한 1기만 확인되었으며, 기존에 이동되었던 덮개돌 역시 1기만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220×110×4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용산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16. 용산리 문촌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용산리 342

고인들은 문촌마을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150여 m 떨어진 박○○씨 댁 뒤쪽 마당에 7기,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250여 m 떨어진 해남윤씨 묘 주변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제봉산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사면부에 해당된다. 1~7호 고인들은 민가 뒤쪽에 북서-남동 방향 2열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는데,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기울어졌거나 묻혀 있다. 2호 고인들의 경우 덮개돌 아래에서 잡석이 확인된다. 8호 고인들은 민묘역에 대부분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



문촌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 1호 고인돌

민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은 민가와 발 사이의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덮개돌의 대부분이 매몰된 상태로 확인되어 규모나 평면형태는 확인하기 어렵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나란히 자리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85×200×60cm이다. 덮개돌 아래로 잡석들이 모여져있다.



● 4호 고인돌

민가와 발 사이의 경사면에 걸쳐 있으며,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덮개돌의 크기는 290×230×60cm이며,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 8호 고인돌

1호~7호 고인돌군에서 남동쪽으로 250여 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 묻혀있고 덮개돌의 윗부분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235×120×30cm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17. 용산리 용수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용산리 78

고인돌은 문촌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210여 m 떨어진 용수마을 남쪽 구릉의 밭에 6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제봉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부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덮개돌은 대체로 30m 범위에 남-북 방향으로 2열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다. 1호 고인돌은 소로개설로 인하여 이동되어 묻혀 있으며, 4호 고인돌은 대나무숲에 위치한다. 6호 고인돌은 사면에 기울어져 있고, 수풀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과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2·5호 고인돌의 경우에는 하부에서 잡석들이 확인된다. 가장 큰 덮개돌은 2호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1986년에는 ‘용산리 문촌 고인돌 B군’으로, 1996년에는 ‘용산리 문촌 고인돌 나’로 보고되었다. 2002년 ‘용산리 용수 고인돌군’으로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문촌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 1호 고인돌

마을로 진입하는 소로변에 위치한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소로개설 당시 이동되었다고 한다. 덮개돌은 180×95×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매몰되어 있어 하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 2호 고인돌

밭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기구와 비료 등이 적재되어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240×180×30cm이다.



● 3호 고인돌

밭과 대나무숲의 경계지점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00×80×4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의 하부가 묻혀있어 하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 5호 고인돌

대나무숲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170×140×4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18. 팔산리 팔산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팔산리 984

고인들은 1986·1996년에 팔산마을 입구 정미소에서 서쪽으로 50여 m 떨어진 논 가운데 일명 황새바위라 불리우는 1기가 있고, 이곳에서 북쪽으로 80여 m 떨어져 2기가 위치한다고 보고되었다. 2002년에는 경지정리 과정에서 모두 유실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고인들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야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의 말단부 평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팔산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

19. 흑천리 옥수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흑천리 319

고인돌은 흑천리회관에서 북동쪽으로 300여 m 떨어진 억수동마을 민가(395-1번지) 주변에 5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야산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완만한 산사면에 해당된다. 덮개돌은 자연석과 혼재되어 있는데, 1~4호 고인돌은 민가 뒤쪽 밭 가운데 큰 암반과 함께 모여져 있으며, 5호 고인돌은 밭둑에 묻혀 있다. 밭 근처에서는 대형 암반이 4개 확인되는데, 밭에 있는 2개는 주민의 말에 따르면 각각 ‘달바위’와 ‘북바위’로 불리운다고 한다. 북바위가 기 조사에서 지칭한 670cm 크기의 덮개돌로 보이나 받침돌이 확인되지 않고 주변에 암반이 노출되어 있어 고인돌에서 제외하였다.



옥수 고인돌군 전경(남동쪽에서)

20. 흑천리 흑천 고인돌

 위치 옥천면 흑천리 436-2

고인돌은 흑천마을 북쪽 입구 흑천리회관에서 북쪽으로 170여 m 떨어진 소로변에 1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나지막한 구릉의 정상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고인돌은 민가 앞에 위치하는데, 소로 개설 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덮개돌의 크기는 280×130×60cm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상면에서 성혈 1개가 확인된다. 동쪽으로 300여 m 떨어진 곳에 ‘흑천리 옥수 고인돌군’이 위치하고 있다. 하부는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렵다.



흑천 고인돌 전경(북서쪽에서)

21. 청신리 탑동 고인돌군

위치 옥천면 흑천리 149

고인돌은 성산리에서 대산리로 가는 길에 위치한 탑동마을 입구에 있는 동구중앙교회 주변에 5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야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나지막한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덮개돌은 남-북 방향으로 2열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교회 내부에 고인돌이 있어 대부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원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1호는 교회 남서쪽 논둑에 묻혀 있고, 2호는 매몰되어 상면만 확인된다. 3호는 하부에 잡석이 있고, 4, 5호는 시멘트에 묻혀 있다.



계곡면



○ 계곡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반계리 대운 고인돌군	21	20	18	18	
2	법곡리 용호 고인돌군	7	7	2	2	
3	성진리 성진 고인돌군	4	4	0	0	훼손
4	덕정리 월암 고인돌군	23	22	12	10	발굴
5	선진리 선진 고인돌군	5	3	3	3	발굴
6	장소리 장소 고인돌		1	1	1	발굴
	총 6개 군	60	57	36	34	

○ 발굴유적

	유적명	소재지	조사현황	비고
4	덕정리 월암고인돌군	계곡면 덕정리 산52 일원 (이전복원 : 계곡면 덕정리 산58)	덧개돌(上石) 10기 무덤방(墓室) 11기	이전 · 복원
5	선진리 선진 고인돌군	계곡면 선진리 375-1 (이전복원 : 계곡면 성진리 202-17)	덧개돌(上石) 3기 무덤방(墓室) 0기	이전 · 복원
6	장소리 장소 고인돌	계곡면 장소리 122-3 (이전복원 : 계곡면 성진리 202-17)	덧개돌(上石) 1기 무덤방(墓室) 1기	이전 · 복원

고인돌은 반계마을에서 대운마을로 들어서는 진입로 나지막한 구릉에 무질서하게 고인돌 18기가 위치하고 있다. 1986년에 21기, 1996년에는 20여 기의 고인돌이 원형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전형적인 기반식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소규모 석재를 제외하고 18기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하부가 묻혀 있거나, 기울어져 있고, 2~4조각으로 파손된 것도 있다.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996년에는 ‘성진리 대운 고인돌’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 행정구역명에 따라 ‘반계리 대운 고인돌군’으로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금번 조사에서는 수풀이 우거지고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7기만 확인할 수 있었다.

고인돌이 위치한 구릉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여시뱅이 또는 여시코팽이로 불리는 곳이며, 여시뱅이 고인돌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예전 마을에 살던 주민에 의해 도굴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계곡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현재 어떤 고인돌이 도굴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덮개돌 아래 받침돌이 4개 있으며, 그 아래로 뚜껑돌이 덮여있었다고 한다. 또한 뚜껑돌 아래로 2단으로 쌓은 석곽이 확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출토된 돌칼은 제보자가 보관하고 있다고 기록되었으나, 현재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대운 고인돌군 전경

● 1호 고인돌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370×160×5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확인된 고인돌 중 덮개돌의 규모가 가장 크다. 주변에는 받침돌로 보이는 석재가 1개 확인된다.



1호

● 4호 고인돌

유적의 중앙에 위치한다. 대숲에 가려져 일부만 확인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230×120×50cm이다. 덮개돌은 4조각으로 파괴된 상태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4호

● 6호 고인돌

유적의 중앙, 민묘 뒤에 우거진 소나무숲에 위치한다. 고인돌 위에는 나뭇가지들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크기는 $210 \times 120 \times 80\text{cm}$ 이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7호 고인돌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6호 고인돌에서 서쪽으로 5m 정도 떨어져서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20 \times 180 \times 10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30~50cm 크기의 받침돌 6개가 확인된다.



● 9호 고인돌

소나무 숲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묻혀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 \times 150 \times 5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은 4조각으로 파괴되어 있다. 덮개돌 아래에서 1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 10호 고인돌

소나무 숲에 위치하고 있으며, 9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230 \times 100 \times 3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02. 법곡리 용호 고인돌군

위치 계곡면 법곡리 306

고인돌은 해남-성전간 13번 국도에서 용호마을로 진입하는 소로변 서쪽 밭에 2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용호리사무소에서 남서쪽으로 370여 m 떨어진 야산의 말단부 평지에 해당된다. 1986·1996·2002년에는 7기로 보고되었으나 2017년 조사와 금번조사에서는 2기만 확인되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밭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고인돌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1호 고인돌은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2호 고인돌은 소로변 전봇대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1986·1996년에는 ‘용호리 용호 고인돌’로 보고되었으나 행정구역명에 따라 2002년 법곡리 용호 고인돌군으로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용호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 1호 고인돌

밭 가운데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320×210×15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2개가 확인된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180×140×50cm이다. 2호 고인돌은 전봇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작 과정에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03. 성진리 성진 고인돌군

 위치 계곡면 성진리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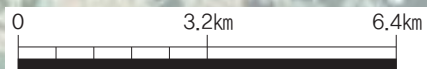
고인돌은 1986·1996년에 성진마을 뒤 고제봉 아래 구릉에 자연석과 혼재되어 4기가 위치한다고 보고되었고, 2002년에는 최○○씨 댁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잡석으로 묻혀 있어 확실한 형태는 보이지 않고, 다른 고인돌 또한 일정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7년과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최○○씨 댁 옆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모두 훼손되었다. 주변에 수 십기의 석재가 산재하고, 판석도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고인돌과 관련된 석재일 가능성이 높다.



성진 고인돌군 전경

마산면


- 
- 7. 맹진리 북창 고인돌군 ①
 - 6. 맹진리 맹진 고인돌군 ①
 - 8. 맹진리 북창 고인돌군 ②
 - 9.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 ①
 - 10.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 ②
 - 12. 외호리 외호 고인돌군
 - 3. 노하리 노하 고인돌군
 - 5. 노하리 신당 고인돌군
 - 15. 학의리 학의 고인돌군
 - 13. 용전리 고암 고인돌군 ①
 - 1. 노하리 원향 고인돌군 ①
 - 14. 용전리 고암 고인돌 ②
 - 16.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 ①
 - 11. 송석리 송석 고인돌군
 - 17.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 ②
 - 4. 노하리 덕인 고인돌군
 - 2. 노하리 원향 고인돌 ②



○ 마산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노하리 원향고인돌군1	15	15	13	13	
2	노하리 원향 고인돌2			1	0	훼손
3	노하리 노하 고인돌군	8	8	8	8	
4	노하리 덕인 고인돌군	14	14	4	4	
5	노하리 신당 고인돌군			3	2	
6	맹진리 맹진 고인돌군	2	2	2	2	
7	맹진리 복창 고인돌군1	1	1	1	1	
8	맹진리 복창 고인돌군2		20	23	23	
9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1	15	15	17	17	
10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2	3	3	3	3	
11	송석리 송석 고인돌군	15	15	11	0	훼손
12	외호리 외호 고인돌군	2	2	2	2	
13	용전리 고암 고인돌군1	8	8	5	5	
14	용전리 고암 고인돌2			1	1	
15	학의리 학의 고인돌군	20	20	11	11	
16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1	11	11	3	3	
17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2	8	0	0	0	
	총 17개 군	122	134	108	95	

01. 노하리 원항 고인돌군1

 위치 마산면 노하리 산98-3

고인들은 고암마을에서 원항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정상부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13기가 2열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상석은 묻혀 있고, 4, 10호 고인들은 덮개돌이 두 조각으로 깨져 있다. 기존조사에서는 9호 주변에 200×100×30cm의 묘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 북동쪽에서도 덮개돌이 없는 묘실 2기가 더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고인들은 전체적으로 받침돌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묘실의 존재로 볼 때 도굴 등으로 인한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 결과 도로조성과 주변경작으로 인해 지형이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고인들은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원항 고인돌군1 전경(남동쪽에서)

● 1호 고인돌

1구릉 사면부의 하단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70×190×5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 8호 고인돌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05×150×75cm 이다. 현재 잡목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 9호 고인돌

8호 고인돌과 나란히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90×240×110cm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 13호 고인돌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60×170×40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02. 노하리 원항 고인돌2

 위치 마산면 노하리 249-1

이 유적은 2017년 ‘노하리 원항 고인돌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고암마을에서 원항리 버스정류장을 지나 500여 m 가면 보이는 나지막한 고갯길에 고인돌 1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현재 고인돌이 위치한 지점은 폐기물이 적치되어 지형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조사된 고인돌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존 조사에서는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원항 고인돌2 전경

03. 노하리 노하 고인돌군

 위치 마산면 노하리 249-1

마산면소재지에서 노하리 방면으로 1km 정도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서 목포와 철새도래지 방면으로 470여 m 떨어진 도로변에 고인돌 8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낮은 구릉사면에 해당되며, 동쪽과 서쪽을 조망할 수 있다. 덮개돌은 1986·1996년에는 타원형으로 군집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경지정리 과정에서 대부분 이동되어 북서-남동 방향 1열을 이루고 있다. 받침돌이 확인되는 6호 고인돌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동되어 있으며, 하부가 묻혀있어 고인돌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노하 고인돌군 전경(서쪽에서)

● 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40×95×7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에서 북서쪽으로 약 5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20×145×55cm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 3호 고인돌

2호 고인돌과 나란하게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50×70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하부는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 4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180×160×6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대부분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 5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중앙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60×190×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 6호 고인돌

5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00×300×90cm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이 1개 확인되었다.



● 7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80×150×9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대부분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 8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30×190×7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대부분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04. 노하리 덕인 고인돌군

 위치 마산면 노하리 산38-1

마산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1km 가량 가면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서 서쪽 100여 m 지점에 고인돌 4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역마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다. 현재는 경작으로 인해 파괴되고 4기만 확인되는데, 동-서 방향 1열로 분포하고 있다. 1986·1996·2002년 조사내용을 보면 거칠고, 배열이 부정형한 14개의 덮개돌이 있으며, 주변 경작으로 파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덕인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420×110×10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40×160×105cm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이 1개 확인되었다.



● 3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70×90cm이며, 평면형태는 제원형이다. 덮개돌이 살짝 들려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 4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70×170×75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대부분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05. 노하리 신당 고인돌군

 위치 마산면 노하리 85-3

기존조사에서 고인돌은 연구저수지 앞 삼거리에서 남동쪽으로 300여 m 떨어진 도로 변 산사면에 2기,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40여 m 떨어진 도로 건너편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곳은 역마산에서 북서쪽으로 뺀 지맥의 북쪽 산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비교적 높은 곳이어서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2기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부는 모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과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주변에는 고인돌의 덮개돌과 유사한 석재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신당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06. 맵진리 맵진 고인돌군

 위치 마산면 맵진리 424-3

고인돌은 맵진리 삼거리에서 원덕마을 방향으로 550여 m 떨어진 무안박씨 묘 주변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만대산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산사면으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1986년에 ‘맵진 고인돌 B군’으로, 1996년에는 ‘맵진리 맵진 고인돌 나’로 보고되었음. 1호 고인돌은 기존조사에서 받침돌이 1개 확인되고 하부구조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수풀이 우거져 하부구조는 확인할 수 없다. 2호 고인돌은 기울어져 있으며, 잡목 등에 의해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렵다.



맵진 고인돌군 전경(남동쪽에서)



1호



2호

07. 맹진리 북창 고인돌군1


위치 마산면 맹진리 572-2

맹진리 삼거리에서 북서쪽으로 660여 m 떨어진 북창마을의 양곡보관창고(개인소유) 뒤편에 민묘 수기와 함께 고인돌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만대산의 북동쪽 산사면으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기존 조사에서는 받침돌 5개가 원형을 이루며 괴어져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우거진 수풀로 인해 받침돌 1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서쪽 사면부에는 고인돌의 덮개돌으로 추정되는 괴석이 산재해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1986년에 ‘맹진 고인돌 A군’으로, 1996년에는 ‘맹진리 맹진 고인돌가’로 보고되었다.



북창 고인돌군1 전경(남서쪽에서) 및 1호 고인돌

08. 맵진리 북창 고인돌군2

 위치 마산면 맵진리 695-2

마산리 맵진삼거리에서 북서쪽 외호리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가스공사 장춘사무소’가 나오는데, 고인돌은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80여 m 범위에 23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만대산의 북쪽 산사면 말단부로 고인돌은 동-서 방향의 2열로 분포하고 있다. 1~16호 고인돌은 수풀로 뒤덮여 있으며, 17, 18호 고인돌은 경작으로 인해 훼손·이동되어 도로변에 위치한다. 19~23호는 밭 주변에 흩어져서 분포하며, 21호 고인돌은 하부에서 잡석이 확인된다. 1호 고인돌의 남쪽 사면과 693번지 밭가 주변에 덮개돌로 보이는 석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기존 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연석과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창 고인돌군2 전경(남서쪽에서)

● 5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120×90×5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 10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 도로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20×180×70cm이다. 덮개돌의 앞쪽은 드러있다.



● 1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30×70cm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덮개돌이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덮개돌이 이동되었다.



● 13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 도로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50×250×11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대부분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 19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330×310×1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 20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 발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00×160×70cm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이 확인되지 않는다.



● 2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90×270×180cm이며, 평면형태는 제원형이다. 덮개돌 하부는 대부분 묻혀있다.



● 23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30×150×7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대부분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고인들은 산막마을과 노하마을 사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도로변 '산막마을 버스정류장' 주변에 17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마산면사무소에서 북쪽으로 950여 m 떨어진 평지에 해당되는데, 고인돌군은 남-북 방향 5열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 모든 덮개돌은 하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과약은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었다. 7, 9, 15호 고인들은 성혈이 확인되는데, 특히 9호 상면에는 반원형의 성혈 2개가 마주보는 소발굽 모양을 띠고 있다. 설화에 의하면 어떤 장군이 산막리 뒷산인 무진봉에서 말을 타고 뛰어내려 생긴 말발굽 자국이라고 전하여 주민들은 이곳을 '독배기'라 부른다고 한다. 주변에 정자가 신축되고 공원화되어, 대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산막 고인돌군1 전경(북쪽에서)

● 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340×170×7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 4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200×170×80cm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 5호 고인돌

4호 고인돌에서 북서쪽으로 약 5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400×230×9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덮개돌 하부는 대부분 묻혀있다.



● 8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75×140×5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성혈이 확인된다.



● 9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북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10×190×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상면에는 반원형의 성혈 2개가 마주보는 소발굽 모양을 띠고 있다. 마을 설화에 따르면 장군이 말을 타고 밟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



9호



9호 성혈

● 13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20×35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하부는 대부분 묻혀있다.



12호

● 14호 고인돌

13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80×45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대부분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14호

10.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2

 위치 마산면 산막리 444


고인돌은 산막마을 회관에서 북동쪽으로 65m 떨어진 유자나무 밭 가운데에 3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아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구룡사면으로 마을과 북쪽의 산막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고인돌군은 삼각형의 형태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덮개돌의 장축은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 방향에 가깝다.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곳을 ‘독배기’, ‘당산뎬’라 부른다고 한다.



산막 고인돌군2 전경(남동쪽에서)



11. 송석리 송석 고인돌군

 위치 마산면 송석리 407-2

고인돌은 기존 조사자료에 따르면 송석리 노인회관에서 북쪽으로 130여 m 떨어진 민가 뒤쪽의 대나무 숲에 11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곳은 만대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되며, 북·동쪽으로 휘감아 흐르는 옥천천을 내려다 보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경작으로 인한 경지정리 과정에서 덮개돌이 모두 이동되어 남아있지 않다. 기존조사에서는 대체로 북동-남서 방향 2열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덮개돌은 대나무 숲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형 또는 장방형의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6, 7호 고인돌은 받침돌이 각각 1개씩 확인되며, 11호 고인돌의 덮개돌에서는 성혈이 확인된다.



송석 고인돌군 훼손 전경

12. 외호리 외호 고인돌군

 위치 마산면 외호리 182


맹진리에서 외호리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면 진양축산 입구가 나오는데, 고인돌은 여기서 서쪽으로 350여 m 떨어진 축사 북쪽 밭 가운데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10m 간격을 두고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만대산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구릉의 사면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다 큰 덮개돌은 1호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2기 모두 하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산막 고인돌군2 전경(남동쪽에서)



13. 용전리 고암 고인돌군1

 위치 마산면 학의리 343-2

고암마을과 육일시마을 중간 도로변에 농협창고가 있는데, 고인돌은 이 창고에서 북쪽으로 200여 m 떨어진 민가 주변에 북서-남동 방향 1열로 5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뺀 산사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1, 2호 고인돌은 받침돌이 각각 2~4개가 확인되었고, 2호 북동쪽 소로변에 있는 3호 고인돌은 한쪽면만 드러나 있다. 4, 5호 고인돌은 신축된 민가 뒤쪽에 있는데, 4호는 세워져 있고, 5호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1986년에 ‘고암 고인돌 A군’으로, 1996년에는 ‘학의리 고암 고인돌 가’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 조사 당시 행정구역명에 따라 ‘용전리 고암 고인돌군’으로 정정되었다.



고암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50×180×11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 3개가 확인된다.



● 2호 고인돌

밭의 중간에 위치하며, 고인돌군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430×350×310cm이다.



● 3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40×130cm이다. 소로변의 축대 일부로 사용되어 측면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 5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4호 고인돌과 나란히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20×210×210cm이다. 민가의 담장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14. 용전리 고암 고인돌2


위치 마산면 용전리 103-2

고인돌은 고암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100여 m 떨어진 민가 뒤쪽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야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산사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1986·1996년에는 각각 ‘고암 고인돌 B군’과 ‘고암 고인돌 나’로 보고되었는데, ‘할미바위’라 불리며 매년 제사를 지낸다고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다. 현재 고인돌은 대나무 숲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인돌로 진입했던 소로는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깎여나가 현재는 진입할 수 없다. 기존보고자료에 따르면 괴석형인 덮개돌의 평면은 타원형으로 보이며, 하부에는 받침돌로 추정되는 석재 2개가 있는데, 그 중 석재 1개는 드러나 있는 규모가 60×45cm 정도로 대형이다. 덮개돌의 규모는 660×430×300cm로 대형에 속하고, 1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묘표석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암 고인돌2 전경(남동쪽에서)

15. 학의리 학의 고인돌군

 위치 마산면 학의리 952

고인돌은 학의마을 민가(944번지) 옆 밭둑에서부터 서쪽으로 380여 m 떨어진 밀양박씨 묘로 올라가는 소로변까지 대략 400여 m에 걸쳐 1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아산의 남쪽 사면에 해당되며, 비교적 높은 곳에 있어 주변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형이다. 고인돌은 민묘조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이동되어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1~5호, 7호 고인돌은 밭둑에 기울어져 있거나 묻혀 있고, 6호 고인돌은 광산김씨 묘 주변에 세워져 있다. 8호 고인돌은 지석이 1개 확인되나, 단애면에 있어 붕괴위험이 있으며, 10, 11호는 소로변에 밀려나 있다. 덮개돌은 경작으로 인해 대부분 훼손·이동된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 100cm 이하의 석재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덮개돌로 추정된다. 고인돌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위치하며, 동-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학의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180×190×1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발독에 걸쳐서 확인된다.



● 2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 고인돌과는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180×140×100cm이다.



● 6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중앙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10×40×60cm이다. 민묘의 조경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8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에 위치하며, 유적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390×280×220cm이다. 발 단애면에 걸쳐서 위치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다.



16.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1

 위치 마산면 화내리 396-3

마산면사무소에서 서쪽으로 450여 m 떨어진 곳에 석장저수지가 있고, 고인돌은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170여 m 떨어진 진주류씨 묘 주변에 3기가 위치하고 있다. 기 조사에서는 11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기만 확인되었다. 밭 경작과 민묘 조성 등으로 인해 훼손·이동되고, 수풀에 덮여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1·2호는 하부가 일부 혹은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며, 3호 하부에서 판석재가 확인되나 하부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변지역은 경작 등으로 인해 계단식으로 삭평되어 있었으며, 현재 잔존하고 있는 3기 역시 민묘 조성과정에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안정 고인돌군1 전경(남쪽에서)




2호



3호

17.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2

 위치 마산면 화내리 1163-3

고인돌은 1986년 조사에서 마산중학교에서 북쪽으로 200여 m 떨어진 화내리-연구리 간 도로 우측 논에 고인돌 8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 후 2002년 조사에서는 경지정리 과정에서 모두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인돌이 위치했던 곳은 역마산에서 북동쪽으로 흘러내린 구룡의 말단부 평지에 해당되며,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곳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안정 고인돌군2 전경

황산면



○ 황산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송호리 명당 고인돌군	9	9	9	9	
2	호동리 고인돌		1	1	0	발굴
	총 2개 군	9	10	10	9	

○ 발굴유적

	유적명	소재지	조사현황	비고
2	호동리 고인돌	황산면 호동리 산210-9 (이전복원 : 황산면 호동리 200-1)	덧개돌(上石) 1기 무덤방(墓室) 0기	이전 · 복원

01. 송호리 명당 고인돌군

위치 황산면 송호리 산66

고인돌은 송호리 송호저수지 서쪽 구릉에 9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명당봉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다. 1986·1996년에 ‘송호리 명당골 고인돌군’으로 보고되었으며, 2002년 조사에서 행정구역명에 따라 ‘송호리 명당 고인돌군’으로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덮개돌은 북동-남서 방향 2열로 분포하고 있는데, 민묘 조성으로 인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2호 고인돌만 받침돌 1개가 육안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하부가 묻혀 있어 현황파악은 어렵다. 1986년에 석실이 노출된 2기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수풀이 우거져 확인할 수 없다.



명당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 2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북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400×290×6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덮개돌 아래에는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3호 고인돌

2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약 5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20×210×50cm이다. 덮개돌 아래는 묻혀있다.



● 5호 고인돌

산사면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60×140×2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하부는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 6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310×210×35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대부분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산이면

- 
- 3. 대전리 지사 교인돌군 •
 - 4. 대전리 원창 교인돌군 •
 - 5. 대전리 주산 교인돌 •
 - 8. 전산리 신정 교인돌 •
 - 9. 초송리 비석 교인돌군 •
 - 7. 송천리 송천 교인돌군 ② •
 - 6. 송천리 송천 교인돌군 ① •
 - 2. 노송리 노송 교인돌군 ② •
 - 1. 노송리 노송 교인돌군 ① •



○ 산이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노송리 노송고인돌군1	13	13	7	7	
2	노송리 노송 고인돌군2	7	7	1	0	훼손
3	대진리 지사 고인돌군	2	2	4	4	
4	대진리 원항 고인돌군	19	19	16	16	
5	대진리 주산 고인돌	1	1	0	0	훼손
6	송천리 송천 고인돌군1	20	20	12	12	
7	송천리 송천 고인돌군2	7	7	0	0	훼손
8	진산리 신정 고인돌	1	1	0	0	훼손
9	초송리 비석 고인돌군	4	4	1	0	훼손
	총 9개 군	74	74	41	39	

01. 노송리 노송 고인돌군1

 위치 산이면 노송리 127-2

고인돌은 학의마을과 노송마을 사이 도로변에 3기, 이곳에서 남쪽으로 100여 m 떨어진 일명 ‘청룡등’이라 불리는 구룡의 김해김씨 묘 주변에 4기 등 총 7기가 위치하고 있다. 기 조사에서 옛 ‘씨름터’에 있다는 4기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3호 고인돌은 주성산 남쪽으로 뻗은 능선의 나지막한 고갯마루로 소로 개설로 인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4~7호 고인돌은 구룡 정상부에 위치하여 주변을 조망할 수 있다. 주위에 자연암반과 함께 괴석 수 개가 산재하고 있다.



노송 고인돌군1 전경(북서쪽에서)

● 1호 고인돌

소로변에 자리한다. 덮개돌은 $180 \times 120 \times 60\text{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하부는 묻혀 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나란하게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170 \times 110 \times 50\text{cm}$ 이다. 소로 공사 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 5호 고인돌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50 \times 210 \times 10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7호 고인돌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50 \times 200 \times 17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2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고인돌군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02. 노송리 노송 고인돌군2

 위치 산이면 노송리 319-1

고인돌은 노송마을 북쪽 끝 민가(노송길 13-4번지)의 서쪽 밭 측, 노송리사무소에서 북서쪽으로 140여 m 떨어진 밭 모서리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1986·1996년에는 동-서 방향 1열로 7기가 있다고 확인되었으나, 2002년에는 경지정리로 모두 파괴되고 1기만 밭둑에서 확인되었다. 2017년도에도 1기만 확인되었고, 기 조사 사진과 비교하면 다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돌이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1986년에는 ‘원부락 고인돌군’으로 보고되었다.



노송 고인돌군2 전경

03. 대진리 지사 고인돌군

위치 산이면 대진리 산22-5

고인돌은 지사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110여 m 떨어진 민묘 주변에 4기가 위치하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는 자연석과 함께 2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곳은 덕송리에서 대진리까지 뺀 해발 20여 m의 구릉정상부에 해당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1, 3호 고인돌은 기울어져 있고, 2호 고인돌은 덮개돌 일부가 훼손되어 있으며, 4호 고인돌은 일부 매몰되어 있다. 경작과 민묘 조성 등의 원인으로 모두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지사 고인돌군 전경

● 1호 고인돌

덧개돌은 150×85×5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덧개돌은 기울어져 있으며, 하부에서는 잡석이 확인된다.




● 2호 고인돌

1호 고인돌과 나란하게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덧개돌의 크기는 150×90×50cm이다. 받침돌이 없는 기반식 고인돌로 판단된다.



04. 대진리 원항 고인돌군

 위치 산이면 대진리 716-17

고인돌은 대진보건진료소에서 산이면소재지로 가는 길에 나오는 산이서부교회 건너편에 있는 전주이씨 묘 주변에 16기가 위치하고 있다. 1986·1996·2002년에는 19기로 보고되었다. 고인돌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일부 민묘 조성으로 이동된 것도 있다. 대부분의 덮개돌은 묻혀 있거나 기울어져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주변에 고인돌의 덮개돌과 동일한 석재가 산재해 있다.



원항 고인돌군 전경(남동쪽에서)

● 1호 고인돌

민묘 주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170×130×5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 2호 고인돌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180×110×60cm이다. 하부는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 3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260×205×5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하부구조는 묻혀있다. 고인돌과 인접하여 나무가 자라고 있다.



● 5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190×130×4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받침돌이 없는 기반식 고인돌이다.



● 9호 고인돌

민묘주변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120×90×45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이다. 받침돌이 없는 기반식고인돌이다.



● 10호 고인돌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100×100×40cm이다. 하부는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 11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240×180×80cm이며,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 15호 고인돌

덮개돌의 크기는 270×170×11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1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고인돌군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05. 대진리 주산 고인돌


위치 산이면 대진리 38-6

기존 조사 결과를 보면, 고인돌은 주산마을 뒤쪽 해남-상공간 지방도로 우측에 있는 앞 까끔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구릉 정상에 3기가 있었으나, 부근 방조제 공사로 2기는 파괴되고 1기만 남아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7년과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고인돌이 위치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은 밭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보고에 의하면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었고, 주변에서 석축과 돌가래가 수습되었다고 한다.



주산 고인돌 전경

06. 송천리 송천 고인돌군1

 위치 산이면 송천리 448-5

고인돌은 송천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500여 m 가면 나오는 여흥민씨 묘역 주변에 12기가 위치하고 있다. 1986·1996·2002년에는 20기로 보고되었으나, 민묘 조성과 경작지 개간 등으로 인해 일부가 유실되었다. 이곳은 나지막한 구릉 정상부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덮개돌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2열을 이루고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2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세 조각으로 파괴되었다. 덮개돌의 하부가 묻혀있기는 하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고인돌에 손대면 화를 입는다고 하여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편이다.



송천 고인돌군1 전경(직상방향)

● 4호 고인돌

덧개돌은 225×100×3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이다. 받침돌이 없는 기반식고인돌이다.



● 5호 고인돌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며 덧개돌의 크기는 320×280×30cm이다. 하부는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 9호 고인돌

덧개돌의 크기는 400×310×7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1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 12호 고인돌

덧개돌의 크기는 320×2100×80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덧개돌 아래에서 받침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07. 송천리 송천 고인돌군2

 위치 산이면 송천리 519-15

고인돌은 1986·1996년에 ‘송천리 고인돌 A군(가군)’에서 남쪽으로 100m 지점의 야산 구릉에 있는 농로 좌우에 7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2002년 조사에서는 농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모두 유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고인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송천리 송천 고인돌 가군’에서 북서쪽으로 200여 m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고,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기존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장 큰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며, 모두 받침돌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송천 고인돌군2 전경

08. 진산리 신정 고인돌


 위치 산이면 진산리 349-1

1986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신정마을에서 남서 방향으로 150여 m 떨어진 논 가운데에 고인돌 1기가 위치한다고 하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인돌이 위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은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조사에 의하면 1985년 여름에 누군가가 밀폐되어 있던 하부를 노출시켜 동-서 단벽을 이루는 벽석이 드러났었다고 한다.



신정 고인돌 전경

09. 초송리 비석 고인돌군

 위치 산이면 초송리 산51-9

고인들은 산이면소재지에 있는 산이중학교에서 남동쪽으로 320여 m 떨어진 김○○ 씨 민가 마당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1986·1996년에는 민묘와 함께 4기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2002년에는 민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파괴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고인들의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 1개가 정원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변에는 자연석과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산재하고 있다.



초송리 비석 고인돌군 전경

문내면

- 
1. 교당리 교당 고인돌군 •
2. 교당리 고대 고인돌군 •
3. 석교리 신창 고인돌군 •
4. 석교리 석교 고인돌군 •
5. 선두리 원동 고인돌군 •
6. 충평리 충평 고인돌군 •



○ 문내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고당리 고당 고인돌군	2	2	2	2	
2	고당리 고대 고인돌군	2	0	1	1	
3	석교리 신창 고인돌군			8	8	
4	석교리 석교 고인돌군	7	7	6	5	
5	선두리 원동 고인돌군	2	0	0	0	훼손
6	충평리 충평 고인돌군	10	10	10	10	
	총 6개 군	23	19	27	26	

01. 고당리 고당 고인돌군

 위치 문내면 고당리 274

고인돌은 문내초등학교(폐교)에서 북서쪽으로 260여 m 떨어진 밭 가운데에 남-북 방향 1열로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일성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완만한 구릉사면에 해당된다. 1986·1996년에는 ‘고당리 고전 고인돌군’으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도 조사에서 행정구역명에 따라 ‘고당리 고당 고인돌군’으로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1호 고인돌은 하부가 묻혀 있어 받침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덮개돌의 크기는 250×125×75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2호 고인돌은 덮개돌 일부가 깨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260×255×13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받침돌은 3개가 확인된다.



고당 고인돌군 전경(동쪽에서)



1호



2호

02. 고당리 고대 고인돌군

위치 문내면 고당리 49

고인돌은 고당마을과 고대마을 사이 북쪽에 있는 고당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100여 m 떨어진 소로변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1986·1996년 조사자료에는 고대부락 뒤 구릉에 2기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나 2017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1기만 확인되었다. 이곳은 일성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되며, 마을과 앞 바다(현 금호호)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덮개돌은 뒤집어진 상태로, 소로개설로 인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170×125×110cm이다. 구릉 주변으로는 자연암반과 고인돌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고대 고인돌군 전경(남서쪽에서)과 1호 고인돌

03. 석교리 신창 고인돌군

 위치 문내면 석교리 689

고인돌군은 신창마을회관에서 남동쪽으로 130여 m 떨어진 마을입구 발에 8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호암산 남쪽 산사면의 말단부 끝자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고인돌은 발경작 등으로 밭둑에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1~4호 고인돌은 동-서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으며, 6~8호 고인돌은 삼각형군집을 이루고있다. 대부분이 밭둑면에 묻혀있고, 6·8호 고인돌은 받침돌이 확인된다.



신창 고인돌군 전경(직상방향)

● 2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180×130×65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이동되어 하부구조는 파악할 수 없다.



● 5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225×110×40cm이다. 고인돌군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 6호 고인돌

5호 고인돌에서 남동쪽으로 5m 정도 떨어져서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20×100×5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8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95×145×50cm이며,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2개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04. 석교리 석교 고인돌군

위치 문내면 석교리 422

고인돌은 ‘문내원동사거리’에서 북서쪽 석교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5기가 있다. 고인돌 5기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서쪽 3기는 농로 공사로 이동되어 수풀에 묻혀 있다. 기존에 6기로 보고 되었으나 현재는 5기만 남아있다. 대부분의 덮개은 수풀에 묻혀 있으며, 장방형과 타원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2호 고인돌은 네 조각으로 파괴되어 있으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5호도 두 조각으로 파괴되어 있고, 5기 모두 하부가 묻혀 있어 받침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당 고인돌군 전경(동쪽에서)


● 1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70×200×5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고인돌군 내에서 비교적 잘 남아있는 덮개돌이다.



1호

05. 선두리 원동 고인돌군

 위치 문내면 용암리 원동마을 일원(1889-1 추정)

고인돌은 1986·1996년에 해남에서 우수영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원동마을 800여 m 못 미쳐 도로 우측 야산에 2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기 조사에 의하면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사교교차로에서 북서쪽으로 200여 m 떨어진 곳으로, 현재 이 주변은 비닐하우스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1986년 보고에 따르면 1호 고인돌은 기울어져 하부가 드러나 있는데, 50×10cm의 판석 3개가 맞대어 있었다고 한다.



원동 고인돌군 전경

06. 충평리 충평 고인돌군

 위치 문내면 충평리 산68

고인돌은 충평마을회관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여 m 떨어진 진주강씨 묘역 주변에 10기가 위치 하고 있다. 이곳은 충평마을에서 신평마을로 넘어가는 나지막한 고갯마루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1986·1996년에는 ‘충평리 중평 고인돌군’으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 조사에서 행정구역명에 따라 유적명이 정정되었다. 고인돌은 남-북 방향 2열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m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충평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3호 고인돌

덧개돌은 일부가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220×155×40cm 크기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받침돌 1개가 확인된다.



● 5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덧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580×330×40cm이다. 고인돌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 7호 고인돌

5호 고인돌에서 남서쪽으로 10m 정도 떨어져서 자리한다. 덧개돌의 크기는 310×190×50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덧개돌 아래에서 판석이 1개 확인된다.



● 8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남쪽에 위치한다. 덧개돌의 크기는 470×250×55cm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덧개돌 아래로 170×130×40cm 규모의 이중개석이 확인된다.



화원면



○ 회원면 고인돌 목록

	유적명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영호리 장재 고인돌군	7	4	1	1	
2	영호리 저상 고인돌군1			2	2	
3	영호리 저상 고인돌군2			2	2	
4	장춘리 장평 고인돌군		6	6	5	
	총 4개 군	7	10	11	10	

01. 영호리 장재 고인돌군

 위치 화원면 영호리 868

고인돌은 화원면 영호리 77번 국도에서 조선소길로 갈라지는 삼거리 김해김씨 묘 앞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동쪽의 지령산과 서쪽의 운거산 사이의 나지막한 고갯마루에 해당된다. 1986년에는 발둑으로 밀려난 7기의 고인돌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후 2002년 조사에서는 3~4기가 확인되었으며, 2017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1기만 확인되었다. 덮개돌은 도로가 갈라지는 곳에 기울어져 있으며, 받침돌 아래에서 70cm 크기의 받침돌이 1개 확인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크기는 275×270×110cm이다.



장재 고인돌군 전경(남동쪽에서) 및 1호 고인돌

02. 영호리 저상 고인돌군1

위치 화원면 영호리 135-1

고인돌은 저상마을 서쪽 끝에 위치한 진○○씨 민가 담장 하단과 소로 주변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지령산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 말단부에 해당되는데, 비교적 지형이 높아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밭과 마을 내에 많은 고인돌이 있었으나 파괴되었다고 한다. 1호 고인돌은 민가 담장의 하단에 있는데 일부 노출되어 있다. 할석 여러 개가 확인되나 받침돌은 2개 정도로 보인다. 노출된 덮개돌의 크기는 170×120×50cm이다. 2호는 이동되어 소로변에 묻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저상 고인돌군1 전경(직상방향)



1호



2호

03. 영호리 저상 고인돌군2

위치 문내면 석교리 689


고인돌은 저상마을 입구에 있는 목민교회에서 남쪽으로 230여 m 떨어진 곳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지령산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완만한 평지에 해당되며, 남동쪽으로 간척된 해안선이 보인다. 덮개돌은 모두 파괴되어 발둑으로 이동되어 있다. 1호 고인돌은 ‘영호리 저상 고인돌 가군’에서 남서쪽으로 410m 정도 떨어져 있다. 잡석에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주변 밭에 여러 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경지정리 과정에서 모두 매몰시켰다고 한다.



저상 고인돌군2 전경(직상방향)



04. 장춘리 장평 고인돌군

 위치 화원면 장춘리 540-2

고인들은 장춘교차로에서 남동쪽으로 300여 m 떨어진 장평마을로 진입하는 소로변에 6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일성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지맥의 남서쪽 능선 정상부 주변 지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주변 민묘조성으로 인해 이동된 듯하며, 대부분 묻혀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 덮개돌은 수풀이 우거져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북서-남동 방향 2열로 분포하고 있다.



장평 고인돌군 전경(남쪽에서)

● 1호 고인돌

유적의 가장 북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280 \times 180 \times 30\text{cm}$ 크기로,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하부가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 3호 고인돌

1호 고인돌에서 남동쪽으로 약 7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삼각형이며, 크기는 $200 \times 130 \times 35\text{cm}$ 이다. 받침돌은 확인할 수 없다.



● 4호 고인돌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30 \times 250 \times 6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덮개돌의 일부가 묻혀있으며, 주변으로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



● 5호 고인돌

고인돌군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55 \times 170 \times 100\text{cm}$ 이며,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다. 하부가 묻혀있어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4장

해남의 고인돌 문화



1. 해남의 고인돌 분포와 특징

1) 해남군 고인돌 현황

해남군 고인돌에 대한 종합적인 분포조사는 1986년(1,022기), 2012년(1,151기), 2017년(950기), 2020년(934기)에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파괴되거나 유실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고인돌들이 적지 않다. 2020년 조사에서 확인된 고인돌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4차례의 종합 분포조사 가운데 수량이 가장 적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들을 통해 해남군에서 조사된 고인돌의 최다 군집수와 최다 기수를 산출해보았는데, 118개 군 1,302기로 추산된다. 물론 이중에는 이미 유실되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들도 상당 수 있다(표 1).

표 1. 해남군의 고인돌 현황

연번	읍면	고인돌 조사 현황				종합분석		
		해남군의 문화유적 (1986)	문화유적 분포지도 (2012)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7)	대한문화재 연구원 (2020)	최다 군집수	최다 기수	군집 평균기수
1	해남읍	30	55	30	54	7	69	9.9
2	삼산면	43	61	49	50	11	72	6.5

3	화산면	141	135	127	126	7	144	20.6
4	현산면	298	351	308	308	18	373	20.7
5	송지면	28	59	31	25	9	64	7.1
6	북평면	0	0	0	0	0	0	0
7	북일면	27	20	32	32	1	32	32
8	옥천면	160	167	140	125	21	201	9.6
9	계곡면	60	57	36	34	6	61	10.2
10	마산면	122	134	108	95	17	152	8.9
11	황산면	9	10	10	10	2	10	5.0
12	산이면	74	74	41	39	9	76	8.4
13	문내면	23	19	27	26	6	31	5.2
14	화원면	7	10	11	10	4	17	4.3
합계		1,022	1,152	950	934	118	1,302	11

해남군 고인들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읍·면별로 군집수와 기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해남군 중동부의 옥천면·마산면과 서남부의 현산면·화산면에는 고인들이 많지만 서북부의 산이면·화원면·문내면·황산면에는 고인들이 많지 않다. 동남부에 있는 북일면과 북평면 역시 고인들이 많지 않다. 옥천면·현산면·마산면에는 17~21기씩의 고인돌군이 분포하지만 화원면·황산면·북일면에는 고인돌군이 1~4기씩만 확인된다. 고인돌 기수는 현산면이 단연 으뜸인데, 200기에 달하는 해남 읍호리·황산리 고인돌군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읍·면별 고인돌군의 군집수와 기수의 순위는 중대형이나 대형 고인돌군의 유무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도표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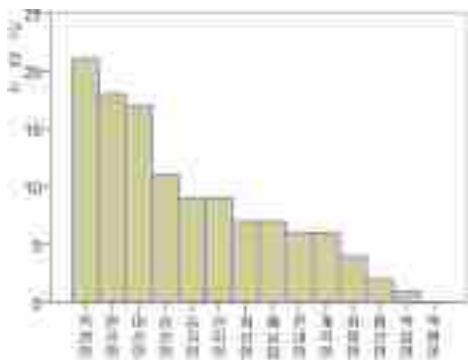


도표 1. 읍·면별 고인돌 군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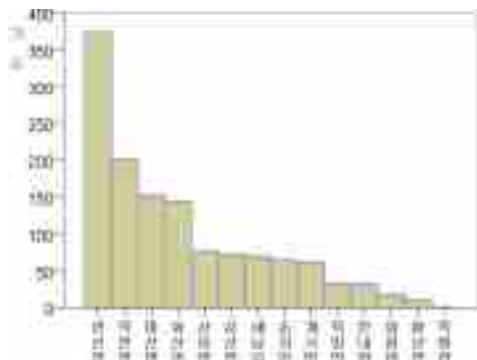


도표 2. 읍·면별 고인돌 기수

해남군 고인돌은 1개 군집당 평균 11기 내외씩 분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고인돌군의 기수를 5의 배수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았다(도표 3). 이를 보면, 1~5기인 고인돌군은 51개 군이고, 6~10기인 고인돌군은 34개 군이어서 10기 이하인 고인돌군이 85개 군에 달해서 해남군 전체의 72% 정도를 차지한다. 11~15기인 고인돌군은 11개 군, 16~20기인 고인돌군은 8개 군, 21~25기인 고인돌군은 6개 군이어서 해남군 전체의 21% 정도를 차지한다. 26~35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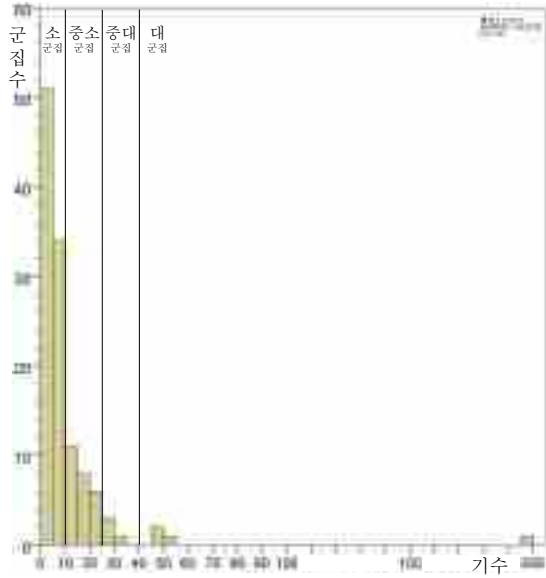


도표 3. 해남군 고인돌의 기수별 군집수

고인돌군은 4개 군이며, 41기 이상인 고인돌군도 4개 군이어서 각각 3%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해남군의 고인돌군은 군집수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1~10기는 소형 군집, 11~25기는 중소형 군집, 26~40기는 중대형 군집, 41기 이상은 대형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남군 고인돌의 전체적인 분포양상과 군집의 크기를 지도상에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해남군의 고인돌은 중동부에 있는 옥천면을 기준으로 해서 서북쪽과 서남쪽 방향으로 선상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해남군 고인돌의 전체적인 분포양상은 넓혀 놓은 U자형을 띠며, 이 선상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고인돌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즉, 해남군에서 고인돌은 옥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쪽으로는 마산면, 서남쪽으로는 화산면과 현산면까지 밀집분포하며, 이 지역을 벗어나면 고인돌의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해남군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곳은 옥천면·마산면과 화산면·현산면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옥천면·마산면에는 소형~중대형 군집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 비해서 화산면·현산면은 군집수는 많지 않지만 중대형·대형 군집이 확인되기 때문에 고인돌의 분포밀도가 올라간다. 이러한 해남군 고인돌의 분포양상을 보면, 고인돌은 해남군

에 등장한 이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양상은 읍·면별 고인돌 분포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해남군 고인돌 분포 현황

2) 읍·면별 고인들의 분포양상

(1) 해남읍

해남읍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4개 군 30기, 2012년 조사에서 5개 군 55기, 2017년 조사에서 6개 군 30기, 2020년 조사에서 7개 군 51기의 고인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군집수와 기수에 변동이 있다. 이는 기존에 찾아졌던 고인들이 유실되고, 또 새로운 고인들이 찾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해남읍에서는 지금까지 7개 군 69기의 고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표 2). 이 중 소형 군집이 5개 군, 중소형 군집이 2개 군이다(도표 4). 그러므로 해남읍은 고인들이 많은 편은 아니며, 군집의 크기도 소형과 중소형뿐이다.

해남읍에서 발굴된 고인들은 안동리 고인돌군에서 조사된 1기뿐이다. 이 고인들은 덮개돌의 규모가 길이 540cm, 너비 390cm, 높이 191cm이고, 무게가 56톤에 달하는 초대형이어서 웅장한 모습을 보인다. 덮개돌 아래에서 타원형으로 돌아가는 궤돌 6개만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¹⁷

표 2. 해남읍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비고
		1986	2012	2017	2020		
1	고도리 호천 고인돌	1	0	1	0		고인돌 ×
2	백야리 백야 고인돌군		5	3	3	5	
3	신안리 생미 고인돌군				7	7	저수지내 위치
4	신안리 신안 고인돌군	20	20	11	14	20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28호
5	안동리 고인돌				7	7	1기 발굴조사
6	연동리 연동 고인돌군	2	10	4	4	10	
7	용정리 송용 고인돌군	7	16	10	10	16	
8	용정리 용정 고인돌군		4	1	1	4	
합계		30	55	30	51	65	

17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8, 「해남 안동-남송간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유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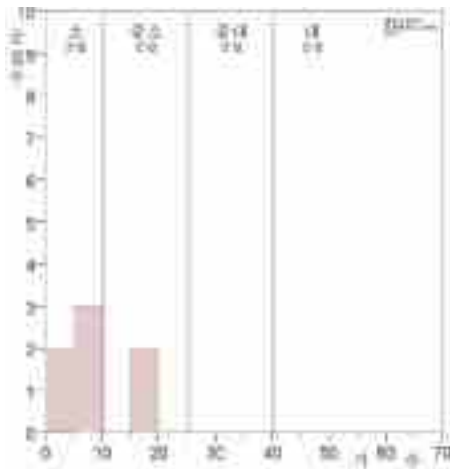


도표 4. 해남읍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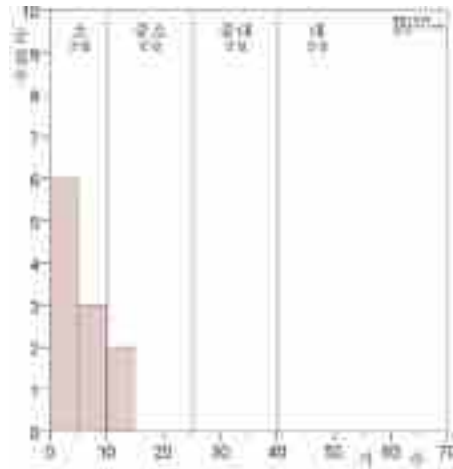


도표 5. 삼산면 고인돌 현황

(2) 삼산면

삼산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5개 군 43기, 2012년 조사에서 11개 군 60기, 2017년 조사에서 11개 군 49기, 2020년 조사에서 11개 군 50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고인돌의 군집수와 기수가 약간씩 달라졌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삼산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11개 군 72기이다(표 3). 소형 군집이 9개 군으로 대부분이며 나머지 2개 군도 중소형 군집이다(도표 5). 그러므로 삼산면은 고인돌이 많지 않은 편이며, 군집의 크기도 소형과 중소형뿐이다. 삼산면에서 고인돌은 아직까지 발굴 조사된 바 없다.

표 3. 삼산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1986	2012	2017	2020	
1	봉학리 봉학 고인돌군		4	3	3	4
2	봉학리 신금 고인돌군		3	3	3	3
3	상가리 계동 고인돌군	7	7	7	7	7
4	상가리 중리 고인돌군	15	5	5	5	15

5	송정리 저산 고인돌군	2	2	2	2	2
6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1	4	2	2	2	4
7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2		2	1	2	2
8	신흥리 상금 고인돌		1	1	1	1
9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1		10	8	8	10
10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2		10	7	7	10
11	원진리 원진 고인돌군	15	15	10	10	15
합계		43	60	49	50	72

(3) 화산면

화산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7개 군 141기, 2012년 조사에서 7개 군 135기, 2017년 조사에서 7개 군 127기, 2020년 조사에서 7개 군 126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수량이 약간씩 달라졌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화산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7개 군 144기이다(표 4). 소형 군집이 4개 군으로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중소형 군집이 1개군, 50기 내외의 대형 군집이 2개 군이다(도표 6). 그러므로 화산면에서 고인돌은 소형, 중소형, 대형 군집이 고르게 분포하며, 군집수에 비해 기수가 많다. 화산면에서 고인돌은 아직까지 발굴 조사된 바 없다.

표 4. 화산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조사 현황				최다 기수	비고
		1986	2012	2017	2020		
1	방축리 방축 고인돌군	10	3	3	3	10	
2	방축리 석전 고인돌군	2	2	2	2	2	
3	방축리 고인돌군	53	53	50	55	55	전라남도 기념물 제115호(1987.9.8.)
4	부길리 은산 고인돌군1	7	7	5	5	7	
5	부길리 은산 고인돌군2	6	6	5	5	6	
6	연정리 고인돌군	47	48	48	48	48	전라남도 기념물 제16호(1977.5.15.)
7	해창리 해창 고인돌군	16	16	14	8	16	
합계		141	135	127	126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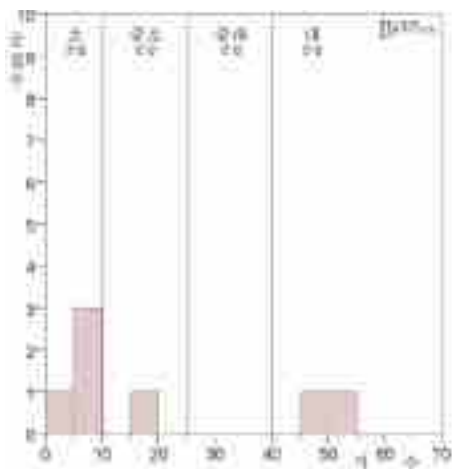


도표 6. 화산면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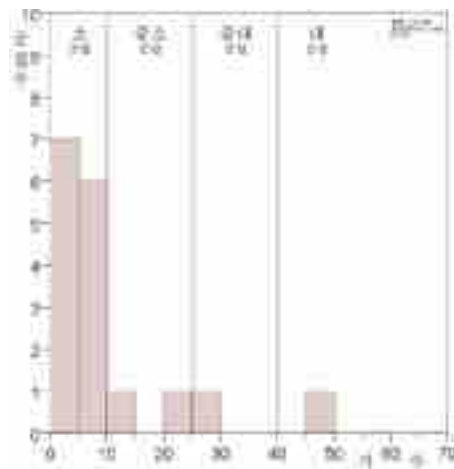


도표 7. 현산면 고인돌 현황

(4) 현산면

현산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12개 군 298기, 2012년 조사에서 18개 군 351기, 2017년 조사에서 18개 군 308기, 2020년 조사에서 18개 군 308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수량이 약간씩 다르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현산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들은 모두 18개 군 373기이다(표 5). 고인돌군은 크기가 다양해서 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초대형 군집이 모두 확인된다. 그중 소형 군집이 13개 군으로 2/3 이상이며, 중소형 군집이 2개 군, 중대형 군집이 1개 군, 대형·초대형 군집이 2개 군이다(그림 7).¹⁸ 그러므로 현산면의 고인돌 분포현황은 인접해 있는 삼산면과 상당히 유사하며, 해남군에서 고인돌 군집수와 기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표 5. 현산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대 기수	비고
		1986	2012	2017	기타	2020		
1	고현리 고인돌		1	1		1	1	발굴조사
2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1	8	8	8		8	8	

18 200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읍호리·황산리 고인돌군은 <도표 7>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3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2	12	12	8		8	12	
4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3	25	25	26		26	26	
5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1		2	2		2	2	
6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2		9	2		0	9	채석장
7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1	4	1	1		0	4	
8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2	6	6	6		8	8	
9	백포리 백포 고인돌군	6	6	0		0	6	
10	월송리 월송 고인돌군	10	8	6		6	10	
11	월송리 증산 고인돌군	2	2	2		2	2	
12	월송리 향교 고인돌군		6	6		6	6	
13	읍호리 고담 고인돌		1	1		1	1	
14	읍호리·황산리 고인돌군	200	200	200		200	200	채석장
15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1	1	3	2		2	3	
16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2	3	50	13		13	50	
17	일평리 일평 고인돌군		3	2		2	3	
18	초호리 초호 고인돌군	21	8	22		22	22	
	황산리 분토유적				4			발굴·이전복원
	합계	298	351	308	4	308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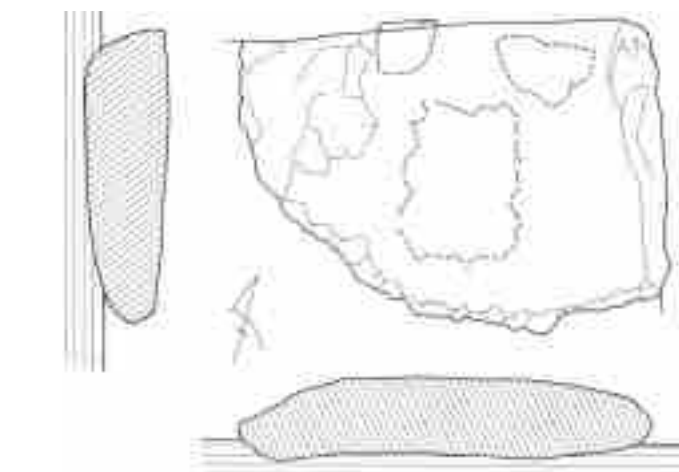
현산면에서는 고현리와 황산리 분토유적에서 고인돌과 석관·석곽묘가 발굴조사되었다.

고현리 고인돌은 1995년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되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원래 이 일대에는 3~4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나, 발굴 당시에는 1기만 남아있었다. 고인돌 1기와 덮개돌이 없이 확인된 하부구조 1기가 발굴 조사되었다(그림 2).¹⁹⁾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길이 548cm, 너비 388cm, 두께 70cm의 규모이며 무게가 65톤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무덤방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남-북(N8°E)이다.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140~150cm, 깊이 20~40cm이다. 켜들은 4개가 확인되었지만 무덤방 주변에 더 많은 켜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호 묘실은 1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410c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농수로를 개설하면서 절반 정도 파괴되었다. 무덤방 장벽은 할석으로 쌓았으며, 단벽은 판석 1개

19 이영문·이정호, 1998, 『해남 고현리 지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1호 지석묘 상석



2호 묘실



1호 지석묘 하부구조



그림 2. 해남 고희리 고인돌군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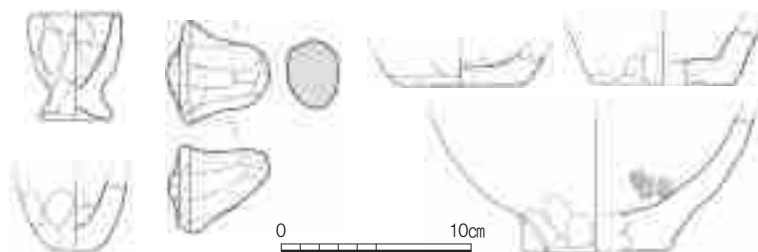


그림 3. 해남 고희리 고인돌군 2호 묘실 출토유물

를 세워 축조하였다. 바닥은 작은 돌로 깔았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남-북(N13°W)으로 1호 고인돌과 비슷하다.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80cm, 깊이 60cm 정도로 추정된다. 무덤방 바깥쪽으로는 판석을 깔아 묘역을 구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덤방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지만 주변에서 소형대부토기 1점, 우각형과수 1점, 무문토기 바닥편 4점 등이 수습되었다(그림 3). 이러한 유물들은 기원전후부터 기원후 2세기경의 토기들이다. 보고자는 이러한 유물들이 고인돌의 부장유물은 아니더라도 고인돌과 관련된 유물들로 보았다. 해남군 고인돌의 하한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유물들로 생각된다.

황산리 분토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5기와 함께 고인돌 1기, 석관·석곽묘 4기가 발굴 조사되었다(그림 4).²⁰ 고인돌 덮개돌은 평면 방형, 단면 장방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200cm, 두께 50cm이다. 하부에서는 판석과 할석들이 노출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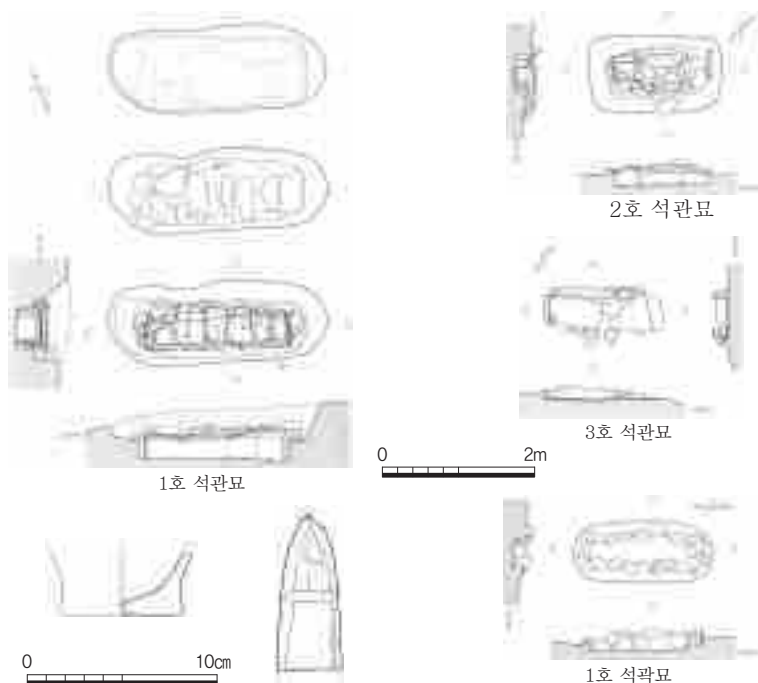


그림 4. 해남 황산리 분토 고인돌군의 유구와 출토유물

20 전남문화재연구원, 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만 매장주체부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덮개돌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무문토기 바닥편이 수습되었다.

1호 석관묘는 2단 토광을 파고, 2단부에 석관을 안치하였다. 무덤방은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10cm 정도의 판석을 부분적으로 깔았다. 뚜껑돌은 3층으로 덮었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동-서($N71^{\circ}W$)여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28cm, 높이 25~28cm이다. 무덤방 안에서 석검 1점이 출토되었다. 봉부 쪽 신부 일부만 남아있는데, 신부는 매우 얇게 제작되었고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이다. 크기는 남은 길이 8.2cm, 너비 3.0cm, 두께 0.6cm이다.

2호 석관묘는 반지하식이다. 무덤방은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판석과 할석을 전면에 깔았다. 뚜껑돌은 판석 3개로 덮었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42^{\circ}E$)여서 등고선과 나란하다. 규모는 길이 120cm, 너비 20cm, 높이 15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호 석관묘는 반지하식이다. 무덤방은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전면에 판석을 깔았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50^{\circ}E$)여서 등고선과 나란하다. 규모는 길이 150cm, 너비 40cm, 높이 18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호 석곽묘는 반지하식이다. 무덤방은 30cm 정도의 할석을 1~2단으로 쌓아 축조하였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무덤방의 장축방향은 남-북($N2^{\circ}W$)이어서 등고선과 나란하다. 규모는 길이 127cm, 너비 20~25cm, 높이 15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5) 송지면

송지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6개 군 28기, 2012년 조사에서 9개 군 59기, 2017년 조사에서 9개 군 31기, 2020년 조사에서 10개 군 31기의 고인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수량이 약간씩 다르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송지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들은 모두 9개 군 64기이다(표 6). 소형 군집이 8개 군으로 대부분이며, 28기인 중대형 군집이 1개소이다(도표 8). 그러므로 송지면은 해남군에서 고인들의 군집수와 기수가 중간 정도인 지역이지만 소형 군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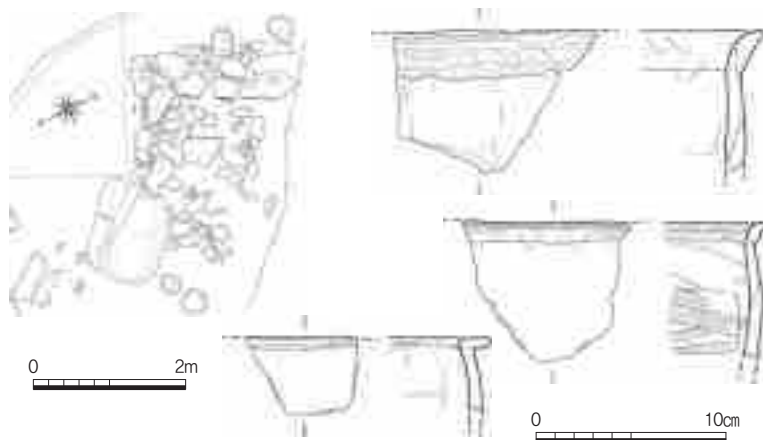


그림 5. 해남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의 3호 고인돌과 무덤방 내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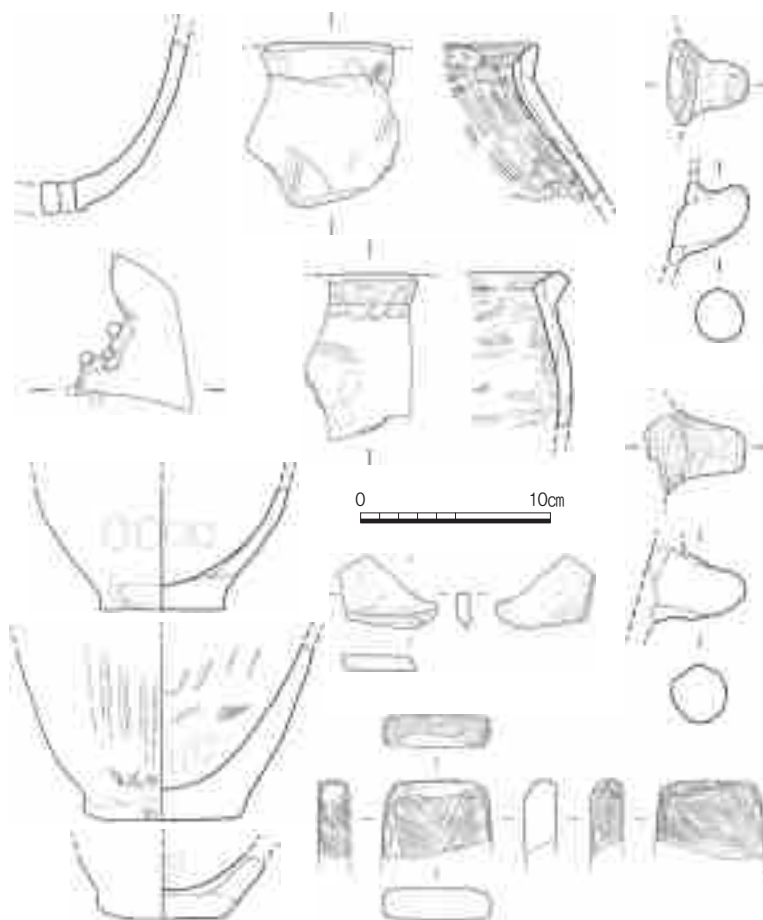


그림 6. 해남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 3호 고인돌의 적석 내 출토유물

표 6. 송지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비고
		1986	2012	2017	기타	2020		
1	가차리 화내 고인돌군		2	2		1	2	
2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1	5	5	5		6	6	발굴조사
3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2	5	5	2		2	5	
4	군곡리 방처 고인돌군	4	2	1		0	4	
5	군곡리 현안 고인돌군1	4	2	1		1	4	
6	군곡리 현안고인돌군2	6	6	4		3	6	
7	미야리 미야 고인돌군		5	1		1	5	
8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1	4	4	4		4	4	
9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2		28	11		11	28	
10	군곡리 패총 고인돌군					2		발굴조사
합계		28	59	31		31	64	

송지면에서는 군곡리 패총 고인돌군이 발굴조사되었다. 1호 지석묘와 2호 지석묘는 덮개돌만 남아 있었다. 3호 고인돌은 덮개돌이 없는 상태로 무덤방만 확인되었다. 무덤방은 할석형 판석으로 쌓았고, 바닥도 할석형 판석을 깔았다. 장축방향은 북동북-남서남(N23°E)이며, 남아있는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30cm이다. 무덤방 내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고(그림 5), 적석 내에서는 경질무문토기, 석도편, 숫돌편이 출토되었다(그림 6).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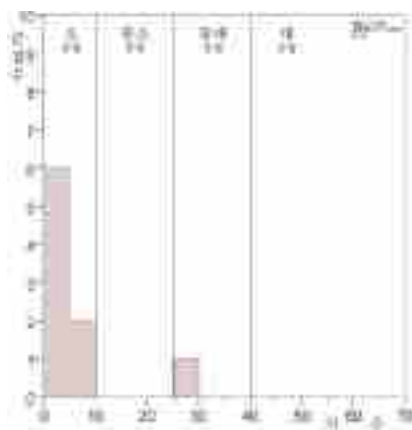


도표 8. 송지면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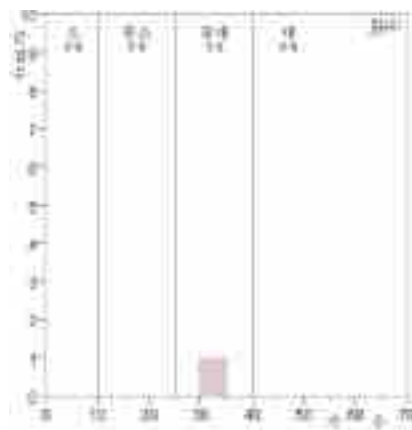


도표 9. 북일면 고인돌 현황

21 김진수·정영희·김영훈·김미연·강귀형·정혜림·배형근, 2019, 『海南 郡谷里 貝塚IV』, 목포대학교 박물관·해남군.

(6) 북평면

해남군의 동남부 최남단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고인들이 한 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7) 북일면

북일면에서는 운전리 운전 고인돌군에 있는 32기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중대형 군집 1개소만 확인되고 있어서 매우 특이하다. 북일면 남쪽에 있는 북평면에서는 고인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이 지역은 고인돌 확산의 중심 경로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북일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1986	2012	2017	기타	2020	
1	운전리 운전 고인돌군	27	20	32		32	32
	합계	27	20	32		32	32

(8) 옥천면

옥천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17개 군 160기, 2012년 조사에서 19개 군 167기, 2017년 조사에서 21개 군 140기, 2020년 조사에서 18개 군 125기의 고인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수량이 약간씩 달라졌는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파괴되어 유실된 고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옥천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21개 군 201기이다(표 8). 그러므로 옥천면은 해남군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군이 확인되었으며, 기수도 현산면 다음으로 많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형 군집이 14개 군으로 2/3를 차지하며, 중소형 군집과 중대형 군집이 각각 6개 군과 1개 군이어서 나머지 1/3을 차지한다(도표 10). 그래서 소형 군집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중소형과 중대형도 상당수여서 비교적 다양한 크기의 고인돌군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표 8. 옥천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1986	2012	2017	기타	2020	
1	백호리 백호 고인돌군	13	13	11		11	13

2	성산리 성산 고인돌군	23	21	8		0	23
3	송산리 마고 고인돌군	3	3	3		3	3
4	송산리 송산 고인돌군			2		2	2
5	송산리 송산 고인돌군1	4	4	3		2	4
6	송산리 화촌 고인돌군	5	5	3		3	5
7	신죽리 가곡 고인돌		1	1		1	1
8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1	15	15	9		9	15
9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2	11	11	4		4	11
10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1	22	22	21		21	22
11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2	8	8	0		0	8
12	영춘리 송운 고인돌군			19		19	19
13	영춘리 영춘 고인돌군1	20	30	19		19	30
14	영춘리 영춘 고인돌군2	5	7	4		4	7
15	용산리 문촌 고인돌군	3	9	8		7	9
16	용산리 용산 고인돌군	9	2	8		2	9
17	용산리 용수 고인돌군	6	5	6		6	6
18	팔산리 팔산 고인돌군	3	0	0		0	3
19	흑천리 옥수 고인돌군	5	5	5		5	5
20	흑천리 요골 고인돌군				2	0	0
21	흑천리 탑동 고인돌군	5	5	5		5	5
22	흑천리 흑천 고인돌		1	1		1	1
23	영춘리 고인돌					1	1
합계		160	167	140	2	125	201

옥천면에서 고인돌은 영춘리와 흑천리 요골에서 발굴(시굴)조사되었다. 영춘리에서는 길이 550cm, 너비 290cm, 두께 310cm 크기의 덮개돌을 3개의 꺾돌이 받치고 있는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굴조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²² 흑천리 요골에서는 고인돌로 추정되는 바위가 있었지만 하부구조가 확인되지 않아 고인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²³

22 東北亞支石墓研究所, 2019, 「해남 가축유통시설 현대화(가축시장) 신축공사 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대한문화재연구원, 2020, 「해남 옥천-도암 도로개량구간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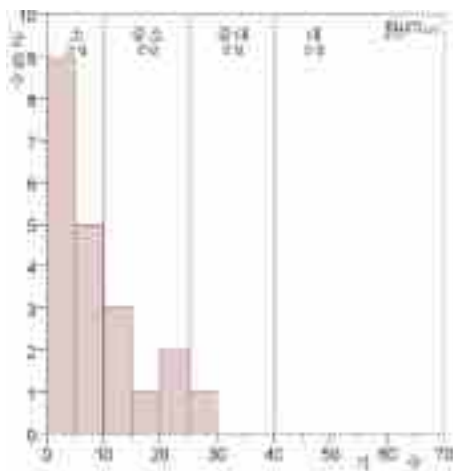


도표 10. 옥천면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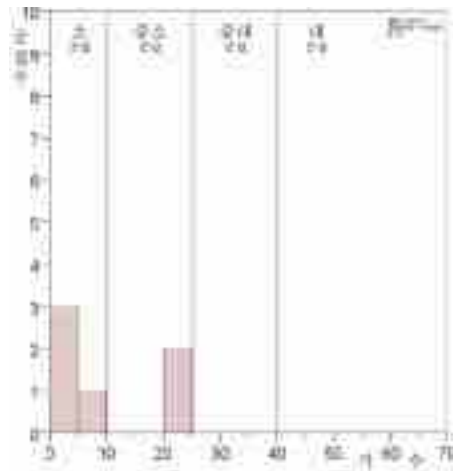


도표 11. 계곡면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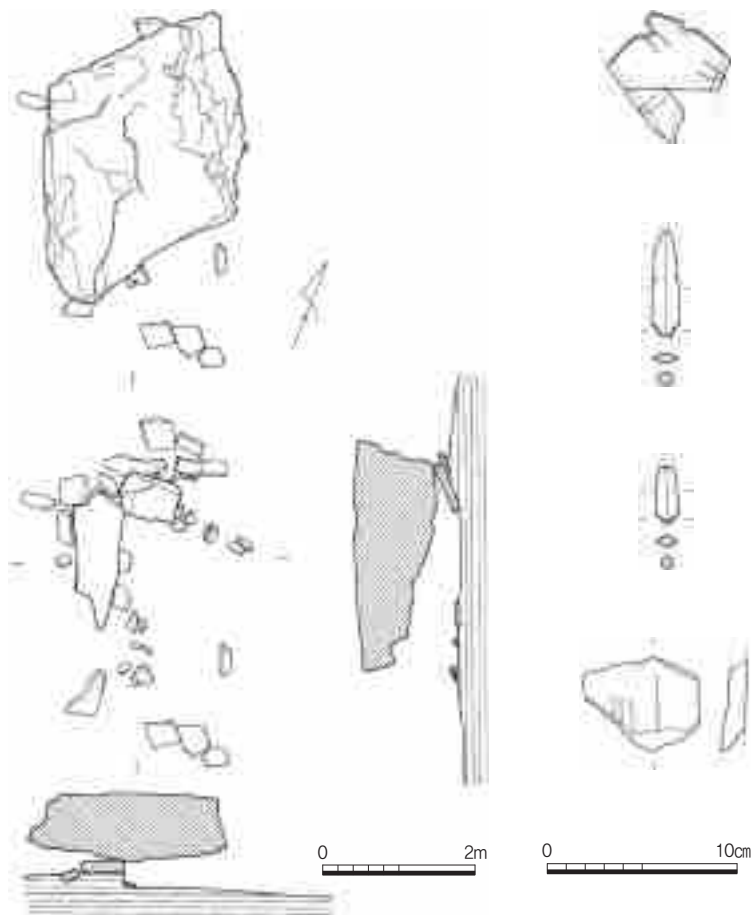
(9) 계곡면

계곡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5개 군 60기, 2012년 조사에서 6개 군 57기, 2017년 조사에서 6개 군 36기, 2020년 조사에서 6개 군 36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수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고인돌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계곡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6개 군 61기이다(표 9). 소형 군집이 4개 군으로 2/3를 차지하며, 중소형 군집이 2개 군으로 1/3을 차지한다(도표 12). 그러므로 계곡면은 고인돌이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이며, 군집의 크기도 중소형과 소형 군집뿐이다.

계곡면에서는 장소리 · 선진리 고인돌과 덕정리 월암 고인돌이 발굴조사되었다.

장소리 · 선진리 고인돌은 도로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1997년~1998년에 발굴조사되었다. 장소리에서 1기, 선진리에서 3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는데, 덮개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은 장소리 고인돌 1기뿐이다. 장소리 고인돌은 덮개돌의 평면 · 단면형태가 모두 장방형이며, 남동쪽에서 뿔돌이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386cm, 너비 260cm, 두께 110cm이며 무게는 22톤이다. 하부구조는 교란되었지만 판석으로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서 석축 2점, 석도 1점, 무문토기편 1점이 수습되었다(그림 7).²⁴

24 최성락 · 이정호 · 최미숙, 2000, 「해남 장소리 · 선진리유적」,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덕정리 월암 고인돌군은 1986년 조사 시에는 23기가 확인되었지만 이후에 고인돌이 파괴되면서 수량이 줄어들었다. 2017년 철도건설구간에 포함되어 발굴될 때에는 고인돌 덮개돌 10기와 덮개돌이 없이 확인된 하부구조 11기가 조사되었다. 고인돌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128~444cm, 너비 76~185cm로 다양하며, 하부구조는 6기에서만 확인되었다. 고인돌은 개석식 4기, 기반식 1기, 묘역석만 확인된 것 1기이다. 매장주체부는 석관형 2기, 석곽형 2기, 혼축형 1기이다. 석검, 반월형석도, 유구석부, 함인석부, 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덮개돌이 없이 하부구조만 확인된 11기는 석관형 4기, 석곽형 3기, 혼축형 1

기이며, 바닥석만 남아있는 것이 2기이다. 석검, 석촉, 반월형석도, 석부, 유구석부, 합인 석부, 관옥, 공열토기 등이 출토되었다.²⁵

표 9. 계곡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비고
		1986	2012	2017	2020		
1	덕정리 월암 고인돌군	23	22	12	10	23	발굴
2	반계리 대운 고인돌군	21	20	18	18	21	
3	법곡리 용호 고인돌군	7	7	2	2	7	
4	선진리 선진 고인돌군	5	3	3	3	5	발굴
5	성진리 성진 고인돌군	4	4	0	0	4	훼손
6	장소리 장소 고인돌		1	1	1	1	발굴
합계		60	57	36	34	61	

(10) 마산면

마산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13개 군 122기, 2012년 조사에서 13개 군 134기, 2017년 조사에서 16개 군 108기, 2020년 조사에서 14개 군 95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수량이 약간씩 줄어들었다. 그만큼 고인돌들이 많이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마산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17개 군 152기이다(표 10). 소형 군집이 10개이며, 중소형 군집이 7개여서 소형과 중소형 군집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도표 12). 그러므로 해남군에서 마산면은 고인돌 군집수와 기수 모두 세 번째로 많다. 마산면의 고인돌 분포 양상은 인접해 있는 옥천면과 상당히 유사한데, 옥천면이 바다로 흘러드는 지점에 위치한 것과 관련될 것이다. 마산면에서 고인돌은 아직까지 발굴조사된 바 없다.

표 10. 마산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1986	2012	2017	2020	
1	노하리 노하 고인돌군	8	8	8	8	8
2	노하리 덕인고인돌군	14	14	4	4	14

25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보성~임성리 철도건설구간내(4·5·6공구)유적 발굴(시굴)조사 3차 약식 보고서』.

3	노하리 신당 고인돌군			3	2	3
4	노하리 원항 고인돌군	15	15	13	13	15
5	노하리 원항 고인돌2			1	0	1
6	맹진리 맹진 고인돌군	2	2	2	2	2
7	맹진리 북창 고인돌군1	1	1	1	1	1
8	맹진리 북창 고인돌군2		20	23	23	23
9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1	15	15	17	17	17
10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2	3	3	3	3	3
11	송석리 송석 고인돌군	15	15	11	0	15
12	외호리 외호 고인돌군	2	2	2	2	2
13	용전리 고암 고인돌군	8	8	5	5	8
14	용전리 고암 고인돌 나			1	1	1
15	학의리 학의 고인돌군	20	20	11	11	20
16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1	11	11	3	3	11
17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2	8	0	0	0	8
합계		122	134	108	95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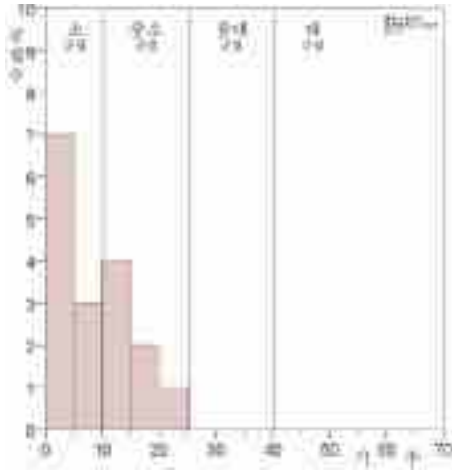


도표 12. 마산면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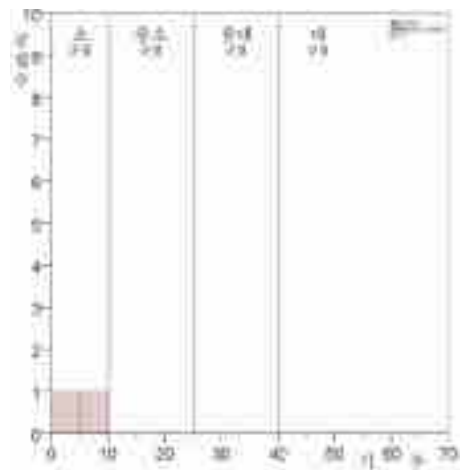


도표 13. 황산면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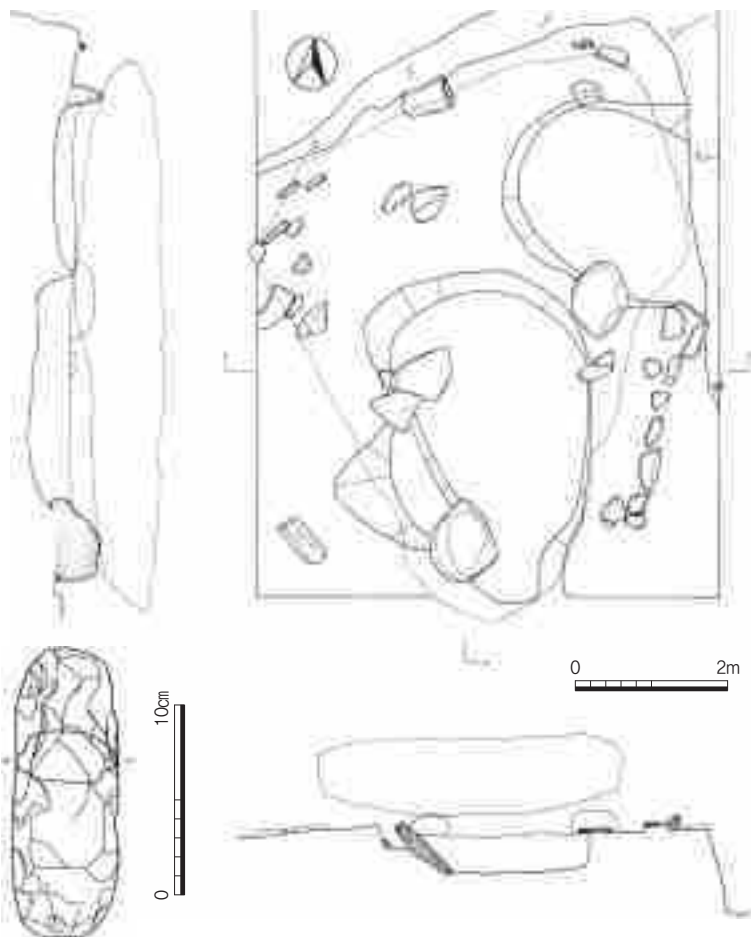
(11) 황산면

황산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1개 군 9기, 2012년 조사에서 2개 군 10기, 2017년 조사에서 2개 군 10기, 2020년 조사에서 1개 군 9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황산

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2개 군 10기뿐이다(표 11). 2개군 모두 소형 군집이다(도표 11). 그래서 황산면은 고인돌의 군집수와 기수가 아주 적다.

표 11. 황산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비고
		1986	2012	2017	2020		
1	명당골 고인돌군	9	9	9	9	9	
2	호동리 고인돌		1	1	0	1	발굴·이전복원
합계		9	10	10	9	10	



황산면에서는 호동리 고인돌이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되었다. 호동리 고인돌의 덮개돌 크기는 길이 780cm, 너비 568cm, 두께 113cm이며 무게는 40톤으로 대형에 속한다. 하부구조는 파괴되었지만 켜돌 4개와 적석 일부가 남아있었다. 석부 1점이 출토되었다(그림 8).²⁶

(12) 산이면

산이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9개 군 74기, 2012년 조사에서 9개 군 74기, 2017년 조사에서 6개 군 41기, 2020년 조사에서 4개 군 38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수량이 줄어들었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산이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9개 군 76기이다(표 12). 소형 군집이 6개 군으로 2/3를 차지하며, 나머지 3개 군은 중소형군집이다(도표 15). 그러므로 산이면은 고인돌이 많지 않으며, 군집도 소형과 중소형뿐이다. 산이면에서 고인돌은 아직까지 발굴조사된 바 없다.

표 12. 산이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1986	2012	2017	2020	
1	노송리 노송 고인돌군1	13	13	7	7	13
2	노송리 노송 고인돌군2	7	7	1	0	7
3	대진리 원항 고인돌군	19	19	16	16	19
4	대진리 주산 고인돌	1	1	0	0	1
5	대진리 지사 고인돌군	2	2	4	4	4
6	송천리 송천 고인돌군1	20	20	12	12	20
7	송천리 송천 고인돌군2	7	7	0	0	7
8	진산리 신정 고인돌	1	1	0	0	1
9	초송리 비석 고인돌군	4	4	1	0	4
합계		74	74	41	39	76

26 崔盛洛·高龍圭·安栽澈, 1992, 「海南 虎洞里 支石墓 發掘調査報告」, 『海南 珍山里 綠靑磁窯址』,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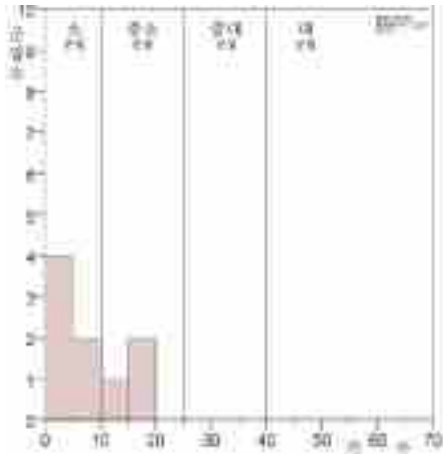


도표 14. 산이면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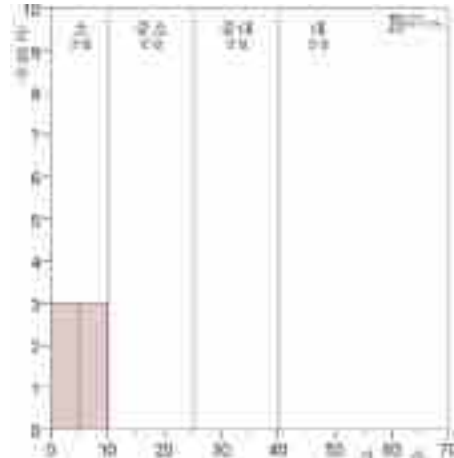


도표 15. 문내면 고인돌 현황

(13) 문내면

문내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5개 군 23기, 2012년 조사에서 4개 군 19기, 2017년 조사에서 5개 군 27기, 2020년 조사에서 5개 군 26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수량이 약간씩 달라졌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문내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6개 군 31기이다(표 13). 6개 군 모두 소형 군집이다(도표 15). 그러므로 문내면은 고인돌이 많지 않으며, 군집도 소형뿐이다. 문내면에서 고인돌은 아직까지 발굴 조사된 바 없다.

표 13. 문내면의 고인돌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1986	2012	2017	2020	
1	고당리 고당 고인돌군	2	2	2	2	2
2	고당리 고대 고인돌군	2	0	1	1	2
3	석교리 석교 고인돌군	7	7	6	5	7
4	석교리 신창 고인돌군			8	8	8
5	선두리 원동 고인돌군	2	0	0	0	2
6	충평리 충평 고인돌군	10	10	10	10	10
합계		23	19	27	26	31

(14) 화원면

화원 면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1개 군 7기, 2012년 조사에서 2개 군 10기, 2017년 조사에서 4개 군 11기, 2020년 조사에서 4개 군 10기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고인들의 군집수와 기수가 달라졌다. 이를 종합해서 추산하면, 화원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인들은 모두 4개 군 17기이다(표 14). 4개 군 모두 소형 군집이다(도표 17). 그러므로 화원면은 고인들이 많지 않으며, 군집도 소형뿐이다. 화원면에서 고인들은 아직까지 발굴조사된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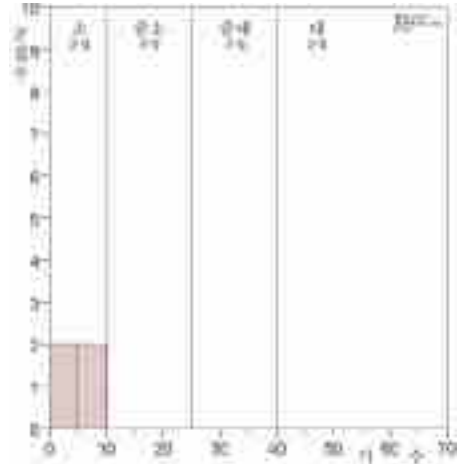


도표 16. 화원면 고인들 현황

표 14. 화원면의 고인들 현황

연번	유적명	조사 현황				최다 기수
		1986	2012	2017	2020	
1	영호리 장재 고인들군	7	4	1	1	7
2	영호리 저상 고인들군1			2	2	2
3	영호리 저상 고인들군2			2	2	2
4	장춘리 장평 고인들군		6	6	5	6
합계		7	10	11	10	17

3) 해남군 고인들의 분포밀도

해남군 관내에서 고인들을 조사할 때마다 군집수와 기수가 달라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많은 고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파괴되면서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해남군에서 확인된 고인들은 118개 군 1,302기 정도로 추산된다(표 15).

표 15. 해남군의 읍·면별 고인돌 현황

읍·면		고인돌				
명칭	면적 (단위:km)	군집수	최대기수	군집당 평균 기수	0.1km ² 당 기수	분포밀도 등급
1. 해남읍	65.2	7	69	9.9	0.11	3등급
2. 삼산면	50.9	11	72	6.5	0.14	3등급
3. 화산면	56.9	7	144	20.6(8.2)	0.25(0.14)	2등급
4. 현산면	90.3	18	373	18.7(9.1)	0.41(0.19)	1등급
5. 송지면	80.9	9	64	7.1	0.08	4등급
6. 북일면	41.4	1	32	32	0.05	5등급
7. 북평면	48.2	0	0	0	0	6등급
8. 옥천면	61.1	21	201	9.1	0.33	1등급
9. 계곡면	78.1	6	61	10.2	0.08	4등급
10. 마산면	80.2	17	152	8.9	0.19	2등급
11. 황산면	105.8	2	10	5	0.01	5등급
12. 산이면	125.3	9	76	7.2	0.06	4등급
13. 문내면	56.6	6	31	5.2	0.05	5등급
14. 화원면	90.2	4	17	4.3	0.02	5등급
합계		118	1,302	11		

해남군 관내에서 읍·면별 고인돌의 분포양상과 분포밀도의 편차는 상당히 크다. 200기 이상 분포하는 읍·면으로는 옥천면(21개 군 201기)과 현산면(18개 군 373기)이 있으며, 101~200기로는 마산면(17개 군 152기)과 화산면(7개군 144기)이 있다. 나머지 중 9개 읍·면은 100기 이하이며, 북평면에는 아직까지 1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해남군 고인돌의 분포밀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읍·면별로 0.1km²당 분포하는 고인돌 기수를 계산하였다(그림 9). 물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산지 비율이 서로 다르고, 해안선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해남군에서 고인돌 분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현산면이다. 현산면에는 0.1km²당 0.41기가 분포한다. 하지만 200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읍호리·황산리 고인돌군을 제외하면 0.19기로 줄어든다. 다음으로 밀집도가 높은 곳은 201기가 분포하는 옥천면으로 0.1km²당 0.33기가 분포한다. 이어서 화산면은 0.25기, 마산면 0.19기, 삼산면 0.14기, 해남읍 0.11기 순이다. 그리고 계곡면, 송지면, 산이면, 북일면, 문내면, 화원면, 황산면

은 0.8~0.1기이다. 이를 토대로 해남군의 읍·면별 고인돌 분포밀도는 6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등급은 0.31기이상, 2등급은 0.30~0.16기, 3등급은 0.15~0.11기, 4등급은 0.10~0.06기, 5등급은 0.05~0.01기, 6등급은 0이다. 1등급은 현산면·옥천면, 2등급은 화산면·마산면, 3등급은 삼산면·해남읍, 4등급은 송지면·계곡면·산이면, 5등급은 북일면·문내면·화원면·황산면, 6등급은 북평면이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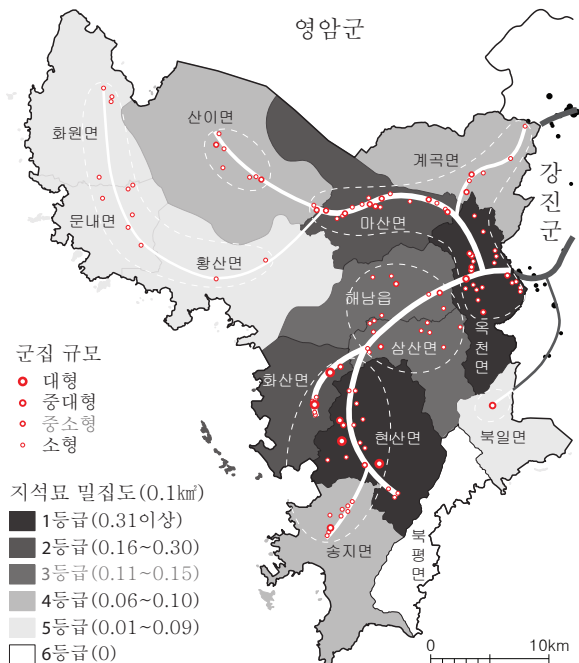


그림 9. 해남군 고인돌 분포밀도와 확산경로

1등급인 옥천면은 해남군의 중동부에 위치하며, 현산면은 서남부에 위치한다. 2등급은 옥천면에 인접한 마산면과 현산면에 인접한 화산면이며, 3등급은 1·2등급 사이에 끼어있는 해남읍과 삼산면이다. 그러므로 해남군에서 고인돌은 1~3등급 읍·면들이 있는 중부지역에 밀집 분포한다. 그리고 서북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으로 가면서 고인돌의 분포밀도는 확연하게 줄어든다.

해남군은 산맥과 하천 등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6개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북부에 있는 옥천면, 마산면, 계곡면은 광의의 옥천천유역으로 묶을 수 있다. 둘째, 서북부에 있는 산이면은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서북부에 있는 화원면, 문내면, 황산면은 화원반도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넷째, 중서부에 있는 해남읍과 삼산면은 해남천-삼산천유역으로 묶을 수 있다. 다섯째, 서남부에 있는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은 백포만 일대로 묶을 수 있다. 여섯째, 동남부에 있는 북일면과 북평면은 북일-북평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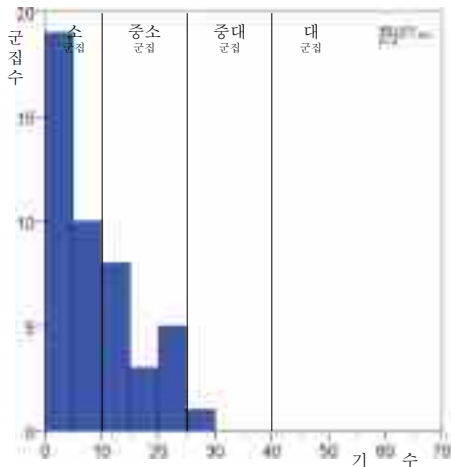


그림 17. 옥천천유역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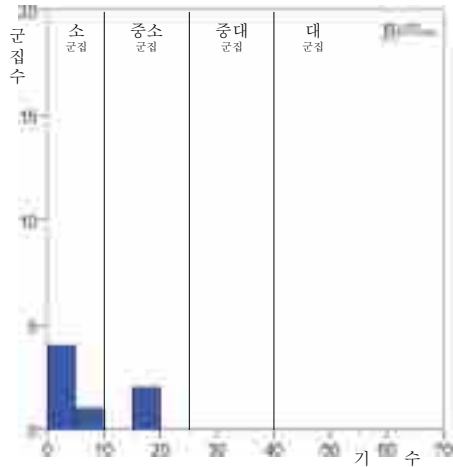


그림 18. 산이지역 고인돌 현황

옥천천유역은 옥천면(1등급), 마산면(2등급), 계곡면(4등급) 전역과 산이면 동부를 일부 포함한다. 이 지역은 백포만 일대와 더불어 해남군에서 고인돌이 밀집분포하는 지역이다. 고인돌 분포 양상을 보면, 소형군집이 많지만 중소형 군집도 적지 않고, 중대형 군집도 있다. 그래서 소형, 중소형, 중대형 군집이 안정적인 구조로 분포하며, 고인돌 기수도 많다.

산이지역은 산이면 동부 일부를 제외한 전역이다. 이 지역에서 고인돌의 분포밀도는 4등급으로 낮으며, 군집 크기도 대부분 소형이지만 중소형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옥천천유역에서 멀어지면서 고인돌의 수량이 약간 줄어드는 양상이다.

화원반도에 있는 화원면, 문내면, 황산면은 고인돌 분포밀도가 모두 5등급으로 고인돌이 많지 않으며, 군집 크기도 모두 소형이다. 그래서 해남군에서도 고인돌이 가장 적게 분포하는 지역이다.

해남천-삼산천유역은 해남군 중심부에 위치한다. 해남천과 삼산천이 Y자형으로 흐르고 있어서 지형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고인돌 분포밀도는 해남읍과 삼산면 모두 3등급에 해당하므로 해남군에서 중간 정도이다. 고인돌 군집의 크기는 소형이 많으며, 중소형도 있다. 해남천-삼산천유역은 지리적으로 고인돌 분포밀도가 가장 높은 옥천천유역과 백포만 일대의 사이에 위치한다.

백포만 일대는 해남군 서남부에 위치한 현산면(1등급), 화산면(2등급), 송지면(4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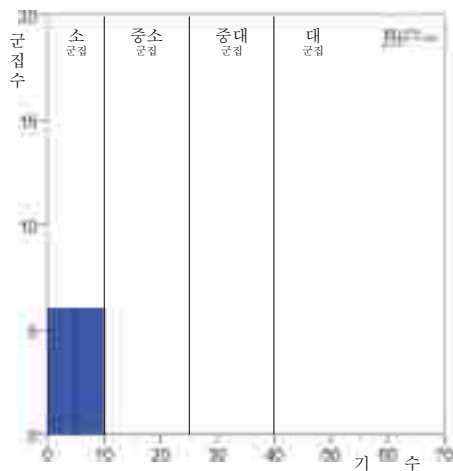


그림 19. 화원반도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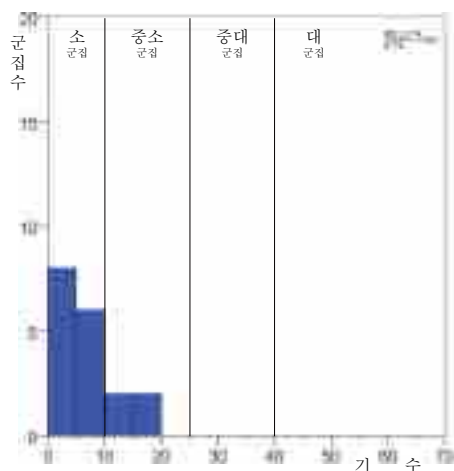


그림 20. 해남천-삼산천유역 고인돌 현황

지역인데, 현산천을 비롯한 소하천들이 백포만 일대의 바다로 바로 흘러든다. 옥천천유역과 더불어 해남군에서 고인돌 분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고인돌은 소형 군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중소형, 중대형, 대형·초대형 군집도 확인된다. 그러나 중소형, 중대형, 대형·초대형 군집은 각각 2~3개 군에 불과하다. 그래서 백포만 일대의 고인돌 군집 양상은 옥천천유역과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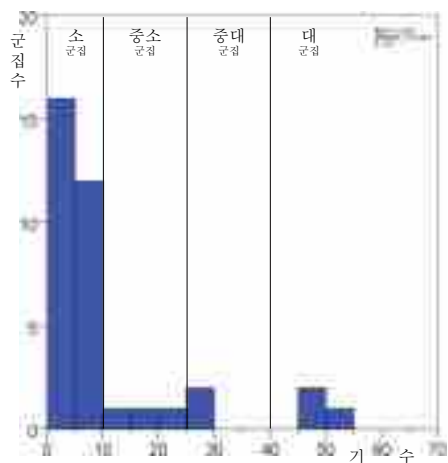


그림 21. 백포만 일대 고인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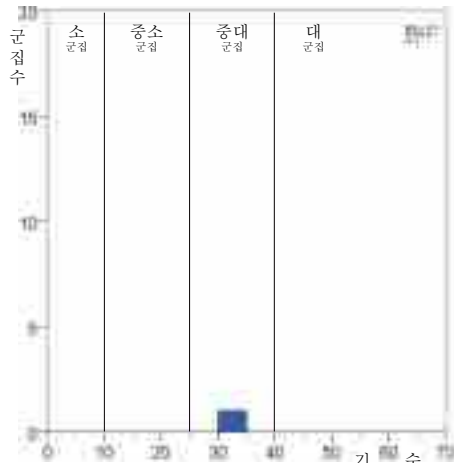


그림 22. 북일-북평지역 고인돌 현황

북일-북평지역은 해남군 동남부에 위치한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두륜산을 비롯한 높은 산들 때문에 해남군의 중심부와 격리되어 있는 대신 강진군 신전면·도암면 쪽으로 이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 고인돌은 북일면에서 1개 군 32기만 확인되고 있어서 해남군 중심부보다는 강진군 신전면·도암면 지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4) 해남군 고인들의 등장과 확산과정

해남군에서는 발굴조사된 고인돌은 적지 않지만 하부구조가 제대로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인들의 연대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해남군 관내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 관련 유적은 10개 유적 30여 기이다. 이 가운데 1/3 정도는 덮개돌이 이동되었거나 하부구조가 파괴되어 고인들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에 발굴조사되었기 때문에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유적들도 많다(표 16).

표 16. 해남군 고인돌 발굴 조사 현황

읍·면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해남읍	안동리 고인돌군	바둑판식 1기, 궂돌 6개 확인.	
현산면	고현리 고인돌	고인돌 1기(65톤), 하부구조 1기(석곽형)	주변에서 우각형파수, 소형대부토기, 저부편
	황산리 분토 유적	고인돌 1기, 석관묘 3기(이단토광 또는 반지하식), 석곽묘 1기(반지하식)	무문토기편, 석검
송지면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1	덮개돌 2기, 덮개돌 없는 무덤방 1기	무덤방에서 경질무문토기, 적석에서 경질무문토기, 석도편, 숫돌편
옥천면	영촌리 고인돌	시굴조사, 고인돌 1기, 궂돌 3개와 묘역석 일부 확인	
	흑천리 요골 고인돌	고인돌이 아닐 가능성이 큼	
계곡면	선진리 선진 고인돌군	고인돌 3기, 파괴(덮개돌 이동).	
	장소리 장소 고인돌	고인돌 1기, 하부구조 교란, 판석 축조, 궂돌	석촉, 석도, 무문토기편
	덕정리 월암 고인돌군	고인돌 덮개돌 10기(석곽형 2기, 석관형 2, 묘역석 1기), 하부구조 11기(석곽형 3, 석관형 4, 혼축형 1, 바닥석 잔존 2)	석검, 석촉, 반월형석도, 석부, 유구석부, 합인석부, 관옥, 공열토기
황산면	호동리 고인돌	고인돌 1기, 궂돌과 적석 일부만 확인.	석부

현재까지 해남군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들을 보면, 매장주체부가 대부분 이단도광 석관형, 반지하 석관형, 반지하 석곽형, 또는 지상화된 위석형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고인돌의 하부구조는 구조적으로 파괴되기 쉽다. 해남군에서 하부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인돌들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인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²⁷ 해남군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들은 주로 3~5기에 해당한다. 3기의 하한연대는 기원전 3세기경이며, 4기와 5기는 기원전후까지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해남군에서 고인돌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로 생각된다. 고헌리 고인돌에서는 주변에서 기원후 1~2세기에 유행하는 우각형과수와 소형대부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를 보면, 해남군에서 고인돌은 기원후 1~2세기에도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남군 고인돌의 전체적인 분포양상은 옥천면에 바닥을 둔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한 쪽은 산이면과 화원면 방향으로 이어지며, 다른 한 쪽은 현산면과 송지면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를 보면, 해남군에서 고인돌은 옥천면 일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서 양쪽 방향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옥천천유역은 고인돌 기수가 많을 뿐 아니라 군집 크기도 소형, 중소형, 중대형 군집이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한다. 옥천면에서 산이면과 화원면 방향으로 이어진 고인돌의 분포밀도는 옥천면>마산면>계곡면>산이면>황산면·문내면·화원면의 순으로 옥천면에서 멀어질수록 분포밀도가 떨어진다.

옥천면에서 현산면과 화산면 방향으로 이어진 고인돌의 분포밀도는 해남읍과 삼산면에서는 고인돌의 분포밀도가 줄어들었지만 화산면과 현산면에서는 높게 올라갔다가 송지면에서 다시 떨어진다. 특히 화산면과 현산면은 옥천면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분포밀도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50기 내외의 대형 고인돌군과 200기 정도의 초대형 고인돌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형·초대형 군집을 제외하면, 화산면의 분포밀도는 해남읍이나 삼산면과 비슷한 수준이고, 현산면은 마산면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뿐 아니라 백포만 일대의 고인돌군은 소형 군집이 절대 다수를 차

27 趙鎭先, 2008, 「耽津江流域圈 支石墓의 形式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30.

지해서 옥천천유역의 고인돌군처럼 안정적인 군집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백포만 일대에서는 몇몇 고인돌군이 대형이나 초대형 군집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들로 보아, 해남군에서 고인돌은 옥천면 일대에서 조영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리적으로 보면, 해남군으로 들어오는 육로는 강진군 도암면-해남군 옥천면(국도 18호선), 강진군 성전면-해남군 계곡면(국도 13호선) 사이여서 고인돌도 이러한 선상을 따라 해남군 경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강진군을 비롯한 탐진강유역의 고인돌은 보성강유역에서 탐진강 상류지역으로 들어와 관산반도와 도암만 일대로 파급되었다. 도암만 일대로 들어온 고인돌군 가운데 일부는 강진군 도암면을 거쳐 해남군 옥천면 일대로 이어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²⁸ 그러므로 옥천면 일대로 들어온 고인돌은 이 일대의 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정착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조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일부는 서북쪽 마산면 방향으로 확산되고, 일부는 서남쪽 해남읍 방향으로 퍼져 나갔을 것이다. 특히 화산면·현산면·송지면 일대에서는 몇몇 군집이 대형이나 초대형 군집으로 성장해 가는데, 해남 군곡리 패총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2. 해남의 고인돌 보존활용 방안

해남군에는 122개군 934기의 고인돌이 선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해남군 고인돌의 분포양상은 해남군에서 고인돌이 확산되는 경로와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남반도의 남단에 해당하는 송지면 남부와 북평면 일대에서 아직까지 고인돌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해남군의 고인돌은 중동부에 위치한 옥천면과 서남부에 위치한 현산면에 가장 밀집 분포하고, 이와 인접한 마산면과 화산면에 그 다음으로 밀집 분포한다. 그리고 옥천면·마산면과 현산면·화산면 사이에 있는 해남읍과

28 趙鎭先, 2008, 「耽津江流域圈 支石墓의 形式과 變遷」, 『湖南考古學報』30.

삼산면에도 적지 않은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해남군에서 고인들은 옥천면, 마산면, 해남읍, 삼산면, 현산면, 화산면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에 밀집분포한다. 여기에서 멀어지는 서북부의 산이면, 화원면, 문내면, 황산면과 동남부의 북일면, 북평면으로 가면서 고인들의 분포밀도는 확연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인들의 분포양상으로 보아, 해남군에서 고인들은 옥천면 일대로 처음 유입되어 서북부와 서남부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50기 내외의 대형 군집과 200기 정도의 초대형 군집이 분포하는 현산면과 화산면에서는 늦은 시기까지 고인들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남군 고인들은 발굴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특징이나 연대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해남군에는 개석식과 바둑판식 고인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무덤방의 구조도 대체로 간단한 석관형이 중심을 이루며, 혼축형이나 석곽형도 대부분 무덤방만 갖춘 단순한 구조이다. 이러한 형식의 고인들들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유행한 것이다. 따라서 해남군에서 고인들이 크게 유행하는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전후, 또는 기원후 1~2세기까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해남군 고인들의 연대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해남군 고인들에 대한 종합조사들을 보면, 수많은 고인들이 파괴되어 유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해남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존 및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고인들의 보호 대책은 교육자료나 관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법적인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해남군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군은 3개뿐이다(표 17).

표 17. 문화재로 지정된 해남군의 고인돌군

고인돌군 명칭	문화재 지정번호	문화재 지정일	기수	비고
방축리 고인돌군	전라남도 기념물 제115호	1989년 9월 18일	53기	
연정리 고인돌군	전라남도 기념물 제165호	1997년 5월 15일	48기	
신안리 신안 고인돌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28호	2015년 6월 29일	20여기 (현 13기)	

해남의 고인들은 1986년 조사에서 1,022기로 확인되었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934기로 약 8.5%정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 소재 여타 지역의 감소율이 10~1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해남군 관내의 고인들은 어느 정도 현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되므로 관리보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많은 고인들이 훼손되거나 인멸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확인되었다. 고인들 훼손의 원인은 경지정리, 도로공사, 건설공사, 경작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 인한 이유로 훼손된 고인들은 멸실되어 확인할 수 없거나 상석만 남아있는 고인들이 확인되어 고인들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에는 중장비가 동원되면서 고인들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고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인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고인들의 보존과 활용은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고인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실시한 해남군 고인들 분포조사를 통해 해남지역의 고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와 현황과악이 이루어졌고, 각 군집별로 정확한 위치와 지번 등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러한 자료는 행정기관 내에서 여러 관련부서와 문화재 담당부서와 공유되고, 업무협조 체계가 잘 정비된다면 고인들 주변의 개발과 민가 신축,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일부 고인들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해남군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특히 해남 읍호리·황산리 고인들군은 200기에 달하는 고인들과 채석장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또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몇몇 고인들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또는 해남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표 18).



표 18. 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해남군의 고인돌군

고인돌군 명칭	기수	문화재 지정 요청 등급	비고
읍호리 · 황산리 고인돌군	200기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또는 국가 지정문화재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 21-1번지 일대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3	26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1148, 1149, 1150번지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1	22기 (현재 21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108, 109, 115-4번지
운전리 운전 고인돌군	32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산135번지
초호리 초호 고인돌군	22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산47번지

부록

부록 1

해남 고인돌 목록

	읍면	유적명	소재지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	해남읍	고도리 호천 고인돌	해남읍 고도리 2-1	1	0	1	0	
2		신안리 신안 고인돌군	해남읍 신안리 110	20	20	11	14	향토문화유산 제28호
3		신안리 생미제 고인돌군	해남읍 신안리 388				7	
4		연동리 연동 고인돌군	해남읍 연동리 133	2	10	4	4	
5		안동리 유물산포지	해남읍 안동리 산34-1				15	발굴/이전복원
6		백야리 백야 고인돌군	해남읍 백야리 553		5	3	3	
7		용정리 용정 고인돌군	해남읍 용정리 942-3		4	1	1	
8		용정리 송용 고인돌군	해남읍 용정리 701	7	16	10	10	
9	삼산면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1	삼산면 신흥리 301	4	2	2	2	
10		신흥리 감당 고인돌군2	삼산면 신흥리 산73-8		2	1	2	
11		신흥리 상금 고인돌	삼산면 신흥리 816-4		1	1	1	
12		송정리 저산 고인돌군	삼산면 송정리 434-1	2	2	2	2	
13		봉학리 봉학 고인돌군	삼산면 봉학리 산6-1		4	3	3	
14		봉학리 신금 고인돌군	삼산면 봉학리 산33-10		3	3	3	
15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1	삼산면 원진리 618-5		10	8	8	
16		원진리 농암 고인돌군2	삼산면 원진리 688-3		10	7	7	
17		원진리 원진 고인돌군	삼산면 원진리 209	15	15	10	10	
18		상가리 계동 고인돌군	삼산면 상가리 252-5	7	7	7	7	
19		상가리 종리 고인돌군	삼산면 상가리 415	15	5	5	5	
20	화산면	해창리 해창 고인돌군	화산면 해창리 407, 411	16	16	14	8	
21		연정리 고인돌군	화산면 연정리 73-1	47	48	48	48	전라남도 기념물 제16호
22		방축리 석전 고인돌군	화산면 방축리 579, 584-2	2	2	2	2	
23		방축리 방축 고인돌군	화산면 방축리 740	10	3	3	3	

	읍면	유적명	소재지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24	화산면	방축리 고인돌군	화산면 방축리 637	53	53	50	55	전라남도 기념물 제15호
25		부길리 은산 고인돌군1	화산면 부길리 5-1, 15	7	7	5	5	
26		부길리 은산 고인돌군2	화산면 부길리 176-1	6	6	5	5	
27	현산면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1	현산면 구시리 930-1		2	2	2	
28		구시리 오시골 고인돌군2	현산면 구시리 산90		9	2	0	채석장
29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1	현산면 구시리 1207	4	1	1	0	훼손
30		구시리 하구시 고인돌군2	현산면 구시리 861	6	6	6	8	
31		고현리 고인돌	현산면 고현리 590-5		1	1	1	발굴/이전복원
32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1	현산면 고현리 760-1	8	8	8	8	
33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2	현산면 고현리 1108	12	12	8	8	
34		고현리 학의 고인돌군3	현산면 고현리 1149	25	25	26	26	
35		일평리 일평 고인돌군	현산면 일평리 산76-10		3	2	2	
36		읍호리 고담 고인돌	현산면 읍호리 산32-14		1	1	1	
37		읍호리 · 황산리 고인돌군	현산면 읍호리 산21-1	200	200	200	200	
38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1	현산면 읍호리 1119-1	1	3	2	2	
39		읍호리 읍호 고인돌군2	현산면 읍호리 1109-1	3	50	13	13	
40		백포리 백포 고인돌군	현산면 월송리 1318-1	6	6	0	0	훼손
41		초호리 초호 고인돌군	현산면 초호리 산47	21	8	22	22	
42		황산리 분토유적	현산면 분토리 836				1	발굴/이전복원
43		월송리 향교 고인돌군	현산면 월송리 1318-1		6	6	6	
44		월송리 증산 고인돌군	현산면 월송리 367	2	2	2	2	
45		월송리 월송 고인돌군	현산면 월송리 557-1	10	8	6	6	
46	송지면	군곡리 현안 고인돌군1	송지면 군곡리 80	4	2	1	1	
47		군곡리 현안고인돌군2	송지면 군곡리 산31	6	6	4	3	
48		군곡리 방저 고인돌군	송지면 군곡리 80	4	2	1	0	훼손
49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1	송지면 군곡리 725-1	5	5	5	2	발굴
50		군곡리 군안 고인돌군2	송지면 군곡리 799-1	5	5	2	2	

	읍면	유적명	소재지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51	송지면	가차리 화내 고인돌군	송지면 가차리 71-3		2	2	1	
52		미야리 미야 고인돌군	송지면 미야리 51-1		5	1	1	
53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1	송지면 미야리 13-1	4	4	4	4	
54		미야리 영평 고인돌군2	송지면 미야리 산24-4		28	11	11	
55	북일면	운전리 운전 고인돌군	북일면 운전리 산135	27	20	32	32	
56	옥천면	백호리 백호 고인돌군	옥천면 백호리 454-1	13	13	11	11	
57		성산리 성산 고인돌군	옥천면 성산리 22-6	23	21	8	0	훼손
58		송산리 송산 고인돌군1	옥천면 송산리 90	4	4	3	2	
59		송산리 송산 고인돌 2	옥천면 송산리 119-2			2	2	
60		송산리 마고 고인돌군	옥천면 송산리 994	3	3	3	3	
61		송산리 화촌 고인돌군	옥천면 송산리 산90-1	5	5	3	3	
62		신죽리 가곡 고인돌	옥천면 신죽리 220		1	1	1	
63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1	옥천면 영신리 108, 115-4	22	22	21	21	
64		영신리 영안 고인돌군2	옥천면 영신리 253-1	8	8	0	0	훼손
65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1	옥천면 영신리 374-1	15	15	9	9	
66		영신리 영신 고인돌군2	옥천면 영신리 386	11	11	4	4	
67		영춘리 영춘 고인돌군1	옥천면 영춘리 807-1	20	30	19	19	
68		영춘리 영춘 고인돌군2	옥천면 영춘리 518-1	5	7	4	4	
69		영춘리 고인돌	옥천면 영춘리 775-1				1	발굴/이전복원
70		영춘리 송운 고인돌군	옥천면 영춘리 730-1			19	19	
71		용산리 용산 고인돌군	옥천면 용산리 산10-1	9	2	8	2	
72		용산리 문촌 고인돌군	옥천면 용산리 342	3	9	8	7	
73		용산리 용수 고인돌군	옥천면 용산리 78	6	5	6	6	
74		팔산리 팔산 고인돌군	옥천면 팔산리 984	3	0	0	0	훼손
75		흑천리 옥수 고인돌군	옥천면 흑천리 319	5	5	5	5	
76		흑천리 흑천 고인돌	옥천면 흑천리 436-2		1	1	1	
77		청신리 탑동 고인돌군	옥천면 청신리 149	5	5	5	5	
78		흑천리 요골고인돌군	옥천면 흑천리 산9-2				0	시굴, 고인돌×
79	계곡면	덕정리 월암 고인돌군	계곡면 덕정리 153-1	23	22	12	10	발굴
80		반계리 대운 고인돌군	계곡면 반계리 400-6	21	20	18	18	
81		법곡리 용호 고인돌군	계곡면 법곡리 306	7	7	2	2	

	읍면	유적명	소재지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82	계곡면	선진리 선진 고인돌군	계곡면 선진리 375-1	5	3	3	3	발굴/이전복원
83		성진리 성진 고인돌군	계곡면 성진리 270	4	4	0	0	훼손
84		장소리 장소 고인돌	계곡면 장소리 122-3		1	1	1	발굴/이전복원
85	마산면	노하리 원향고인돌군	마산면 노하리 산98-3	15	15	13	13	
86		노하리 원향 고인돌 2	마산면 노하리 249-1			1	0	훼손
87		노하리 노하 고인돌군	마산면 노하리 249-1	8	8	8	8	
88		노하리 덕인고인돌군	마산면 노하리 산38-1	14	14	4	4	
89		노하리 신당 고인돌군	마산면 노하리 85-3			3	2	
90		맹진리 맹진 고인돌군	마산면 맹진리 424-3	2	2	2	2	
91		맹진리 북창 고인돌군1	마산면 맹진리 572-2	1	1	1	1	
92		맹진리 북창 고인돌군2	마산면 맹진리 695-2		20	23	23	
93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1	마산면 산막리 282	15	15	17	17	
94		산막리 산막 고인돌군2	마산면 산막리 444	3	3	3	3	
95		송석리 송석 고인돌군	마산면 송석리 407-2	15	15	11	0	훼손
96		외호리 외호 고인돌군	마산면 외호리 182	2	2	2	2	
97		용전리 고암 고인돌군	마산면 용전리 343-2	8	8	5	5	
98		용전리 고암 고인돌 나	마산면 용전리 103-2			1	1	
99		학의리 학의 고인돌군	마산면 학의리 952	20	20	11	11	
100		화내리 안정 고인돌군1	마산면 화내리 396-3	11	11	3	3	
101		화내리 안정고인돌군2	마산면 화내리 1163-3	8	0	0	0	훼손
102	황산면	송호리 명당 고인돌군	황산면 송호리 산66	9	9	9	9	
103		호동리 고인돌	황산면 호동리 산210-9		1	1	1	발굴/이전복원
104	산이면	노송리 노송고인돌군1	산이면 노송리 127-2	13	13	7	7	
105		노송리 노송 고인돌군2	산이면 노송리 319-1	7	7	1	0	훼손
106		대진리 지사 고인돌군	산이면 대진리 산22-5	2	2	4	4	
107		대진리 원향 고인돌군	산이면 대진리 716-17	19	19	16	16	
108		대진리 주산 고인돌	산이면 대진리 38-6	1	1	0	0	훼손
109		송천리 송천 고인돌군1	산이면 송천리 448-5	20	20	12	12	
110		송천리 송천고인돌군2	산이면 송천리 519-15	7	7	0	0	훼손
111		진산리 신정고인돌	산이면 진산리 349-1	1	1	0	0	훼손
112		초송리 비석 고인돌군	산이면 초송리 산51-9	4	4	1	0	훼손

	읍면	유적명	소재지	수량(기수)				비고
				1986년	2002년	2017년	2020년	
113	문내면	고당리 고당 고인돌군	문내면 고당리 274	2	2	2	2	
114		고당리 고대 고인돌군	문내면 고당리 49	2	0	1	1	
115		석교리 신창 고인돌군	문내면 석교리 689			8	8	
116		석교리 석교 고인돌군	문내면 석교리 422	7	7	6	5	
117		선두리 원동 고인돌군	문내면 용암리 원동	2	0	0	0	훼손
118		총평리 총평 고인돌군	문내면 총평리 산68	10	10	10	10	
119	회원면	영호리 장재 고인돌군	회원면 영호리 868	7	4	1	1	
120		영호리 저상 고인돌군1	회원면 영호리 135-1			2	2	
121		영호리 저상 고인돌군2	회원면 영호리 298			2	2	
122		장춘리 장평 고인돌군	회원면 장춘리 540-2		6	6	5	
	14개 읍면			1,022	1,152	950	934	



부록 3

참고문헌

- 賈鍾壽, 2004, 「니아스섬의 巨石文化」, 『先史와 古代』 21.
- 가중수, 2012, 「동인도네시아 사부섬의 지석묘」, 『계간 한국의 고고학』 21.
- 가중수·가기야 아키코·요시다 야스히코, 2009,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숨바섬의 지석묘 사회』, 북코리아.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영산강유역 지석묘 V』.
-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1992, 「해남 호동리 지석묘 발굴보고」,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 金秉模, 1980, 「자바島의 巨石文化 -인도네시아 巨石文化의 研究(1)-」, 『韓國考古學報』 8.
- 金秉模, 1981, 「韓國 巨石文化 源流에 관한 研究(1)-」, 『韓國考古學報』 10·11.
- 김건수·정영희·김영훈·김미연·강귀형·정혜림·배형곤, 2019, 『海南 郡谷里 貝塚IV』, 목포대학교박물관·해남군.
- 동북아시아지석묘연구소,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 東北亞支石墓研究所, 2019, 「해남 가축유통시설 현대화(가축시장) 신축공사 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목포대학교박물관, 1986, 『해남군의 문화유적』.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해남 장소리·선진리유적」,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8, 『해남 안동-남송간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 송화섭, 200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고인돌」, 『인문콘텐츠』 4.
- 송화섭, 2006, 「한반도 고인돌의 남방문화론」, 『한민족연구』 1.
- 신경숙, 2012, 「고인돌 축조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13, 한국문화유산협회.
- 윤태용, 2007, 「호남지역 석주식 지석묘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8.
- 李榮文, 2000, 「韓國 支石墓 年代에 대한 檢討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연대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14.
-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의 연구』, 학연문화사.
- 이영문, 2014, 『고인돌, 역사가 되다』, 학연문화사.
- 이영문·이정호, 1998, 『해남 고현리 지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 임영진·박수현·이정진·Bagyo Prasetyo·가중수·이동희·조진선·윤호필, 2011,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파세마고원의 거석유적」, 『호남고고학보』 38.
- 전남문화재연구원, 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 趙鎮先, 2008, 「耽津江流域圈 支石墓의 形式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30.
- 조진선, 2010, 「인도네시아 숨바섬의 거석묘 조영과 확산과정」, 『고문화』 76.
- 조진선, 2013, 「인도네시아 지석묘의 기원 -중국 절강성 지석묘와 비교-」, 『韓國上古史學報』 80.

崔盛洛·高龍圭·安裁澈, 1992, 「海南 虎洞里 支石墓 發掘調査報告」, 『海南 珍山里 綠靑磁窯址』,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 연구』, 백산자료원.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보성~임성리 철도건설구간내(4·5·6공구)유적 발굴(시굴)조사 3차 약식보고서』.

황재훈, 2006, 「전남지역 지석묘의 형식분류와 변천: 개별 지석묘군의 축조순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상고사학보』, 53호, 한국상고사학회.

